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4월 18일 수요일 (주간) 제 315 호



관무량경

탐심을 길러오길 몇 겁을 하였던고
아득한 옛적부터 마군의 권속일세.
자비로 보시하길 끝없이 닦았으니
미래세 다 하도록 부처님의 제자일세.
-발심수행장-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정치권 '구애' 불심 몸살

지난 11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한 민주당 김중권 대표의 비서실장 이호웅의원은 총무원장 정대스님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어야 했다. 9일 영천 은해사에서 있었던 '호국안민 기원 및 경북지방경찰청 경승 발대식'에 앞서 정대스님과 민주당 김중권 대표, 이의근 경북도지사 등이 산내 백련암 답소를 나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집권하면 회대의 보복정치가 난무할 것이라고 말했던 정대스님이 최근 김중권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그 발언이 소신이었음을 재확인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힌 것이 화근이었다.

이 비서실장은 "장전형 부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말을 전하며 자기의 생각을 보탰으며, 이로 인해 큰 누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그 자리에서는 이회창 총재의 '이'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로 정대스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

내년 봄의 지방선거, 이어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정치권은 벌써 바삐 움직이고 있다. 요즘 어지간한 불교행사에는 정치인 한두명의 축사 순서가 빠지지 않는다. 일찌감치 공을 들이는 것이다. 정치 행사에 스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낯설지 않다.

정치권 사정에 밝은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내년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주요변수 가운데 하나가 영남권 지역의 민심이며, 영남권 민심의 한 가운데는 불교가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러니 여야의 예비후보들이 불교계에 얼굴을 내민다는 것이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불교 공략도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불교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대스님의 발언 왜곡도 한 예이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권력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책하고 있다. 종교를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의 속셈을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가인은 왕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왕을 가까이 하는 사문은 모든 세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공양받지 못한다."〈정법염처경〉

"스님들이 화를 자초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여당의 한 유력인사가 초청한 만찬장에서 불교계의 중진스님들이 경쟁적으로 아부성 발언을 해 낯이 뜨거웠다"며 "스님들이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성운(취재 1부 차장)

장 군 죽 비

◇조계종 올 10월부터 법계 제도 시행키로. 승가의 위의를 살리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 (2면)

◇한국에서 버림받은 장애아 애덤 킹, 2001프로야구 경기서 시구. 인류의 양심이 한국사회의 후진성에 던진 돌팔매. (8면)

◇옛날 옛적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어떻게 기렸을까?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봉축 행사 변천사를 살핀다. (9면)

◇수원시와 대한주택공사, 청련암 통과 도로 개설 추진. 부처님의 땅까지 우습게 여기는 권위적 행정편의주의에 장군죽비를. (22면)

국립공원 내 사찰 오수처리시설

환경부, 설치비 60% 지원

친환경적 방생문화 캠페인도 전개

환경부가 국립공원내 221개 사찰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의 60%를 국고지원하고, 조계종 등과 함께 친환경적인 방생문화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는 등 사찰환경 개선에 나섰다. (관련 기사 3면)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들은 9일 과천 환경부 회의실에서 '국립공원내 사찰 오수 및 환경친화적 방생문화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국립공원내 건축물 연면적 800㎡ 미만 221개 사찰의 국고(국립공원사업비)지원 비율을 국고 60%, 사찰부담 40%로 결정하고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시설이 미비한 백담사 백양사 내소사 부석사 화엄사 망월사 등 6개 사찰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계획서를 이달말까지 지자체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자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해서는 5월부터 사찰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조사와 국고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종 합동으로 사찰계곡의 오수특성조사를 실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각 기관의 관련자료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그간 환경부는 수질보전국에서 연간 50억원을 확보,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단독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의 교체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소규모 사찰까지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조계종과 환경부는 초파일을 전후해 종단협의회 및 문화관광부의 협조로 방생문화개선 합동캠페인 등을 펼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천진 동자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조계사에서 특도한(?) 동자승들이 연등을 들고 타고난 그대로의 웃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 어린이들에게 부처님 말씀과 같은 세상을 열어주는 일, 어른들의 몫이다. 부처님 오신날은 우리들의 할 일을 다짐하는 날이 아닐까. 사진=고영배 기자

봉축열차 '달린다'

5호선 6월말까지 … 60만명 승차 예상

봉축테마열차 개편식이 9일 지하철 5호선 고덕차량기지에서 열렸다. 개관식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성초 대정사, 천태종 총무부장 춘광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스님과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봉축테마열차는 당초 4량에서 5량으로 늘었으며, 셋째 칸부터 일곱째 칸까지 '소리와 색으로의 공(空)' '나를 찾아서' '현실의 버팀목-불교' '인연 잇기' '연꽃세상'의 주제로 꾸몄다. 열차 외벽은 단청 문양과 만다라 문양으로 장식했다.

개관식에서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은 양산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평화와 평등을 기원하고, 일상에 기듯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축테마열차는 6월 30일까지 82일 동안 평일에는 4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6회 운행한다. 도시철도공사는 60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기사 11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중국 하남성 불교유적 순례 社告 5면

一心佛院
각종 불사/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단, 탱화, 단청, 담집
02-725-2030/725-2040

김태복 장군 구명 나선다

정대 스님, 불교단체 대표자 면담서 강조

군법당 건립 시주금을 뇌물수수로 적용해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태복 장군 사건에 대해 조계종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2일 김태복장군 사건과 관련해 불교단체 대표자들과의 면담에서 "이번 사건이 당연히 좋게 끝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려가 된다"고 전제한 뒤 "합리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 대법원, 국방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또 불교단체 대표자들이 요구한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건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 면담이 성사되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총무원이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번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종교화합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면담에 앞서 불교단체 대표자들은 "군검찰이 상고한 것은 시주금을 뇌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군불자들의 신심 저하를 막고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원만한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김대중 포교사단 부단장,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장, 김규범 대한불교청년회장, 신희권 불교정보센터 대표, 어연승 중앙신도회 조직부장 등 불교단체 대표자 6명이 참석했다. 김두식 기자

"선암사 소송 적극 대응"

조계종 종회 재정분과위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자승)는 12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24차 회의를 열고 부산 선암사 경내지 수용에 대한 긴급 대책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분과위는 전통사찰의 토지가 강제 수용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향후 집행부로 하여금 선암사가 속한 교구본사범어사와 함께 긴밀히 협조해 소송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토지 수용과정과 소송 대응 경과, 재판 결과의 총무원 미보고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 보고토록 했다. 또 사실상 주지 공석 상태를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선암사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저지 방안을 문서로 보고하고,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총무원과 범어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성운 기자

지역불교 문화기행

남도 천년고찰의 봄내음

4월: 송광사 선암사 흥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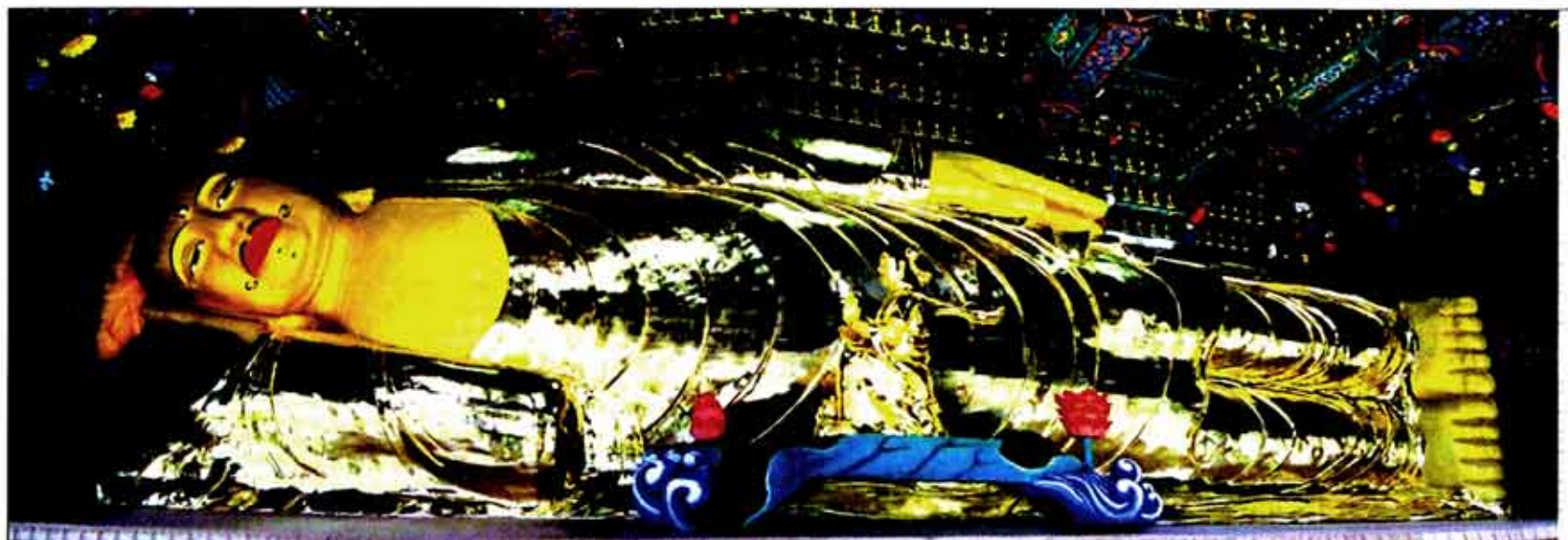
◇선암사 매화.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가 된 조계산의 송광사와 선암사는 연분홍매화, 목련, 개나리 등 봄꽃들로 꽃대궐을 이루고 있습니다. 4월에는 봄꽃내음이 물씬 풍기는 남도의 천년고찰을 찾아갑니다.

승보종찰 송광사에서는 면면히 내려온 16조사 스님들의 기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경내 입구 왼편에 자리잡고 있는 성보박물관에서는 목조삼존불감(국보 제42호)과 고려 고종때서(국보 제43호) 등 진귀한 국보급 문화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도선국사가 중창한 역사깊은 대가람 선암사에서는 반원형의 무지개 다리 승선교(보물 400호)밑으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을 바라보며 온갖 번뇌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 개관한 성보박물관 역시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벚나무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흥국사를 참배합니다.

◇출발: 4월 21일(토) 밤10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5만5천원(조식 · 중식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8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주)한화여행



일시 : 2001년 4월 22일 (음. 3월 29일 오후 1시)

장소 : 경남 사천시 백천동 112번지 와룡산 백천사
- 1부 봉불식 대법회 법요식
- 2부 연예인 공연
(출연 탤런트 이상벽, 주현미, 김영임, 진원주, 이두진)

❖ 증 명 법 사 : 총무원 원장 정대 큰스님
증 명 법 사 : 불국사 주지 성타 큰스님
회 주 : 석굴암 주지 종상 큰스님
약천사 회주 : 혜인 큰스님
❖ 문의전화 : 0551834-4010, 835-9443, 833-0162
❖ 백천사 오시는 길





사 설

'1사찰 1홈페이지' 기대

현대는 정보화의 시대요, 그 중심에 인터넷이 놓여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일이다. 당연히 인터넷을 통한 포교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어 가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포교는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조계종 교구본사 스님들이 '인터넷 불교모임'을 만들고, 1사찰 1홈페이지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는 소식은 인터넷 포교에 한발 뒤늦어 있는 불교계로 보아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대불교가 '인터넷 불교모임'의 이러한 취지에 적극 지원을 결정하고 홈페이지 자동생성기를 제공하며, 후속적인 여러 지원을 약속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손쉽게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고 매우 저렴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운동이 구호만이 아닌 현실성을 지니게 하는 힘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전국 사찰의 홈페이지가 각각 그 고유한 내용을 갖추게 된다면, 미래 세대들이 기존의 불교에 지니고 있던 거리감을 극복하고 쉽게 불교를 접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사찰이 지닌 고유한 문화적 요소들을 알림으로써 전통문화, 불교문화의 계승과 전파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미래 불교에 밝은 전망을 던지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스님들이 현대적 정보 매체를 통한 포교의 중요성에 더더욱 눈을 뜨고 적극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아직까지 많은 스님들이 현대적 방식의 포교에 대해 어둡거나, 일종의 저항감마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루 빨리 이러한 요소들을 털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오늘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빠르게 변하며, 한꺼번에 대량의 고통을 생산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구시대적인 포교를 고집하는 것은 불교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찰 홈페이지 갖기 운동이 확산되어 불교계에 커다란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진정 인드라망이라 할 수 있는 커다란 그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원력으로, 한때의 바람이 아닌 지속적인 확산을 이룩하는 큰 운동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보수는 완벽하게

본말을 뒤집으면 언제나 재앙이 온다. 너무 거창한 말부터 해서 비약일지 모르지만 명심해야 하는 말이다. 한때는, 문화재를 보수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부터 앞세웠다. 본말이 전도된 보수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보 15호인 봉정사 극락전의 건물 일부가 금이 가고 침하 현상이 계속되면서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다. 어떻게 보수를 했기에 붕괴의 위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싶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 목조 건물인 봉정사 극락전의 보수 역사를 보면, 1363년 고려 공민왕 때 1차 보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1625년 조선조 인조 때 두 차례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최근에는 1972년 전면해체 보수공사를 한 이래 지금에 이른 것이다. 1, 2차 보수공사를 했던 기간에 비하면 30년도 못되는 기간이다. 무엇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다.

본래의 모습대로 보수하지 않았던 것이 붕괴위험을 초래한 가장 중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래 건물에서는 한 겹이던 처마를 한 겹 더 얹어 보수를 함으로써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이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왜 원형을 무시하고 편법을 쓰면서 보수 아닌 보수를 할까, 그런 의문이 집요하게 든다. 몰라서 그렇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일이고, 자문을 받아서 했다면 자문하는 전문가들이 더욱 신중한 연구로 원형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본말을 뒤집으면 재앙이 온다는 말로 원형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뜻은 보수공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거나 전문가의 충고를 무시하거나 대충대충 공사로 얼버무리려는 속성을 고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여러 사찰의 문화재에 대한 보수, 복원이 예정돼 있다. 지금 우리들이 명심하고 실행해야 할 일은 서두르지 말고 촘촘히 연구하고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공사를 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원형을 훼손하는 문화재의 보수는 문화재의 파괴나 다름없다.

승가고시 · 법계 10월 시행

조계종 승가교육위 발족…진흥위원장 법장 스님 선출

올해 10월부터 승가 재교육 및 법계제도가 시행된다. 승가 교육제도의 시행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승가상 구현을 위해 그에 따른 교육 내용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로 받아들여진다.

올해 10월 3급 승가고시 및 4급 중덕법계 품수뿐 아니라 1 · 2급 승가고시를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실시 방안을 마련할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법장)가 12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12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승가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의 발족은 △일반 승려에 대한 교육 체계 개선 및 수립 △법계 시행을 통한 승가 위계 확립 △전법 인력 양성을 통한 포교 역량 제고 △체계적 교육을 통한 교역직 종무원 양성을 위한 승가고시 및 법계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관련기사 3면)

진흥위는 또 재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산하에 △제도 개선 분과 △종법개정분과 △사업 심의 분과 △교수 분과를 두고, 종단 교육 사업의 목표 수립 및 교육 주체 역량 형성, 제도 및 법령 제정, 교육 시행의 검토 및 방안 수립 등 재교육 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진흥위는 올해 사업으로 포교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특강, 3급승가고시 시행 방안 공청회, 재교육 승가고시 법계 시행 관련 종법개정, 95년 출가자 교육, 전문 특수 재교육 개선 안 확정 등의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軍내 민간성직자 양성화

국방부 관리규정 추진

군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그동안 일선 부대의 필요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활동해 온 민간인 성직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군종실은 군 부대수에 비해 군종장교 수가 부족해 원활한 종교활동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민간성직자 관리규정(안)'을 만들어 각 종교계에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도 관리 규정의 일부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국방부 군종실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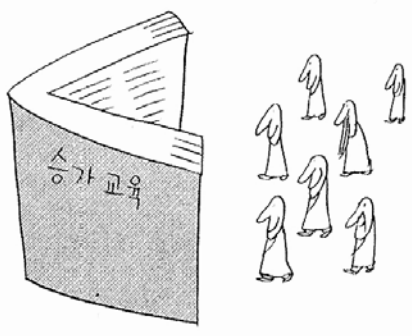
군법사의 수가 기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계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 규정이 시행되면 포교사단 군포교팀, 군불교진흥회, 군불교어머니회 등 군포교 단체 회원들의 군내 출입문제가 해결되고, 군법사가 없는 법당의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해 국방부 군종실이 활동실태파악에 나선 결과 민간인 성직자는 현재 개신교 473명, 천주교 13명, 불교 79명 등 개신교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 규정안에 종교형평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현대만평

박 구 원



열린 마음으로…

통도사 종회의원 태봉스님



조계종 15교구 본사 통도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태봉스님이 당선됐다.

태봉스님은 60년 월하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72년 통도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했다. 창녕포교당 주지, 총무원 규정부 조사과장, 통도사 교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98년부터 경상남도 학생기숙사 관장을 맡고 있다.

정성운기자

포교사단 '황금어장' 결실

출범후 불자장병 5~10배 늘어

포교사단이 출범후 1년 동안 주력 포교 대상으로 삼아 전개해 온 군포교활동이 법당별로 5~10배에 이르는 포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금촌 호국 백일사의 경우 당초 40여명의 장병들이 자체적으로 법회를 운영해 오다 지난해부터 군포교팀이 법당을 관리하면서 6개월만에 300여명의 장병들이 법회에 나오는 등 포교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이 11일 밝힌 포교사 군부대 포교활동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5개 군포교팀이 56개 군 법당에서 6,000여명의 불자장병들에게 불심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년 간 150명의 군포교 담당 포교사들이 분담한 군 포교 비만도 1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장병 1인당 24,200의 경비가 소요된 것이다.

특히 포교사들이 활동 중인 이들 법당들은 모두 군법사가 배치되지 않는 곳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포교사단 군포교팀이 군 불교 활성화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포교 활동과 팀별로 조직과 팀웍 그리고 소요 경비와 역할의 분담을 통해 매주 정기법회 개최, 장병 신행지도, 찬불가 및 수행 지도, 레크리에이션 실시, 간식 지원, 수계법회 개최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 등이 꼽혔다.

포교사들이 포교하는데 가장 큰 애로점은 법당운영 및 포교비 부족. 법당에 나오는 장병들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포교비를 전액 스스로 부담하는 포교사들은 경비조달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교사단 하영태국장은 "군법당의 수가 급격히 늘면서 군법사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빈 법당이 많다"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포교사들이 더욱 활발한 군 포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적이고 실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외국인안내 담당 7개사찰 첫 회의

조계종 포교원(원장대행 상운)은 18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조계사 봉은사 불국사 통도사 송광사 동화사 한마음선원 등 7개 사찰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1차 외국인 안내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

포교원은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전국외국인사찰안내 자원봉사자연합회를 결성한 뒤 광역시도 단위별 1개 사찰에 외국인 안내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기자

"정대스님 소신발언 와전"

민주당 조계종에 사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이총재 집권 땐 보복정치 발언은 소신"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과 관련, 민주당 이호웅 대표비서실장은 11일 총무원을 방문해 "부대변인(장전형)이 기자들에게 말을 전하며 자기 생각을 가미해 큰 누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정대스님은 이날 "성직자는 '눈치보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소신 발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회창 총재 관련 발언은 소신'으로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관련기사 1면) 정성운기자

日刊 인터넷 불교신문
Buddhanews.com

'단일계단 20년사' 나와

조계종 계단위원회(위원장 보성, 송광사 방장)는 1일 1981년부터 2000년까지 단일계단 수계산림 20년 역사를 집대성한 〈단일계단 20년사〉를 편찬했다.

〈단일계단 20년사〉에는 역대 전계화상, 2사7증, 비구계, 특별구족계, 사미계, 비구니화상, 비구니 2사7증, 비구니계, 특별비구니계, 식차마나니계, 사미니계 수계식 사진과 20년 약사, 수계산림 임원 명단과 장소 일시 등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김원우기자

불기2545년 부처님 오신날

봉 축

대한불교사회복지 연구원 개원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에서는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확립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을 개원하오니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원일자 :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4월 20일(금) 오후 2시
■개원장소 :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8층 대법당
■문 의 처 : 사무국 ☎(051)868-0951

고 문 지관스님(전 동국대학교총장, 가산문화원 이사장)
보성스님(송광사 조계총림방장)
정관스님(전 범어사주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이사장)
벽파스님(전 범어사주지,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이사장)
정련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사회복지법인 내원 이사장)

자문위원 김용택교수(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류기형교수(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혜도스님(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혜숙소장(종교사회복지연구소)
이은희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원 장 혜총스님(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장)
부 원 장 박경일교수(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운영위원 범산스님(양정청소년수련관장), 정여스님(개금사회복지관장)
지현스님(두송종합사회복지관장), 지일스님(함지골청소년수련원장)
명현스님(공창종합사회복지관장), 임광수(낙동종합사회복지관장)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회 장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 원 장 혜 총 스님

■후 원 : 부산불교연합회,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사회복지법인 내원,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청소년법인 내원청소년단, 청소년법인 불국토청소년도량

목어

왜 '이 멋진 세상'을…



살아있는 물고기를 수출할 때 같은 물탱크 안에 그 물고기의 천적 한 마리를 집어넣기도 한다. 천적의 도전을 받음으로써 물고기들은 필사적이 되어 쉽게 기진하지 않고 생명을 보다 연장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자살 동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런 도전에 주목한다. 전쟁이나 전염병, 경제위기의 시대를 삶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 이럴 때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살아 남으려 애쓰지 죽으려 하지 않는다. 조사 결과로도 이 같은 고난의 시기에 자살율은 줄어들고 우울증 등 정신병 환자도 예상 밖의 감소율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극복되고 나면 자살율이나 정신질환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평화롭고 살기 좋은 시대를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것인가. 통계적으로도 후진국에 비해 선진국의 자살율이 한결 높다. 그뿐 아니라 계절적으로도 가을이나 암울한 겨울에 비해 생명이 약동하는 봄철에 자살율이 높다 한다. 학자들의 이 같은 분석은 평소 우리들의 상식을 깬다.

7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한국의 자살율이 이제 OECD국가 가운데 5위라 한다. IMF 이후의 생활고 자살 외에도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중심으로 별의별 이유의 자살이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살율 증가로 한국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 할 것인지. 인터넷에서 자살 이야기를 나누다 처음 만난 젊은 남녀가 함께 극약을 나누어 먹고 나란히 누워 저승길로 떠났다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소식도 전한다.

자유로운 인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지혜는 생명에 관한 명상에서 나오는 것이라던가. 불교는 지혜와 자유와 깨침의 종교다. 루이 암스트롱이 들려주는 '이 멋진 세상(What a wonderful world)'이라도 한번 들어 보라. 거기 깨침의 세계 하나가 열려있다. 이 좋은 봄날.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산사 오염주범 '억울'

사찰 오수처리시설 현황과 과제

주말 계곡수 오염수치 평일 3배
사찰 - 정부 - 지자체 '공동의 숙제'

지난해 말 조계종 총무원은 〈사찰 오수처리시설 현장조사 보고서〉를 통해 "사찰 오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오수처리 현황은 사실상 총체적 부실의 상황"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오수특성 조사 및 부하에 대한 정확한 검토없이 일률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계하는 경향과 함께, 부실한 시공 및 관리가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공원내 사찰 33곳에 대한 오수처리 실태조사 결과, 일부 사찰의 오수 시설로 유입되는 물 오염도가 공장 폐수 배출 허용 기준치(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80~100mg/L)와 맞먹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계곡 수질오염은 국립공원 공중화장실(전체 451개중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143개)과 사찰화장실(303개중 239개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숙박 및 음식점 화장실(2056개중 1186개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가운데 상당수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흘려보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질오염 방치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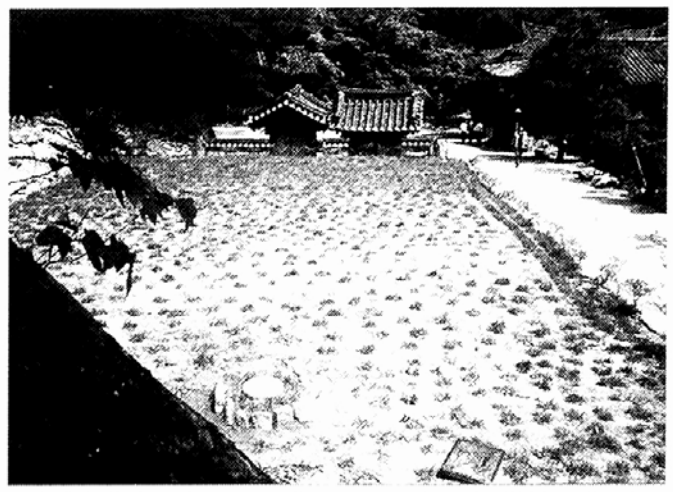
환경부가 이번에 사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그지원과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도 계곡수의 수질오염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조계종의 분석 자료에는 사찰이 국립공원 수계의 주요 오염원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조사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사 대상 사찰 평균 관람객 수가 4800여 명에 달하는 평일의 경우 BOD가 27.01mg/L에 불과했으나, 1만9700여 명으로 집계된 주말의 BOD는 평일의 두 배에 달하는 47.98mg/L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적처럼 국립공원이나 심산유곡의 오염원이 사찰이라는 것은 사실과 상당부분 다르다는 분석결과다. 사찰이 국립공원 오염의 주범이라면서 내놓은 공공기관의 자료는 산사 주변을 정확히 실측하지 않고 인근 지역의 자료를 토대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 동안 정확한 조사 자료가 없어 '산사의 대부분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심산유곡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환경부의 보고가 국정감사의 도마위에까지 오를 정도였지만, 조계종은 국립공원내 주요 사찰의 50% 가량이 정상적으로 오수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이번에 정부 국고지원을 이끌어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인 이병인 밀양대 교수(환경공학)는 "사찰로 유입되는 지표수의 상태는 평일보다는 관광객이 많은 주말에 오염 수치가 2~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사찰의 오수처리가 사찰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을 일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토우건설이 시공한 송광사의 오수처리시설. 지하에 매설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뤘다.

자연친화적 시설 도입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사찰 오수처리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계기로 △종단차원 지침마련 △사찰오수 특성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및 협조 △사찰특성에 맞는 시설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사찰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설정 △전통 해우소 등 자연친화적 시설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별 사찰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책임있는 관리, 지자체와의 협력 및 지원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찰오수 문제의 해결은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와 예산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미만의 소규모 사찰에 대해서는 처리시설 설치명령 등의 법적 조치가 곤란하고, 예산지원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국고지원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사찰측에만 수질오염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위계 확립 · 자질향상 '기대'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 발족의미

승랍 10년이하 교육의무화
15안거 성만해야 대덕법계

12일 발족한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통합종단 출범 이후 40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일반 스님들에 대한 교육 체계와 그에 따른 승려 자질 향상, 승려 위계의 확립 방안을 마련해 승단질서의 새로운 장을 열 논의 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승가 교육제도가 구체화되면 전문 · 특수 · 일반 교육 관련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고, 승려 현황 파악 및 그에 따른 체계적인 인적 관리도 가능해지는 기대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매년 4급승가고시를 거쳐 300여명의 스님이 구족계를 수지하고 있지만 조계종단의 9개 전문 특수 재교육 기관 재학 승은 50명에 불과하며, 승랍 10년 이하의 스님 중 내전(안거포함)과 외전 등의 수행 및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30%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교육원 조사 결과 밝혀져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 기존 스님들의 경우도 95년부터 매년 1년 개최되는 본 · 말사 주지연수가 전부인 상황이어서 승려 재교육 부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교계 안팎에서 지적되어 왔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승가 교육제도의 시행은 전문 영역별 교육과 수행력을 갖춘 도제를 양성하는 효과가 크다.

승가 교육제도가 시행되면 구족계를 수지한 승랍 10년 이하의 스님들은 개인 특성에 따라 전문 특수 일반 교육기관 등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선방의 경우 10안거를 성만해야 말사 주지와 교역직 종무원 소임을 볼 수 있는 3급 승가고시 응시 및 4급 중덕법계 품수 자격이 부여된다.

2급의 경우도 3급고시에 합격한 스님 중 승랍 15년 이상으로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선원에서 15안거를 성만할 경우 2급승가고시 응시와 대덕 법계 품수 자격이 주어진다. 대덕 법계를 품수 해야만 중앙종무기관 부장, 본사 주지, 종회의원, 각위원회 위원, 강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중앙종무기관 원장 급인 1급 종사 이상부터는 고시절차 없이 고시위원회의 제청과 종회의 결의에 의해 종정의 재가로 법계를 품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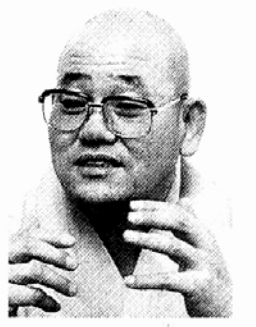
승가고시와 법계제도 시행의 골자는 일정 정도의 교육과 수행을 동반해야만 그에 맞는 법계가 품수되고, 종단 소임이나 교구 본사 등 주요 사찰 소임을 맡게 될 때 일정 자격을 갖춘 스님이 등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승가고시 응시자격안 마련 및 법계제도의 시행이 승가의 계급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과 교육, 덕행, 법랍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내부 화합과 법계에 따른 스님의 대외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원이 원장 공석의 상태에서도 승가교육진흥위 발족을 강행한 것은 도제 양성의 한 획을 그었던 행자교육원이 공식적으로 개원돼 제 1기가 배출된 지 올해로 만 10년을 경과하고 있고, 95년 예비승 제도 시행 후 그 첫 출가자들이 99년부터 구족계를 수지하고 있는 등 기본교육제계가 완결된 만큼 종단 차원의 승려 일반에 대한 전문 · 특수 · 재교육을 실시할 시점에 와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원우 기자

인터뷰 승가교육진흥위원장 법장 스님

"승가 재교육 미래불사"



"승가 재교육의 틀을 만드는 일은 종단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원로스님들과 종도들의 뜻을 모아 승가교육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2일 출범한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진흥위원장으로 선출된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승가가 미래사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승가상 확립을 목표로 재교육의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통합종단이 출범한 지 40년차를 경과하는 시점에서 승가교육위가 출범한 것은 종단사적이나 승가 교육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스님들의 자질 향상과 승가 위계를 바로잡기 위한 승가고시및 법계제도 시행, 주제별 연수 등 재교육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여 단계적인 시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승가 교육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 종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탄 없는 의견제시와 공감대 형성에 아낌없는 참여 바란다"고 종도들에게 당부했다.

법장스님은 현재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 회장,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기 2545(2001)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안내

■주요행사일정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비고
봉축 법요식	5월1일(화) 오전 10시	조계사 / 전국사암	조계사 / 봉축위원회	725-6641
연등축제	4월29일(일) 12시~오후 10시		봉축위원회	725-6641
	불교문화마당 낮 12시부터	우정국로		
	어울림마당 낮 4시~6시 30분	동대문운동장		
	제등행진 밤 7시~9시	종로		
	대동한마당 밤 9시~10시	우정국로		
연등놀이	4월28일(토) 밤 7시	우정국로		
등전시회	4월27일-5월 3일 개막 27일 낮 2시	봉은사	봉은사, 전통등연구회	723-0306
시청앞 점등식	4월 17일(화) 밤 7시	시청앞 광장	봉축위원회	725-6641
애기봉 점등식	4월 13일(화) 오후 6시	김포 애기봉	해병청룡사	031-988-4936

■경축 기념 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비고
니르바나실내악단 제3회 정기연주회 및 지방순회연주	4. 1 7시 대전 대덕과학문화회관 4. 8 7시 대구 앞산 대덕문화전당 4.15 7시 서울 예술의전당코서트홀 4.23 7시30분 서울문화교육회관		니르바나 실내악단 02-415-1599	017-265-4665
연꽃노래잔치	예선 4.8 1시 본선 4. 22 1시	동국대중강당	서울불교청년회/좋은벗 풍경소리	02-730-9108
천진동자 캐릭터 100선전	4.10~16	웅전갤러리	봉축위원회/단이슬 기획	02-2267-8101
봉축열차	4. 10~6. 30	지하철 5호선	도시철도공사/종단협의회	02-736-5583
봉축 시낭송회	4. 14 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현대불교 문인협회	019-550-7239
봉축기념 사진전	4. 23~5. 1	조계사 경내	대한민국 불교사진연합회	011-477-0498
노숙자 자활기 금마련 범주스님 선서화 전시회	4.25~5. 1	공평아트센타	달마선묵화연구회	011-459-7068

■경축 기념 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비고
산수와 가람의진경	4. 25~5. 15	학고재 화랑, 아트스페이스서울	이호신 화백	02-356-3160 011-295-3160
불교음악 학술강연회	4. 26 오후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조계사	019-270-4933
민족화해협력과 조국통일 기원 대법회	4. 26 5시	롯데호텔	종단협의회	732-4885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	4. 28~5. 12	조계사	파라미타	011-9887-7987
부처님오신날 기념웅변대회	4. 29 '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대한불교웅변인협회	
안숙선판소리 "불타전"	5. 1 10시	도피안사	도피안사	031-676-8700
봉축 불교음악제	5. 1 오후6시	조계사 대웅전앞	조계사	019-270-4933
제7회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리기 대회	5. 5 10시	법주사	월간 불광	02-420-3300
청소년백일장 사생대회	5. 6 오후1시	목동청소년수련관	목동청소년수련관	02-2646-6815
제14회 청소년 전통예술경연대회	5. 13 오후2시	동국대 중강당	청소년교화연합회	02-735-8165

■자비의 손길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비고
군장병불자 위문품보내기	4. 초 ~ 5. 1	육해공군 법당	군불교진흥회	011-315-8762
부처님오신날에 이웃에게 자비를 (전국민 1인1장기 기증운동)	4. 7 ~ 30 매주 토요일 1시~6시	인사동 입구	생명나눔실천회	02-734-8050
제21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4. 15	서울랜드	조계사 원심회	02-720-4528
장애인세상나들이	4. 18	봉선사	조계종복지재단, 장애인시설	723-5101
자비의 한물결운동	4. 22~29	전국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조계종복지재단	723-5101
결연후원사업				
복지기금모금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4. 22	석촌초등학교	광림사연화복지원	02-2202-5831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02)725-6641

일주문



신장병 여학생에 千만원

성오 범어사 주지는 최근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심보정(18 · 밀양여고 2년)양에게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동방불교대학 부학장

자월 스님은 6일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부학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태고종 사회부장,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북한산 나무심기 행사

송암 동국대 불교대학원 1기 동문회장은 5일 동문 20여명과 함께 북한산 일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회엄동산에 5백만원 후원

원택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은 12일 여성노숙자 시설인 화엄동산을 방문해 5백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동계오륜 유치발원 산신제

원행 원주 구룡사 주지는 8일, 2010년 강원도 동계올림픽 유치 및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산신제를 봉행했다.



여여선원 개원 7주년 법회

정여 범어사 부산포교원 여여선원장은 11일 여여선원 큰법당에서 개원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대길상도 작품전 개최

지형 소림정사 주지는 11~15일 제6회 대길상도 작품전을 잠실 호텔 롯데월드전시관에서 개최했다.



부산불교방송 진행 맡아

금종 해광사 주지는 4월 14일부터 부산불교방송 '금종스님의 참나를 찾아서'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법문한다.



법장사 인터넷 법당 개원

법장 서울 법장사 주지는 15일 창립 10주년 기념 큰스님 초청법회 및 인터넷 법당 개원식을 가졌다.



지역 노인 40명 경로잔치

성법 불교여성회장은 11일 안국동 길상사에서 가회동 및 북촌 경로당 어르신 40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열린 종단 가꾼 일 보람"

내달 초 퇴임 진각종 통리원장 성초 대정사



"4년동안 대과없이 소임을 잘 마친데 대해 종단의 스승님들과 잘 보필해준 부 · 국장들, 그리고 신뢰를 보내주신 모든 종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7년 5월 진각종 통리원장에 취임, 4년동안 종단행정업무를 총괄해 왔던 성초 대정사(61)가 5월초 퇴임, 일선포교 현장으로 돌아간다.

9일 퇴임기자회견을 가진 성초 통리원장은 임기중 가장 인상깊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98년 10월에 개최한 국난극복참회대법회"라고 답했다. "그날 참회대법회와 함께 국난극복과 통일을 염원하는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비를

국난극복 법회 인상적

대북교류 · 교육 · 복지 업적

세워 전 종도가 간절하게 민족화합과 통일을 서원했습니다. IMF 경제난을 당해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던 때에 '국난극복과 민족화합'이라는 간절한 서원을 담았기에 지난해 남북정상의 '6 · 15 선언'이 나왔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취임한 97년이 마침 창종 51주년이 되는 만큼 임기초부터 제 2 창종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왔다는 성초 통리원장은 온화한 성품 및 불퇴전의 신념과 추진력으로 그동안 기념비적인 많은 업적을 이뤄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폐쇄적 이미지가 강했던 진각종을 문화 복지 교육 포교 등을 통해 '열린 종단', '대중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가는 종단'으로 자리매김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 97년 복지재단을 설립해 현재 16개의 복지시설을 수탁받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고, 99년에는 스리랑카와 네팔지부를 설립하는 등 국제구호 · 봉사 활동을 펼쳐 부처님 자비행을 해외로까지 확장시켰다. 또 99년과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종단 수뇌부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 남북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활동으로 민간 남북교류의 시금석을 이루어 주목을 받았다. 종립 위덕대는 종단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신규대로서는 드물게 최근 대학종합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평가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성초 원장이 역점을 둔 분야가 '문화'로, 문화관광부 지정 2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혜초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기리는 창작국악교성곡 '혜초', 종조 회당대종사의 생애를 그린 '회당'의 공연과 합창제 등을 개최해 불교문화 진흥에도 적극 앞장섰다.

"차기 집행부가 내적 역량을 더욱 축적해 시대변화에 따른 종단의 개혁작업에 꾸준히 임하고 진각종이 보다 대중과 친숙한 종단으로 더욱 발전해 가기를 희망한다"는 성초 통리원장은 퇴임후에는 심인당으로 돌아가 불교포교에 매진하겠다고 말한다. 이경숙 기자

"불교로 한 · 일 갈등 해소"

동국대 석좌교수 **다무라 엔죠**



"불교라는 공통 분모를 잘 활용한다면 지금의 한일 양국의 갈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12일 동국대 석좌교수로 임명된 다무라 엔죠(83 · 일본 규슈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 파문을 의식한 듯, 양국의 불협화음을 없애는 방법으로 불교문화와 학술 교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무라 석좌교수는 '교과서 왜곡'이라는 문제의 원인으로 886년부터 1868년까지 양국의 교류가 단절됐고 '천황제'와 같은 일본인 특유의 우월주의가 더해지면서 양국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단 교과서 왜곡뿐만 아니라 양국의 미묘한 반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계기를 찾아야 하는 데 그 실마리가 바로 불교에 있으니 한일 양국의 불교학계 스스로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사명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무라 교수는 "고대 양국의 관계는 '문화를 전해주고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관계였기에 양국이 지리 역사 문화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나라인지를 고증하는 특별강좌 '한일불교문화교류사'를 동국대에서 맡아볼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보살같은 공직자 되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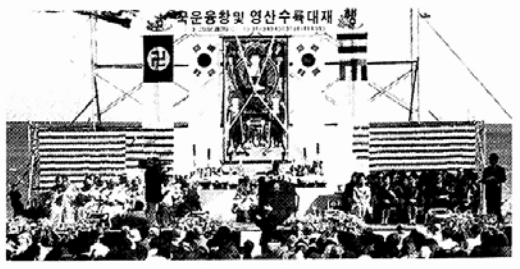
성북구청 법륜회 **이호식** 신임회장



10일 서울 청룡암에서 열린 성북구청 법륜회 임시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이호식(52 · 주택과장)씨는 "불교적 삶을 생활화하고 신행활동을 통해 불교뿐만 아니라 구정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불자회를 만들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매월 마지막 화요일 정기법회, 분기별 사찰순례, 회보 발간, 인근 사암연합회 및 타 불자회와의 교류 활성화 등으로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불자회 내실을 다질 예정. 또한 교계 비인가 시설 위문, 불우이웃돕기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바른 구정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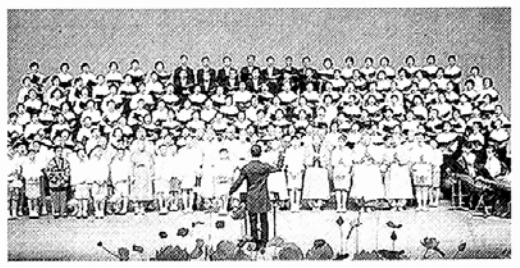
총화종 국운융창기원 수륙대재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3월 29일 감포 문무왕 수중릉 해변에서 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운융창기원 영산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수륙대재는 종정 동광 스님의 법어,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스님, 하순봉 · 김태호 의원, 함종한 한나라당직원불자회장 등의 축사, 이원식 경주시장의 환영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군불교총신도회 창립 1주년 법회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이종옥)는 6일 창립 1주년을 맞아 용산 국방회관에서 국군장병 무운장구 및 국운융창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 상운 포교원장직무대행과 이종옥, 이현우, 원재원 장군, 김말환, 이회용 법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사암련 불교 합창예술제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호)는 광주 · 전남 불교합창예술제 '붓다'를 12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예술제는 한마음선원어린이합창단의 '정신발전의 길' 합창과 백양사 향림사 · 증심사 · 한마음선원 등 지역 5개 사찰합창단으로 구성된 광주전남 보리살타 합창단의 '붓다'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은해사 훈할머니 49재 추모법회

일제치하 종군위안부로 강제 징용됐다가 98년 숨진 훈 할머니의 49재추모천도법회가 4일 영천 은해사에서 열렸다. 법회에는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박헌기 국회의원, 이의근 경북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타 스님은 "역사를 왜곡하는등 일본이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정토사 무량수전 낙성법회

담양 정토사(주지 명성)는 무량수전 낙성기념 및 문사수대법회를 8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석주 철보사 조실, 벽암 신원사 조실, 한탑 정토사 회주, 김두원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100평 규모의 정토사 무량수전은 지난 2월 한국건축가협회로부터 '올해의 건축'으로 선정된 바 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육군훈련소 입소대대 금강법당 개원

육군훈련소 입소대대는 10일 금강법당 개원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운 광주 향림사 조실스님,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상운 조계종 포교원장직무대행과 판관생 훈련소장 및 고현등, 최재필, 강창모 법사와 군장병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원한 금강법당은 진각종의 후원으로 지어졌다.

여래종 본산 약사사 창건주 숙현당 윤봉순 묘음 대보살

열반 49재 및 사리탑 재막식 법회

(황금 백호사리 1과 오색사리 1000여과 공개)

초 대 합 니 다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약사사 창건주이신 숙현당 윤봉순(묘음) 대보살님의 열반 49재를 맞이하여 대보살님께서 기도 성취의 황금백호사리 1과와 1000여과의 오색사리를 공개하고 보살님의 사리탑 재막 법회를 봉행하고져 하오니 불자님께서 도암하시어 자리를 빛내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석인왕

총무원장 명안 / 호법원장 법우 / 포교원장 법룡
약사사 주지 혜안 합장 / 안양 약사사 주지 연화 / 용인 성불사 주지 장일봉
인왕전교사회장 장세영 / 자문회장 유희정 / 지장회장 안순옥 / 합창단장 문난순

일 정

일시 : 2001년 양 4월 26일
(음 4월 3일) 목요일

1부 : 법화경 49재 법회 오전 10시
2부 : 사리참배 및 사리함 재막식 11시
3부 : 충효 이웃 자비실천 경로잔치 낮 12시
- (경로잔치 약사사 입구 무료급식소)

한국불교 여래종 본산
기도성취 영험도량

남한산성 약사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 2동 산7
☎ 031) 734-3205 fax 031) 735-3374

운불련 자비법륜 굴린다

포교의 전령, 한국불교의 대들보, 달리는 법당의 대법주를 표방하는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가 조직을 정비하고 부처님의 동체대비를 실천하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이하 운불련)는 전국 20개 지회 임원 107명이 참석한 가운데 8~9일 수덕사 황하루에서 정기총회 및 임원수련회를 가졌다. 총회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발우공양, 지역회 활성화 사례발표, 참선실습 및 1080배 정진, 조석 예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생명나눔 적극참여
이웃돕기 · 봉사강화

8~9일 수덕사 정총
김주본 새회장 선출

참석자들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대구지역회 김주본 회장을 신임 회장에, 대전지역회 강기근 회장을 수석부회장에, 각 지역회 회장을 부회장으로 각각 선임하고 조직정비를 완료했다.

또 지역회 배가와 교류 활성화, 사회봉사 활동 강화, 6월 10일 전국체육대회 개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올 한해 사업계획도 확정지었다.

이와함께 교리공부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기 위해 이날 자체 제작한 문고판 〈불교상식〉 2천 권을 각 지역회에 배포했다.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일반인들과 접촉이 많고 직장 자체가 바로 신행현장이라는 점에서 운불련의 이같은 행보는 회원들에게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운불련은 생명나눔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생명나눔실천회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업무 협약식에서 운불련은 이날 행사 참석자들이 신청한 사후각막기증 49건, 뇌사시 장기기증 87건, 사후 시신기증 17건, 신장기증 1건의 장기기증서와 91명이 서약한 사후 화장 유언서를 생명나눔실천회에 전달했다. 생명나눔 홍보판 2천 개를 기증 받은 운불련은 앞으로 회원들의 택시 뒷좌석에 홍보판을 설치해 팜플렛을 비치하는 등 생명나눔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국운불련은 지난 8~9일 수덕사 황하루에서 생명나눔실천회와 업무 협약식을 갖고 생명나눔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신임 김주본 회장은 "조직 강화를 위해 지역회 배가운동을 적극 펼치는 한편, 지역회 단위로 운영중인 호출택시 활성화에도 매진하겠다"며 "앞으로 머릿속으로 불교를 아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4년 대구, 광주, 청주, 대전 등 9개 지회의 발기로 창립한 운불련은 현재 22개 지역회 1500여명의 회원들이 각 지회를 중심으로 회보발간, 불우이웃돕기 등을 펼치며 활발한 신행활동을 하고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중국 하남성 불교유적 순례
선불교의 본산을 찾아서

현대불교는 중국 선불교의 맥을 직접 느끼게 하고자 '중국 불교문화 기행'을 기획하여 삼국지의 무대이기도 한 하남성 지방의 유구한 역사도시 낙양, 정주, 개봉 등에 산재해 있는 불교유적을 찾아갑니다.

영화 '소림사'의 무대로 더욱 잘 알려진 소림사(少林寺)에서는 인도의 고승 보리달마가 9년간 면벽좌선을 통해 중국 선불교를 진작시켰던 역사의 흔적과 무술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만나는 10만 개의 불상을 보시면 엄청난 규모에 저절로 탄성이 쏟아질 것입니다. 중국 최초(68년)의 사찰인 백마사(白馬寺)에서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나한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청빈한 관리로 중국에서도 추앙받고 있는 포청천의 고향인 개봉(開封)에서는 '천수천안관음보살상'으로 유명한 대상국사(大相國寺)도 참배합니다.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

소림사 · 용문석굴 · 백마사 · 대상국사

◇일정: 5월2일(수)~5월6일(일) (4박5일)
◇참가비: 73만원(공항세 비자비 등 포함, 단 여권수속비는 별도)
◇접수및문의: (02)737-7055(담당: 이소희)
◇접수기간: 4월17일(화)까지(단, 여권소지자에 한함)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출발시간과 집합 장소는 추후 공고합니다.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아주세계여행사
◉후 원 : 중국하남여유집단유한공사



◇JTS는 11일 인천항에서 북한 창매협동농장에 보낼 비료 · 비닐 등 농업용자재 선적식을 가졌다.

북한에 첨단 영농장비 보낸다

우리민족돕기 · JTS, 이앙기 · 육묘상자 전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한국JTS가 나란히 북한 농업지원에 나섰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월주스님)은 지난 5일 인천항을 통해 이앙기 50대, 부품 100세트 및 육묘상자 18만75개(총 3억원 상당)를 북한에 보냈다.

이번에 지원된 이앙기 등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북한의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시작한 대북 농업기술 협력사업의 첫 성과로, 평양에 소재한 농업과학원 본원 및 분원 협동농장 5곳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올해안에 총 20억원 규모의 대북 농업 기술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경운기, 콤바인 등 기계화 영농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JTS(이사장 법륜스님)도 11일 인천항에서 북한의 황해북도 창매협동조합에 보낼 5천여만원 상당의 농업자재 및 비료 · 옥수수 종자 등 농업지원분을 선적했다. 김재경 기자

새만금 갯벌 보전 '기도'

부안에 기도의 집 개원
불교 · 원불교 · 천주교 제휴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원불교천지보은회 등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에 소속된 종교단체 회원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 300여명은 8일 전북 부안군 하서면 해창갯벌에서 '기도의 집'(해창사)을 개원하고 새만금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도에 들어갔다.



◇8일 해창갯벌에서 열린 '기도의 집' 개원식.

'기도의 집'은 법당과 천주교 미사실을 갖춘 컨테이너 2개로 건립됐으며, 불교단체 회원들과 천주교 및 원불교 신도단체들이 지역별로 매주 이곳에 들러 새만금 갯벌보전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기도의 집에 걸린 부처님과 성모 마리아상은 수안스님(통도사 축서암)이 그려 화제가 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우리 모임에선

건교부 불자회 경전공부

건설교통부 불자회(회장 송도근)는 9일 서울 양재 천개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천개사 계수스님으로부터 〈초발심 자경문〉에 대한 설법을 들었다.

승만부인회 약사암 순례

성북승무사무소 승만부인회(회장 이정옥)은 3일 경북 구미 금오산 약사암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2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약사암에서 108배를 하며 신심을 키웠다.

구청불자회 연등제 참가

서울시 구청불자회 임원 20여명은 12일 포교원 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17일 오후 7시에 열릴 시청앞 점등식과 29일 제등행렬에 적극 동참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노원, 도봉, 강북 등 미창립 구청 불자회의 창립을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구청불자회간의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수협불자회 절예법 배워



수협중앙회 불자회(회장 정근용)는 8일 양평군 소리산 법왕정사로 야외법회를 다녀왔다.

이날 법회에는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절을 기(氣)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스님으로부터 절하는 법을 배웠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2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알림

▲무료 불교 만화영화 상영=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부설 불교만화연구소는 22일 오후 2시30분 관음사 3층 대법당에서 〈세분의 스님이야기〉, 〈피리부는 목동〉 〈이웃의 토토로〉 등 3편의 불교 만화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053)474-0344

▲자비의 바자회=서울 본동사회종합복지관은 18일 오전 10시 본동 쌍용아파트 앞에서 자비의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화장품, 의류,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며,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02)817-8052

▲무료 치과진료 · 안경지원 서비스=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 독거어르신과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옥수동 우리들치과와 남대문 씨채널 신한안경의 후원으로 무료 치과진료 및 안경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02)2282-1100

게시판

강좌

▲기자강좌=한국불교기자협회는 24일 오후 6시30분 녹수청산(현대불교신문사 지하에서 기자강좌를 개최한다. 강사는 한겨레 21 고경태 기자이며 강의는 문답방식으로 진행된다.(02)722-4162

▲장기표 정치학교=불교인권위는 전 민국당 최고위원 장기표씨와 공동으로 19일 길상사에서 정치학교를 개설한다. 총 20회로 진행되는 이번 정치학교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길상사에서 진행된다.(02)734-6401

모집

▲NGO 국제활동요원 수련생=미주현대불교는 NGO 국제활동요원 수련생을 모집한다. NGO 국제활동요원은 2년간 수련기간을 갖고, 유엔을 통해 국제 NGO활동을 담당하게 한다. 지원자격은 1971년 이후 출생의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예정자로 불교사회활동 경력이 있거나 활동중인 사람은 우대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및 학위증명서, 자기소개서, 추천서이며 5월 20일까지 종단협의회로 제출하면 된다. (02)732-4885

▲간병인 자원봉사자=경희의료원 불자회는 병원 안내와 진료 접수, 간병활동 등을 도와줄 불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958-8112 권혁운

奉 보덕선원 서암대종사 하안거 결제 대법회 祝

보덕선원에서는 서암 대종사의 지도하에 신사년 하안거 결제 정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정진하실 비구스님과 보살님들께서는 하안거에 많은 결제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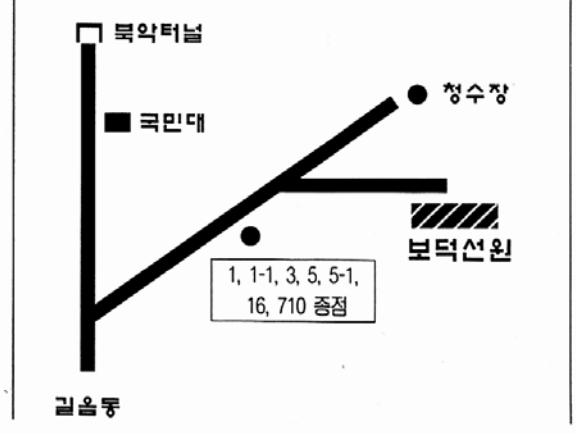
서암 대종사

일 시 : 불기 2545년 (2001년)
5월 8일 (음력 4월 15일) 10시
장 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 4동 824-1호
삼각산 보덕선원 대법당
문의처 : 보덕선원 02-914-4235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대 각 회
삼각산 보덕선원 선원장 오본 합장

■ 교통안내
▫ 지 하 철 : 4호선 성신여대 입구 하차
→ 일반버스 (하단) 탑승 종점 하차
▫ 일반버스 : 1, 1-1, 3, 5, 5-1, 16, 710 종점 하차

찾아 오시는 길



자비 인술 베풀고 불교알리고

신행현장 | 병원불자련 의료봉사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서산마애삼존불로 유명한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리. 80호도 채 안 되는 가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 가운데 위치한 원평학생수련원에 8일 아침부터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호) 소속 국립서울시립정신병원, 국립경찰병원,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경희의료원, 한일병원 등 7개 병원 의사 5명과 간호사 20명을 비롯한 50여명의 의료봉사단원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의료기기를 옮기며 임시 진료소를 설치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 오지마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무료 의료봉사는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농촌 마을 주민들에게 자비인술을 베풀고 불교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내과, 안과, 물리치료, 치과, 한방과 등 5개 진료가 실시된 이번 의료봉사는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와 연계해 공동으로 준비됐다.

폐교를 개조해 만든 학생수련원이라 교실 세 칸에 임시 진료소를 설치한 봉사단원들은 진료에 앞서 간단한 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의술로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중생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겠습니다"

오전 10시 진료가 시작되자 마을 주민들이 하나 둘씩 진료소를 찾아왔다. 이들은 비록 서산시 보건소 원평지소가 있긴 하지만 감기 몸살 등 간단한 진료밖엔 받을 수 없는 이곳에 서울에서 의사들이 직접 찾아와 무료진료를 한다는 마을 이장의 말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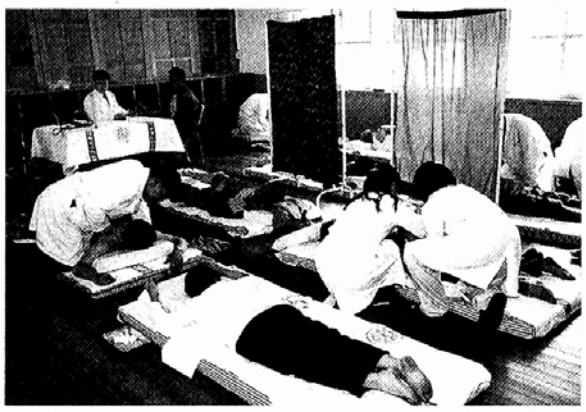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안내 데스크를 맡은 한일병원불자회 이영숙 회장(간호사)이 말을 건네자

의사 · 간호사 50명 동참
봄-가을 봉사 정례화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하겠어. 허리도 아프고…" 이영숙 회장은 간단히 혈압을 잰 후 김만순(58) 할머니를 부축해 한방과로 안내한다.

농촌지역은 고된 농사일로 근육통과 신경통이 많은 것이 특징. 그래서인지 많은 주민들이 이날 한방과를 찾았다. 젊은 시절 과도한 노동으로 병소에 팔 다리는 물론 허리가 아프다는 황초자(75) 할머니도 한방과에서 부황과 침 진료를 받았다.

다리가 아파 뜸을 뜨고 나온 박완규(66) 원평리 이장은 "지금이 농번기라 다쳐도 일손이 부족해 병원에 갈 수 없어 집에서 파스를 바르는 것이 고작"이라며 "마을 주민을 대표해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회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전국 병원불자연합회 의료봉사단원들이 8일 충남 서산 원평수련원에서 무료진료를 하고있다.

인근 성덕암에 다닌다는 정정례 할머니는 눈이 아파서 안과를 찾았다. "할머니 눈 아픈 것이 큰 병이 아닐까 마음 걱정이 많으셨지요. 이건 병이 아니라 나이가 드셔서 그런 것이니 눈 아플 때마다 관세음보살 5번씩만 염불하세요" 안과 진료를 맡은 김재명 경희의료원 교수의 자상한 말을 듣자 정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안도의 미소가 활짝 피어났다.

이날 무료 진료소를 찾은 사람은 모두 75명. 내과 54명, 치과 16명, 안과 21명, 한의과 54명, 물리치료 26명 등 중복 진료를 받은 사람까지 합하면 모두 180여명이 진료를 받았다. 이번 무료진료에 동참한 동국대 한방병원 구병수 교수는 "의료봉사가 의료서비스에 소외된 계층에게 병을 치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심리적 안정까지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봉사의 의미를 밝혔다.

전국병원불자회 김주호 회장도 "부처님 동체대비사상의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리고 연합회 조직도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매년 봄, 가을 두차례의 의료봉사활동을 정례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 누구라도 보시할 것은 있다

자연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준다. 하나를 심어 열을 수확하게 해 준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로지 아낌없이 주기만 할 뿐이다. 완벽한 무주상인 것이다. 그렇게 산 같이, 물 같이, 바람같이, 태양같이 주는 것이 보살의 마음자리요 진정한 보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 보시를 한다.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묶여서 하고, 이름을 써서 '내가 했노라' 확인하고 싶어한다. 보시를 했으니 조만간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은연 중 기대를 하기도 한다.

남들은 때 맞춰서 보시를 잘도 하는데 나는 재물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나 핑계이다.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보시할 아무 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설사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물 한그릇, 풀 한포기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입은 옷 한 벌 뿐이라 해도 옷깃을 찢어 남의 상처를 싸매줄 능력은 있다. 또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 남이 보시하는 것을 거들어 주고 남이 보시하는 것을 기뻐해 줄 힘은 있지 않겠는가.

빈자일등(貧者一燈)의 교훈도 있다. 동냥할 기운만 있으면 보시할 힘이 있다.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보시할 힘이 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도 보시다. 용서하는 마음도 보시다. 스승을 공경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도 보시요, 하심 · 겸양도 보시다. 모임의 화합을 위해 애씀도 보시요, 부드러운 말도 보시다. 슬픔에 잠긴 이를 위로하는 것도 보시행이요,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일도 훌륭한 보시이다. 굶주리는 이를 보고 내 한끼의 식사를 아껴서 도와주는 것도 보시다. 장애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길을 묻는 이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는 것도 보시행이다.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 한 보시할 재물 없음을 탓하지 말라. 남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을 갖는 것은 직접 보시하는 것과 같다(인과경)고 했다. 자비심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백천생에 칠보가 구족하다(지장경)고 했다.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어찌 보시할 게 없다고 하겠는가.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절마다 도서관 만들기' 종단차원 불사 마땅



송암 도솔산 도피안사 주지

포교나 전법은 일반적으로 언어와 문자를 빼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특히 전문화된 지식사회가 될수록, 사회가 분화하여 다양하게 발달할수록 언어, 문자의 역할과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오늘날에 와서는 절대적인 권위와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스승이신 광덕스님이 펼친 새불교 운동의 시작도 이러한 문자의 기능을 활용한 '월간 불광'으로 부터였습니다.

"사람이 정작 사람인 까닭이 뛰어난 정신에 연유한 것이라면 그 증거가 말과 글이 아닐까. 인간의 말과 글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고유한 것이야. 그리고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말과 글은 진리의 훌륭한 문(門)이야.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 없거나 통로가 없다면 닫혀있는 것이고, 닫혀 있는 것은 마침내 없는 것이나 같지 않겠어."

책 속에 깨달음 있다
주민 문화포교 도움

스님께서는 제자인 저에게 항상 문서 포교의 중요성을 이와 같이 반복해 들려주시고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절에서 지금보다 더 포교를 열심히 하고 이익중생의 사업을 더욱 왕성하게 실천한다면 실로 우리 나라 전국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큰 힘이 솟아나 나라의 기풍이 크게 진작될 뿐만 아니라 새롭고 신선한 기운이 나라 전체에 가득 넘칠 거야. 전국에 있는 각 절마다 제각기 도서관을 두어서 그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교양의 중심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조계종에서 대대적으로 전국 사암에 도서관 설립 운동을 벌인다면 아마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수천 곳의 도서관이 우후죽순처럼 속속 등장하여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거야. 거기다가 중장기적인 10년 계획을 목표하여 차근차근 내실을 기해 가며 주변의 협력을 받아 책에 대한 인식과 독서의 중요성을 신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일깨워 간다면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절의 스님이나 신도들이 크게 도움을 받을 것이고 차츰 그 지역 주민들까지 편리하게 책을 볼 수 있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 우리 나라는 순식간에 일류 지식국가 및 문화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야. 또 그 여파로 불교 출판을 비롯하여 불교학의 발전도 가히 비약적으로 이루어질거라 생각해."

스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골수에 박혀 우리 절이 비록 산중에 있어도 산 열어(開山) 손쉬운 조립식으로 대웅전 짓고 부처님 모신 뒤 그 다음 한 일이 도서관 설치였습니다.

문화, 예술, 교육 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그 밑바닥의 정신을 철학이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다양한 문화 형태의 철학을 거의 누구나 책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실을 직시하여 종단적인 종책 불사로 각 절마다 도서관 설치 운동을 벌여 나간다면 그 결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인간은 매일매일 크고 작은 자기 깨달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가다듬기도 하고 보충하거나 바로 세우기도 하며 마침내 진정한 자기의 참모습을 확립해 가야 한다고 볼 때 책을 통해 얻게되는 깨달음은 실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책을 가까이해 책 속에서 길을 찾으며, 성숙을 찾고, 인간 공의(公義)를 찾는다면 한층 사회는 안정되고 윤택하며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불국토를 건설하는 출발이고 뜻이 될 것입니다.

신행 캘린더

4월 18일 (수)

■광주불교방송 개국 6주년 기념법회=광주불교방송은 오후 2시 남도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곡성 성륜사 조실 청화스님을 모시고 개국 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062)520-1111

4월 19일 (목)

■보조국사 유물유적 특별전=송광사는 5월 31일까지 성보박물관에서 보조국사 유물유적 특별전을 개최한다.(061)755-0107

4월 20일 (금)

■남북통일과 대구시민을 위한 기원법회=대구광역시 봉축위원회는 오후 6시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남북통일과 대구시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053)254-9895

■봉선사 조실추대 및 주지진산식=조계종 25교구본사 봉선사는 오전 10시 큰법당에서 월운 해룡스님 조실추대식과 두산 일면스님 주지 진산식을 봉행한다.(031)527-1951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 개원식=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는 오후 2시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8층 대법당에서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 개원식을 개최한다.(051)868-0951

4월 21일 (토)

■선학원 시민선방 철야정진=선학원 중앙선원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선실에서 참선정진 철야법회를 봉행한다.(02)732-3327

■조계사불교대학 3천배 정진법회=조계사불교대학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3천배 정진법회를 봉행한다.(02)720-1390

4월 22일 (일)

■다보사 개원 3주년 기념법회=서울 성내동 다보사는 오전 10시 법당에서 속리산 법주사 혜정스님을 모시고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02)475-6633

■108후불 조성불사 점안식=보현불교대학은 오전 10시 큰법당에서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을 모시고 108후불 조성불사 점안식을 봉행한다.(042)624-6555

■중흥사지 대웅전 기공식=북한산 중흥사 중창복원 불사추진위원회는 오후 2시 대웅보전 기공식을 봉행한다.(02)355-4488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법당준공법회=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오전 11시 법당준공 및 점안대법회를 봉행한다.(052)244-0884

봉 축

22차 한일 · 일한 불교문화교류대회

한 일 양국의 불교문화 교류와 사회복지사업 및 학술교류 등을 통한 불교발전과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불교문화 교류활동을 펼쳐온 지 어언 22주년이 되었습니다.
금번에 개최되는 제22차 대회는『불교의 효사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 일 양국 불교지도자가 참여하여 기념법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행사 세부일정표

행사명	일 시	장 소
환영만찬	2001년 5월 14일 18:00~21:00	서울 앰버서더호텔 2층 연회장
본 대 회	2001년 5월 15일 10:00~11:45 13:30~16:30	법요식(봉은사) 세미나 및 불교문화공연(봉은사)
성지순례	2001년 5월 16일 08:00 ~ 18:00	용주사 및 이천도예단지

※ 동참하실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5년 4월 10일

사단법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서정대 이사장 이홍파 사무총장 전남정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5 3층
☎ 02-725-3677, 720-1708 fax 02-720-1709

현시대의 火(불)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石楠葉(석남엽)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유정, 정자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 · 가 · 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016) 222-770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청강 대 진 법장

초파일을 앞두고



법현스님
종단협 사무국장

사회 곳곳 아픔많은 요즘 연등에 담은 서원대로 모두 이루어졌으면…

일요일에 교외에 있는 육군 모사단 군법당에 다녀왔다.

병사들에게 부처님과 함께 하면 즐거운 이유를 설명하고 불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식사후의 노곤한 몸을 추스르고자 같이 있던 불자 간부 및 부인들과 함께 부처님오신날 쓸 연등을 만들다 왔다. 대개의 불자들이 신행활동에 경험이 적어 연꽃을 비벼말고, 등 살에 꽃잎을 붙이는데 서툴렀다. 예쁘게 만들면 예쁜 딸 낳고 멋진 애인 생긴다고 말해주니 우스개소린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다.

이 법당에는 한달에 한 두번 정기적으로 가는데 담당 법사가 없다. 그러서 불자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종단협의회 소임을 맡은 이후로 그만 두었던 정기법회의 법사역할을 맡은 것이다. 군법당에 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어려움도 크지만 아무리 열심히 열을 내서 설명을 해도 눈이 밝지 못한 우리네 중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삐에로가 뛰면 뛸수록, 아들딸의 위급함을 안 부모의 표정이 심각하면 할수록 바라보는 관객이나 아이들은 오히려 더 즐거워한다.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예는 볼 수 있다. '하루'라는 영화 주인공이 낳은 불운한 아이의 하루밖에 안 되는 삶이 기구하면 할수록 관객들의 가슴에는 메아리치는 것이 많다. 영화를 보던 젊은 남녀가 나누는 대화는 그래서 역설적 사실로 다가온다.

"너무 감동적이야. 어쩌면 저렇게 비극적일 수가 있지? 저렇게 비극적인 삶을 만일 나보고 살라고 하면 하루도 못 버틸거야."

"그래, 그러니 너무 감동만을 바랄 것이 아니야. 저 주인공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봐. 물론, 우리에게 보일려고 저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크게 감동하면 할수록 저 주인공은 더 힘들어야 돼."

이렇게 주인공의 삶까지 걱정해가며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회 구석구석에 아픔이 많은 요즘이다.

꽃샘추위와 봄비를 맞은 꽃이 훨씬 더 아름답고, 폭이 좁고 밑에 돌이라도 있어서 흐르는 물이 고생을 해야 노래를 하는 법이다.

빛과 어둠은 본래 나눈 몫이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한몸 임을 아는 우리에게 올해의 부처님오신날은 '밝음 두배'의 연등축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회 곳곳 아픔많은 요즘
연등에 담은 서원대로
모두 이루어졌으면…

단 불자들이 느끼는 기쁨 또한 크다는 것이다.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각자의 마음과 관계가 있다.

"불이야! 불났어요. 빨리 피하세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강당 끝에 불이 난 것을 본 삐에로는 얼굴까지 빨개지며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그것마저 연기하는 것으로 파악한 관객들은 오히려 실감난다며 손뼉을 치고 좋아할 뿐 자리를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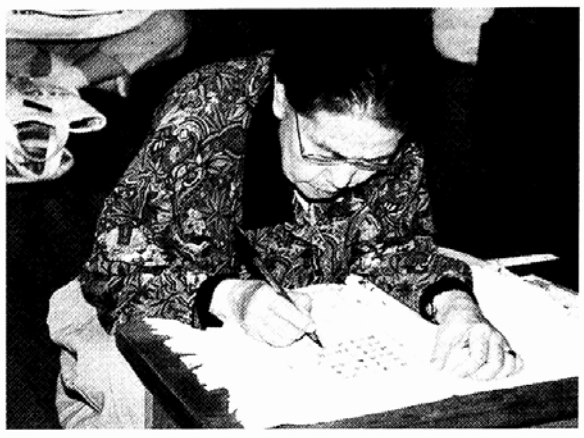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지적한 군중의 의식은 불교의 〈법화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놀이에 빠져 집에 불이 난 것도 모른 채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밖에 소, 양, 사슴이 끄는 수레가 있다고 짐짓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들딸을 아끼는 부모처럼 중생을 사랑하는 부처님이 방편을 써서 설법하는 것과 같다.

강당 끝에 난 불이나 집에 난 불을

◇필자 사정으로 '불교로 보는 인생' 쉽니다

물질 보시보다 사경공덕 수승

◇사경은 경전의 말씀을 한자 한자 마음에 각인시키면서 정성스럽게 옮겨 쓰는 수행법이다. 노보살이 반야심경을 사경하고 있다.



참불자의 길 사경의 의미

"선남자 · 선여인이 반야바라밀을 단지 서사(書寫)해 책으로 만들어 집에서 공양만 하고 기억도 하지 않고 읽지도 않으며, 외우지도 않고 설하지도 않으며 바르게 사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세에 공덕을 얻게 된다." 〈대품반야경〉

"무수한 세월동안 물질로 보시한 공덕보다 경전을 사경, 수지해 다른 이를 위해 해설한 공덕이 수승하다"〈금강경 지경공덕분〉

경전에는 이와같이 사경의 공덕이 설해져 있어 사경 수행의 효과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면 사경이란 무엇일까. 사경(寫經)은 말 그대로 경전의 서사(書寫) 즉 경전 말씀을 옮겨 쓰는 것이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사경은 경전 말씀을 옮겨 책을 만드는 일도 되었다. 하지만 요즘은 경전 말씀을 한자 한자 옮겨 씀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정진하는 수행법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사경은 글자를 쓰면서 흐트러진 정신을 한곳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행할 때 장애가 빨리 오는 초심자들도 특별한 지식이나 가르침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수행 방법으로 꼽힌다. 불자가정이라면 어린이 · 청소년들이나 어머니들이

부처님 가르침
한자한자 옮겨 써
마음에 새기는 수행
초심자도 쉽게 동참

각 가정에서 〈반야심경〉을 비롯해 〈금강경〉 〈천수경〉 등 여러 경전을 펼쳐놓고 사경하는 모습을 한번쯤 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사경을 열심히 하다보면 자연히 한자 한자에 마음을 집중하게 되어 산란심이 없어지고 일심(一心)이 잘 될뿐만 아니라 주옥같은 경구들을 항상 가슴에 새길 수 있어 정신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사경도 일심으로 열심히 하다보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보리심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 온갖 집착을 떨쳐 버릴 수 있으며 동시에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공덕이 생긴다. 요즘은 사찰에서 사경 수행을 할 때 한자 쓰면서 한 번 절하는 일자일배 의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어 절 수행도 함께 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경은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교설에 대한 결집은 먼저 구송(口誦)으로 시작돼 3백여년간 내려오다가 대승의 선구경전인 〈반야경〉 계통의 경전이 문자화 되면서 비로소 사경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전이 문자화됨에 따라 많은 대승경전에서는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 경문을 필사하는데 특히 큰 뜻을 갖게 되었으며, 사경의 공덕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경은 삼국시대 불교의 수용과 더불어 불경을 널리 유포시킬 목적으로 행해졌으나, 8세기 중엽 목판본의 보급으로 불경의 유포보다는 공양 또는 공덕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의미가 변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국난 극복과 가문의 영화를 기원하기 위해 귀족들 사이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사경집이 많이 제작되기도 했다. 또 이렇게 완성된 사경집은 불상이나 탑안에 봉안됐다.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법화경〉 사경이 유행하는데 이는 그 당시 성행한 법화신앙과 관련된 '경탑숭배(經塔崇拜)' 사상에서 비롯되기도 했다. 이와같은 의미의 변천 과정을 거쳐 사경은 오늘날 불자들에게 인격형성과 신행생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수행의 한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⑩

이참정에 대한 답서 (2)

직접 마셔야 물의 맛을 안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다만 범속한 정식(情識)을 없애면 될 뿐 따로 성스런 지해(知解)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한번 웃음에서 활연히 정안(正眼)이 열려서 세간의 소식을 문득 잊었으니, 힘을 얻음과 얻지 못함은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아 그 차갑고 따스함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선이란 '참 마음을 알고 자성을 보는 것' [識心見性]이다. 그러나 참 마음을 '알고' 자성을 '본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알려지는 물건'이 아니고 자성은 '보여지는 물건'이 아니다. 마치 허공이 그 속에 삼라만상을 담고 있듯이, 마음은 그 속에 무슨 물건이든 다 담겨지는 테두리 없는 그릇이다. 마음이라는 그릇은 테두리가 없으므로 그 속에 담겨지는 물건을 보아 그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아무 물건도 담지 않은 빈 그릇이 되면 그 그릇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알려지는 것은 다만 담겨지는 물건뿐이지만, 그렇다고 물건을 보고 그릇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실 그릇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쇠로 만들어진 것이든, 도자기로 만들어진 것이든 그 테두리의 재질을 두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물건을 담기도 하고 비워내기도 하는 역할을 두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참 그릇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테두리가 아니라, 물건을 담기도 하고 비워내기도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이다. 그러므로 보이고 만져지는 테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담기도 하고 비워내기도 하는 기능만 있다면 그것이 참된 그릇이다. 마음이 바로 이러한 그릇이다.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그릇을 확인하는 길은 그 속에 담겨지는 정식(情識)이라는 물건만을 보아서는 안되고, 그 정식이 담겨지고 비워지는 기능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물건이 없다면 기능은 파악되지 않으므로, 물건을 보되 물건을 보지말고 그 물건이 담겨지고 비워지는 그릇의 기능을 파악해야 한다.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겨지는 물건인 정식은 색깔 · 소리 · 냄새 · 맛 · 촉감 · 생각이라는 형태로 끊임없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간다. 참된 마음은 이처럼 무수한 정식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기능이다. 따라서 매 순간 순간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정식을 보되 정식만을 보지말고 정식의 생멸 변화를 잘 보아서 정식을 담고 비워내는 기능을 파악해야 비로소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기능이란 지금 이 순간의 생멸 변화의 움직임일 뿐이므로, 어떤 행태로든 고정된 정식으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혜 스님은 "다만 범속한 정식(情識)을 없애면 될 뿐 따로 성스런 지해(知解)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피부가 모두 탈락하면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으니, 마치 전단(栴檀) 나무의 무성한 가지가 모두 탈락하면 오직 참 전단만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약산유엄 선사의 말을 인용하여 이것을 보충설명하는 것이다.

자성(自性)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 모양 없는 기능을 보는 것이다. 그 때문에 황벽 스님은 자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배상공의 물음에, "보는 것이 곧 자성이니, 자성으로써 다시 자성을 볼 수는 없다. 또 듣는 것이 바로 자성이니 자성으로서 다시 자성을 들을 수는 없다. 만약 그대가 자성이라는 견해를 짓는다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성 밖에 또 하나의 다른 법(法)이 생겨난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성을 파악하고 참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은, 매 순간 보고 · 듣고 · 냄새 맡고 · 맛보고 · 느끼고 · 생각하는 속에서, 색깔 · 소리 · 냄새 · 맛 · 촉감 · 생각이라는 정식을 놓아버릴 때 열릴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놓아야지 저것을 놓아야지 하는 격식을 앞세운다면 정식을 벗어나기가 오히려 어렵게 된다. 그저 "'다만 범속한 정식(情識)을 없애면 될 뿐 따로 성스런 지해(知解)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고 간절히 참구할 뿐이다. 그리하여 한 번 웃음에서 활연히 정안(正眼)이 열려서 세간의 소식을 문득 잊어버린 이참정 같은 체험을 하여야 비로소, 물을 직접 마셔보아 그 차갑고 따스함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 오신날 향다운 향으로 공양올립시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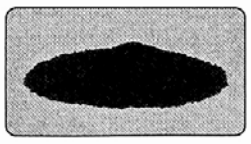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방석

방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계피, 인삼 등 32종의 한약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향기방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40cm ▷ 무게 1.5 ~ 2kg



32종의 한약재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베개, 방석

베개의 내용물 약재는 32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팔풍을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 국화베개, 박하베개, 메밀베개, 질병치료용 베개(두통, 중풍 등) 석씨향방의 베개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사진은 베개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안한 베개 또는 높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크기 70cm×40cm ▷ 무게 3 ~ 4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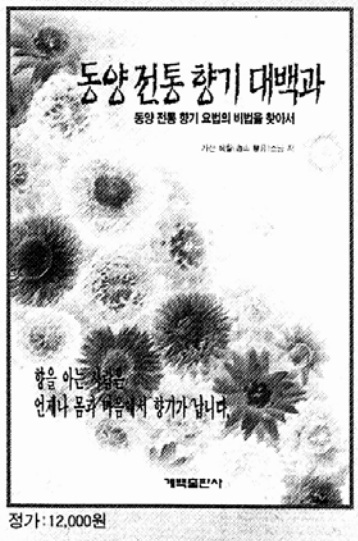


국민은행 076-21-0658-363 농 협 100016-52-018512 예 금 주 : 김 남 서

☎ 02)538-7161, 016-756-2227 http//:www.hyangbang.com

나도 향기나는 사람이고 싶다.

스님이 가르쳐 주는 동양 전통의 향기 요법 !
향으로 배우는 건강 요법부터 목욕 요법까지 - 그 재료와 사용법



정가 : 12,000원

기산 혜월(迦山 慧月) 스님 지음

- 향의 비밀
- 우리나라 향기 요법의 발전 과정
- 향과 종교
- 전통 향 요법의 제작 과정
- 먹는 향
- 분향하는 향
- 화장품 향 만드는 법
- 향욕법
- 폐향법
- 침향법
- 훈향법
- 향, 호흡, 참선, 기공
- 향의 신비

계백출판사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4-59 덕산B/D 203호
TEL:(02)3141-3636 FAX:(02)3141-3634

이렇게 들었다

지역 이기주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대중들이 다투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 가운데서 다투는 것은 꾸짖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어리석은 마음으로 탐욕을 일으키고 성내고 다투어 서로 미워하고 혼란에 빠지느냐. 그것은 마치 어둠에서 나왔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갑이고, 변소에서 나와 다시 변소로 들어가는 것이며, 피로써 피를 씻으며, 악을 버렸다가 다시 악에 빠지는 것과 같느니라. 어찌 그 많은 생각 가운데 탐욕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해치려는 생각에 매달리느냐.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치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잡아함경〉

▨대개 이익이라는 것은 사람을 나쁜 곳으로 떨어뜨린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이익에만 매달리면 오히려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증일아함경〉

서울시가 2004년까지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에 5만평 규모의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다가 해당 구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부지선정이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60%가 화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의 화장률도 50%를 넘어섰고, 화장을 전통 장례법으로 삼아온 불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다른 종교단체들도 화장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화장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장례문화로 정착돼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화장시설이나 납골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와 종교단체가 앞장서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다름아닌 지역 이기주의다.

지역 이기주의는 사실상 개인의 이기심과 맞물려 있다. 지난해 국정홍보처가 성인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집단 이기주의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중 44%가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남의 이기주의는 안되고 내 이기주의는 된다'는 이중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셈이다. 강남구의 반대논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자(自)와 타(他)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기심이야말로 재앙의 근본이라고 강조하셨다. 자기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소아적 발상은 가장 비민주적인 독선에 불과할 뿐이다.

화장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다. 그렇다면 화장장 건립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화장장 건립 반대가 허공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은 아닌지 강남구는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명우 기자

'장애인과 함께' 거부하는 사회

불자 세상보기

애덤 킹의 밝은미소
스티븐 호킹의 성공
한국에선 왜 불가능



방귀희
솟대문학 발행인
방송작가

우리는 선진이라는 말에 묘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을 닮으려고 애를 쓴다. 사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선진국 흉내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최선의 모토로 삼고,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선진국의 잣대가 경제 수준만은 아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진 시민이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인 것이다.

선진시민과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손가락 하나 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호킹 박사가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영국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있었기 때문이다. 호킹 박사가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고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탁월한 능력의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2001 프로야구 대회에서 시구를 한 애덤 킹의 경우도 사실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었다. 킹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 우리가 버린 아이를 미국의 양부모가 데리고 갔는데 킹의 얼굴을 보자 그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알 수 있었다. 킹의 티없는 맑은 미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향해 "바보"라고 외치는 절규처럼 느껴졌다.

태어난 아기가 장애인이라고 버리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자기 자식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목졸라 죽이는 사건도 최근 연달아 발생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까지 무자비할 수 있는지 한 번 진지하게 반성해볼 일이다.

우리는 한때 고아 수출 1위국이었다. 국내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요즘 들어 국내 입양이 조금씩 활성화되는 조짐이 보이고는 있지만 장애인이 입양되는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한다. 그래서 장애인은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기고 외국으로 추방당하고 있다. 애덤 킹도 그 중의 하나 인데 그의 양부모는 한국의 장애아동을 4명이나 입양하여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 미친 짓이라고 단정 짓는다. 하지만 그 미친 짓이 바로 선진의식이 아니면 흉내도 낼 수 없는 위대성이다

얼마 전 오체불만족의 작가 오토다케가 결혼한 소식이 화제가 되었다. 오토다케의 결혼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특별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당연한 일이 장애인에게는 특별한 일이 되는 것이 바로 후진적인 사고 발상이다. 오토다케나 애덤 킹 그리고 스티븐 호킹 같은 성공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불가능한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초급단계이면서 우리는 고급의 장애인복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중적인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부르짖고 있지만 장애인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사회제도도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라고 정해놓았지만 장애인들은 오히려 이 날이 더욱 슬프다.

열린마당

방생의 의미와 역할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적극 실천하는 방생이 오히려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가운데 녹색도시 부산 21 추진협의회가 6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방생의 생태적 의미와 역할'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방생의 종교적 의미와 역사를 짚어보고 방생의 근본의미와 개선방향, 방생의 생태학적 응용 등 방생의 부작용을 생태학적으로 보완하고 활용하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생태복원 차원 방생활용"



문태영 〈고신대 교수 · 생명과학과〉

근래에 무분별하게 상업화되거나 생태적으로 무지한 방생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종교와 과학간의 의견 불일치가 생겨났다. 따라서 방생의 원래 취지에 합치되며 생태계의 파괴를 야기하지 않는 과학적인 방생방법 연구와 함께 이미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복원생태학적 차원에서의 방생이 시급한 시점이다.

생태학적 측면에서 방생은 한 지역생태계에 생물을 추가 즉, 도입하는 실제적인 인간간섭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국내에서 행해진 전반적인 방생의 형태를 고려하건대,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종을 적합한 장소에 방생하는 것이다. 현재 불교종단들 자체에서도 인정할 만큼 특히 심각한 것은 하천이나 호수 등에 물고기를 무분별하게 방생하는 것인데 어디에 어떤 종이 얼마나 방생되었는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안정된 생태적인 먹이사슬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 결과 하천의 오염을 촉진한다. 따라서 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우선 방생에 적합한 지역, 종, 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생물기록센터나 생물자원보존관 등이 절실하다. 또한 보존생물학적으로 방생이 바람직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한 유형은 멸종위기에 있는 종을 인위적으로 증식시켜 재도입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만약 종의 멸종요인이 외적인 것이었다면 그 요인을 제거 또는 조절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방생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주요 종이 줄어들어 그 생태적 기능이 원활치 못한 곳에서 실시된다면 최상의 생태계 회복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방생의 과학적인 활용은 종교와 사회와 국가가 과학적인 기반에서 일체가 되어 시도하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는 국가적인 생태계 복원실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방생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생연구관리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사회적 조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자연으로 방생범위 확대"



정천구 〈영산대 교수 · 국제학부〉

방생은 불교의 교리와 수행에 있어서 자비라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반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이를 도와주려는 자비심에서 비롯된 방생은 여러 경전에서 불살생의 계율과 함께 불제자가 행해야 할 실천 덕목으로 적극 권장되고 있다.

죽어가는 산 물고기와 짐승을 놓아 보내는 의식으로 발전한 방생은 인도의 야쇼카 대왕시대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연등회, 팔관회 등 국가적 규모의 불교의식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생의식은 차츰 원래의 뜻을 저버리고 방생이라는 행위에만 집착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의 물고기 방생은 기복적 목적만을 생각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없이 전통사회의 행동양식과 의식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생 행위에 문제가 있더라도 방생의 정신과 사상은 오히려 자연보호, 생태계 보전을 위한 근본적 인식전환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선양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고쳐야 할 것은 방생의 방법이다. 근본정신에 어긋나는 방생 형태를 지양하고 방생의 실재적 결과를 고려한 방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대 사회에 적합한 방생 행태를 개발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방생이 물고기의 하천 방생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하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하천 주변 정리, 오염 정화, 하천 살리기 등의 활동을 새로운 형태의 방생 행위와 방생 의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방생의 대상을 새, 나무, 숲, 자연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방생의 방법도 살려주기, 치료해 주기, 먹이 주기, 환경청소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집단적 방생의식의 경우 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 그리고 행정당국과의 사전논의를 통해 방생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생명사랑운동으로 승화"



김용태 〈신라대 교수 · 국문학〉

불교에서는 일찍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금광명경에 근거하여 살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자비심을 증장시키는 뜻으로 방생을 권장하게 되었다. 방생은 생명의 유기적 관계를 역설하는 연기론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불교의 자비사상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불살생계와 맞물려 있는 방생은 엄중한 살생에 대한 상대적인 보상으로서 착안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마음속에 자비심을 길러주고 또 실질적으로 죽기 직전의 생명을 놓아줌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생명 중시 운동의 일환이 되기도 할 것이다.

방생은 단순히 물고기를 놓아주는 행위가 아니라 방생대상의 생명들을 향하여 '보리심을 발하여 필경 극락세계에 태어나라' 고 하는 축원의 마음을 담게 되어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방생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방생의 형태를 개혁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생명 사랑의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봉사정신, 이웃사랑의 정신, 자연환경 존중의 정신의 실천으로,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 병약자 돕기, 땅과 물 맑게 지키기, 공기를 맑게 하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생의 개혁과 함께 간결한 의식도 수반되어야 한다. 미꾸라지 약간을 통에 넣어 신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의식을 하고 그것을 물에 넣어주는 오늘날 방생의 관행을 지양하고 덕목과 법력을 갖춘 법사를 초빙하여 방생에 참여한 불자들이 자비심을 일으키고 선근공덕과 지혜를 증장할 수 있도록 법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살생으로 측은지심을 끊어버린 마음을 방생으로 자비심을 회복토록 한다는 방생의 근본정신을 더욱 소중히 하고 방생의 형태나 의식을 현실에 맞게 과감히 개선한다면 그것은 적극적인 포교의 실천이 될 것이며 진정한 요익중생의 길이 되리라 믿는다.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

신간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묘법을 익혀 보십시오. 기쁘기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6판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 · 선배 · 제자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사·부·대·중

혜초 기념비 단상



도각스님
〈동국대 강사, 불교사〉

조계사에서 6월 13일 중국 산시성(陝西城) 선유사(仙遊寺)에 혜초(慧超)스님 기념비를 세우고자 지난 2월 말 사전 답사를 했는데, 그 답사팀에 동행하게 되었다. 이번 답사는 참으로 뜻깊었다. 중국 땅 선유사에 한국 스님의 기념비를 처음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혜초스님(704~787)은 밀교 승려이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으로 더 많이 알려진 분이다. 그런데 변인석 교수가 〈하옥녀답기우표(賀玉女潭祈雨表)〉에 주목하여 선유사가 스님이 당 대종의 명을 받아 기우제를 지낸 곳이며, 개발정책에 의해 곧 수몰된다는 사실을 전합에 따라 조계종에서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선유사!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지금은 댐공사와 사찰 이전복원으로 분주하나 완공 후의 선유사를 상상하니 즐거웠다. 이곳은 백거이가 '장한가(長恨歌)'를 지은 곳이며, 98년 법왕탑에서 진신사리 13과가 발견되어 주목을 끈 곳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인도 이상으로 중요한 곳이다. 한국 스님들이 중국에 남긴 족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혜초스님의 경우만 하더라도 중국 4대 역경가의 한분인 불공(不空)스님의 고족(高足)으로 역경장에는 스님이 항상 함께 하였다. 역경장이었던 대흥선사(大興善寺)에는 불공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그런데 절 중앙에는 불공의 손자뻘인 일본스님 공해(空海)의 기념사업회에서 수자지장상(水子地藏像)을 세워 놓았다.

이 사실은 선유사와 대흥선사를 참배한 나에게 숙연한 마음을 갖게 하였다. 변인석 교수는 중국에 끼친 일본승려들의 영향을 '일본 스님들은 그저 슬쩍 구경만 하고 갔다'면서 그 미미함을 표현했지만 월등하게 뛰어난 자취를 남긴 한국 스님들의 족적을 기념하는데 우리는 관심이나 노력이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역대 고승들이 남긴 자취를 찾고 기념하며 그것을 거울삼아 더욱 정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그래서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힘을 추스렸다.

목탁소리

봉축열차 무사 기원

강 지 연 (뉴미디어부 기자)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한 봉축열차가 10일부터 지하철 5호선에서 운행되기 시작했다. 봉축열차 운행이 알려지자 서울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에는 타종교인들의 항의성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지하철이 특정종교 자가용입니까? 발상 자체가 참 한심스러우며, 대선을 고려한 집권당의 모략인지 아니면 공사가 알아서 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등의 항의성 글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모자라 일부 타종교인들은 협박전화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동차 내부에 봉안했던 불상도 혹시 모를 훼불에 대비해 아예 철거하고 10여명의 직원들이 항시 전동차에 타고 대기할 정도로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 이벤트가 잡혀 있는 날은 몰지각한 타종교인이 공연을 방해할까봐 앞 뒤에서 지키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에도 산타열차가 운행됐었다. 특정종교만 편애하여 문화열차를 편성한 것도 아닌데 일부 타종교인의 반응은 과잉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산타열차나 봉축열차나 특정 종교의 명절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므로 서로가 이해하고 축하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도시철도공사 게시판에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봉축열차에 대해서만 배척하는 행위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기 싫다면, 다음 열차를 타는 것이…(오윤석, youn8691@hitel.net)", "기독교의 문화라 할 수 있는 '산타열차(성탄열차)'도 운행했습니다. '봉축열차'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대신 걱정스러운 것은 일부 모진 기독교인들이 열차를 망가뜨릴까봐 걱정입니다.(원정연, helpwjy@hanmail.net)" 등의 우려의 글들도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건전한 종교인들은 이웃종교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극소수의 광신자들은 매년 초파일을 전후해 훼불사건을 야기하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6월30일까지 남은 기간동안 무사히 운영되도록 타종교를 배려하는 성숙함을 기대해 본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변천사

고려부터 현재까지 "불국정토 서원"

다음달 1일은 21세기의 첫 부처님오신날. 새로운 세기, 불자들은 이 땅에 부처님 오신 참 뜻이 실현되는 불국정토가 구현되길 염원하면서 날마다 봉축의 환희심이 이어지길 서원하고 있다. 영욕의 현대 불교사와 함께 한 초파일 봉축행사를 되돌아 봄으로써 불교 중흥을 다시금 발원해 본다. 편집자









◇왼쪽 위에서부터 조선말 종로의 연등상점, 1972년 부처님오신날 세계평화기원대제, 1975년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경축대강연회, 1998년 동대문운동장 연등축제.

고려 연등회 집집마다 등 밝혀
1975년 공휴일 제정 '국민축제로'

●연등축제의 기원

초파일이면 등을 밝히는 풍속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연등회'란 이름으로 집집마다 등을 밝힌 때는 고려시대부터다.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은 '훈요십조'를 통해 팔관회와 연등회로 대표되는 불교의식을 널리 행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를 계기로 신라 때부터 성행했던 연등회·팔관회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2대 명절로 정착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관 중심의 연등행사는 중지되었으나 민가에서는 관등놀이, 호기놀이(呼旗; 등불을 밝힐 재료를 구하기 위해 아이들이 깃발을 만들어 쌀이나 돈을 구하는 놀이), 불꽃놀이 등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민속행사로 전래되었다.

●해방 전의 초파일 봉축

기록상에 보이는 최초의 초파일 봉축행사는 1911년 서울 각황사에서 8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러나 대규모 연등회는 1914년 음력 4월 15일 해인사에서 2만 연등회로 열렸다.

1921년 정부는 석가탄신일을 명절로 기념함은 물론 '관등날'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렀다. 1927년에는 불교중앙교무원이 종단차원에서 처음 법요식을 거행했다.

1938년 '석존강탄기념 봉축회'가 총독부의 방침으로 양력 4월8일에 초파일 법회를 개최했다. 노방전도(路傍傳導) 즉, 거리 행사는 1939년 불타제전봉행회 주최로 열린 불탄생 봉축식에 이어, 종로 탑골공원에서 처음 열렸다.

●장엄물과 문화행사

연등 이외의 화려한 장엄물은 1925년 표충사에서 처음 등장했다. 표충사는 이때 1천 등을 밝히고 탑 학 거북이 륜선(輪船) 백로 비행기 등 다양한 형태의 장엄등을 선보였다.

1959년에는 서울 종로-을지로-광화문에서 제등행진과 함께 코끼리 장엄물이 처음 등장해 일반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979년부터 전국 각지로 제등행렬이 확산되면서, 각종 장엄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72년에는 서울시가 4·8 봉축탑을 처음으로 건립해 봉축탑 점등의 효시가 되었다.

한편 조선불교청년총동맹과 경성동맹은 1932년 석존성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강연 및 '아란과 마등가' 등 연극 공연 등 문화행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어 경성제국대학 불교청년회가 1934년 조선불교 전적전람회를, 조선불교중앙교무원과 나남관북불교회는 1936년 연극과 동극대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조계종은 1968년 4월 초파일을 '부처님 오신날'로 명칭을 통일했다. 1969년 2월에는 불교 13개 종파가 대표자회의를 열어 4·8 공휴제정운동을 결의했다.

이윽고 1975년 1월 14일에는 부처님오신날이 드디어 공휴일로 제정됐다. 공휴일이 된 첫 부처님오신날인 5월18일을 기념하기 위해 불교예술대전이 11일부터 부처님 오신날까지 개최됐다.

1981년 5월11일 부처님오신날에는 국무회의에서 통금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모범재소자 587명을 특별 가석방했다.

●초파일 전후 훼불사건들

1989년 부처님오신날은 봉축 제등행렬이 무장경찰에 의해 유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교계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계사에서 경찰 폭력 만행 규탄 및 불교자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991년에도 여의도에서 시작된 제등행진 때 비구니 스님과 어린이들의 행렬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러, 5월 20일 최루탄 발사 규탄 시위가 열렸다. 이어 24일에는 제등행렬 최루탄 발포에 대한 시경국장의 사과가 있었으나, 25일에는 불교탄압 규탄 범불교도대회가 조계사에서 열렸다.

1996년에는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서울 삼성암, 본원정사, 화계사 등에서 잇따라 방화사건이 발생하고 진해 청룡사에 목사가 난입해 불상과 탱화를 파괴하는 등 훼불행위가 계속되어 1천만 불자를 경악케 했다.

●종단분규 때의 봉축

1955년 비구·대처승간의 분규로 비구측 선학원과 대처측 총무원이 분리되어 봉축 법요식을 따로 봉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총무원 측은 창경원에서 석가세존 탄신일을 축복했고, 선학원은 조계사에서 불전 예식을 거행했다.

1960년 5월3일 4.19사태로 비구·대처승간에 분규가 재연된 스산한 분위기속에서 해마다 거행되어온 관등행렬 등 옥외행사는 계엄령 관계로 모두 중지됐다. 당시 380만명에 달하는 신도들은 재연된 불교계의 분쟁이 가라앉길 기원했다.

1979년에는 분규를 겪던 조계종이 조계사 및 개운사에서 각각 별도의 봉축 법요식을 개최해 망신을 샀다. 1980년 5월 21일의 불탄일 범불교연합 봉축행사는 조계종 분규로 취소되기도 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

범종단 차원의 제등행진은 1982년 처음 벌어져, 18개 종단 20만여 불자가 참여하는 제등행렬이 장관을 이뤘다. 이어 1984년 18개 종단 대표가 참가해 '나라와 국가원수를 위한 축원법회'를 봉행했다.

1993년 부처님오신날부터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가 활기차게 펼쳐졌다. '회엄경 선재동자' '탈속' '사모곡' 등 불교연극을 비롯해 전시 강연 국악공연 등이 열렸으며, 여의도에서 열리던 봉축대법회 및 제등행렬이 동대문운동장으로 옮겨져 개최됐다.

1995년 다시 여의도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제등행렬 및 대법회를 봉행했으며, 5월 5일 조계사에서는 첫 외국인 노동자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1996년 제등행진이 다시 동대문운동장으로 옮겨졌고 조계사까지 이어지는 종로통 곳곳에서 거리 연등축제를 시민축제로 열고 있다. 96년부터 봉축행사는 불교계만의 단순한 제등행진과 기원법회라는 의례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등축제로 전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天蓊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2201-3333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조사가 서쪽에서온 큰 뜻은?
직지인심 교외별전
不立文字 見性成佛에 있으며
고집멸도의 반야심경 시대는 지나고 새인류 도법의 고집진도의 반야심경 여래후후오백세 2500년 불법이 도래된 지게 수복자 달마의 근본법도 진 태양
● 오본래자토 五本來茲土
● 전법구미정 傳法救迷情
● 일화개오엽 一華開五葉
● 결과자연성 結果自然成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입상 및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제11회 특선 작품)

동경국제서화대전 제19회에서 준대상 당선작품

●2001년 신사년 진인도통 경신기도 입제일 안내
이경신 (양) 4월 26일 밤 입제 27일 밤 해제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지구촌 종말론이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정감록에 감춰진 송리산 채순현 선생에게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듣는다.
● 동양철학과 풍수지리에 감춰진 명당법의 베일을 벗긴다. 태일대사 직강
● 12생띠들이 들어가야 할 명당비법과 사주학, 운명학, 성명학, 풍수지리학, 양택·음택, 사주변형법을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직강 최첨단기 강의법, 명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법입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귀하는 인생의 스승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인 정진 도통으로 영과 혼을 담아그린 달마상의 비법은 새태양의 법도로 흥한터, 수맥차단 초상상문, 사업장, 이사 개업 노력해도 안되는 도통과 학업, 진학, 고시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달마도상을 한점에 한달마를 모시어 소원성취하시고 휴대용 순금골드 99.9 달마상 지니시여 삼재소멸 건강, 부귀영화, 수명장수 말문이 터지지 않는 분 및 각종 경쟁에서 승리하소서. 「특히, 이번 법회에 달마심기선무기공 달통봉으로 간강은 삼목에 있고 수명은 삼백에 있으며 부기공명은 삼풍에 있느니라. 이법은 조사께서 면벽 9년 수행하시던 건강법을 공개하오니 동참하시어 건강지도자 되소서」

윤달드는 해 진태양 서성명성 대 용맹정진
사명자 제63회 眞人도통 庚申大法會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말법도인들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 만물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세월속에서 다같이 깨어나 천년에 한번드는 1월 1일에 갑자일이 시작되는 해인법도에 감추어진 대비밀장의 기도임을 명심할지어다. 이 기도에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대인류의 스승이 되는 특별기도를 양력 4월 26일 4월 27일, 자시와 오시에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도통군자 잣대를 얻어 증상운 120세의 천안통 숙명통에 도전하여 종교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도통군자 연기법을 대자연의 천지신명과 염라대왕에 진법을 받아 사명자 도인 되소서. 하늘의 근본법도를 알재 못하면서 제멋대로 지껴리는 잡도에 끌리여 눈먼거북의 종행 동타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즉하면 하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日本은 우리의 강산에 쇠못을 밖고 중국헌원황제는 우리의 마음에 쇠못을 밖은 사실을 당신은 알고계십니까?
우담바라의 비밀을.. 2000년 5월 9일의 하늘의 대서사시의 광경을

이 법의 소식은 萬有·形·象법의 잣대로 설계 법측, 법척 천공, 만유의 각 5대 주문이 없는 것은 하늘의 권능으로 어떠한 도통도 불가하며, 다만 잡신에 끌리여 억망진창을 왜 모르며 몸에 태산같은 중병과 육심과 명예의 삼독을 벗고 말문이 열리는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특히 이번 법회에 득도하시어 몸에 천병, 잡신, 살이찌는병을 소멸하시고 위로는 꺼져가는 민족의 혼과 얼을 찾고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명자, 진인 도통 일류 스승 되소서.

● 입 제 : 양력 4월 26일 밤 10시 ~ 4월 27일 亥時에 해제
● 동참금 : 일금 5만원 (1박 2일 간편한 복장) 목요일 밤 입제
● 온라인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동참
02) 821-6622 / 야 923-3110 / 821-7767~8 / 016) 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7번출구,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2번출구 버스 85,25,95,26,303,142,26-3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약사회골목입구

사명자 모임. 진인경신도통회장
한국불교 달마종 총 본산 악사도량 달마선원장 天龍眞人 泰日法師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⑤

새봄 부처 오심은 성불의 희망

번뇌를 보리로 생사를 열반으로 바꾸자

〈화엄경〉의 세주품 제1에서는 여러 보살들이 예전에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선근을 닦아 태어난다고 한다. 또 보현삼매품 제3에서는 "이것은 시방제불이 함께 가피하신 것이니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원력 때문이며 또한 네가 닦은 행원력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래명호품(如來名號品)' 제7에서는 특히 〈화엄경〉의 전편에 걸친 중요한 질문이 설해지고 있다. 즉 화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어떤 것이 보살행인가?"라는 등의 29가지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경문에 말하였다.

"신통을 보이고 나서 동쪽으로 열 개의 불찰미진수세계(佛刹微塵數世界)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하여 금색세계요. 부처님 명호는 부동지(不動智)시며 그 세상에 보살이 있으니 이름은 문수사리이다."

여기서 금색세계는 비로자나께서 상주하시는 법계의 중심인 연화장세계를 말하고, 부동지불과 문수사리 등은 일체중생이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本自具足] 근본지이며, 천백억의 화신으로 중생을 교화하시더라도 항상 이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不離菩提樹下]는 뜻일 게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근본지를 상징하는 '지혜제일'의 문수사리와, 후득지(後得智)의 선교방편을 상징하는 '행원제일(行願第一)'의 보현보살로 좌·우보처를 삼는다.

'광경각품(光明覺品)' 제9에서 부처님은 두 발바닥으로 백억의 광명[제3 兩足輪放光]을 놓아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갖가지 차별한 현상을 비춘다. 문수보살은 지혜의 광명으로 평등한 이치를 비추고, 몸의 광명과 지혜의 광명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따라서 진리와 현상이 함께 어우러진 이치를 깨닫게 하였다. 대개 '생각으로 짓는 업[意業]'은 헤아릴 수 없이 자재한 것이므로 이를 '광명'으로 보인 것이다. 게송을 보자.

"중생에게 지혜 없어서 애정가시에 찔려 있으니 저들에게 보리를 닦게 하려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도다. 한 생각에 무량한 세월 두루 살피니 오고 감도 머묾도 없느니 이처럼 삼세의 일을 통달하면 온갖 방편 뛰어넘어 열 가지 힘을 갖추고 성불하리라."

위의 두 게송을 '청량소(淸凉疏)'를 통하여 살펴보자. 첫 게송에서 '애정가시[愛刺]는 보리를 닦을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중생에게는 고통스런 현실이 오히려 삶을 잘 엮어나갈 수 있는 기폭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으리라. 실제로 태풍이나 지진이 많은 이웃 일본이 더욱 발전하고, 홍수나 가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인도나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 세계적인 문명이 생겨나고, 종교가 탄생하지 않았는가? 사바세계에 고통이 없으면 아무도 불교를 믿거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려 할 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고통이 오히려 성불의 촉진제가 되는 것이니, 번뇌를 바꾸어 보리로, 생사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바꾸어야 하리라.

화엄은 '꽃으로 장엄한 화엄의 세계'라 하니, 요즈음의 갖가지 꽃이 세상을 장식하는 이런 시절이 아닐까? 또 사찰마다 갖가지 연등과 팔모등으로 거리와 도량을 장엄하고 있다. 화엄에서는 법계를 화장찰해(華藏刹海)니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라 한다. 이런 시절에 부처님은 탄생하신 것이다. 추운 겨울 배고픈 서민이나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도 그 탄생의 의미가 있겠지만, 대지가 새 봄의 희망으로 가득할 때, 모든 중생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성불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다함께 성불의 등, 희망의 등을 밝히자.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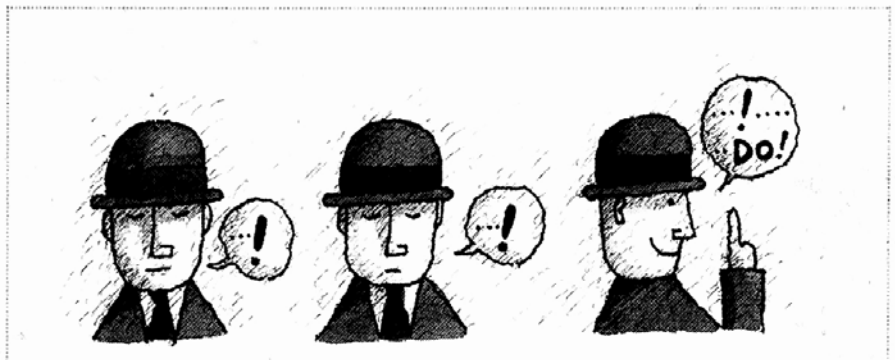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깨친 후 실천 없으면 가짜

불교와 과학 〈24〉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연속적으로 흐른다고 말하고, 눈이 내릴 때 눈송이는 불연속적으로 떨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것은 최소한 원리적으로는 하나, 둘 셀 수가 있지만 연속적인 것은 셀 수가 없다. 수학의 정수는 하나 둘 셀 수 있는 불연속의 단위 수이지만 1/3(0.3333…)처럼 무한소수는 연속의 수를 표현하는 한가지 방식이다. 로봇 기계는 불연속적인 단위 부속품들의 조립물이지만, 인간과 같은 생명체는 내장기관과 뼈마디를 부속품으로 갖는 그런 조립된 기계가 아니라 연속의 유기체이다.

진화의 과정이 연속적임은 이미 이야기했다. 단지 진화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연속의 과정이다. 그런데 굴드(Stephan Jay Gould) 같은 진화생물학자는 한 생물종과 다른 생물 종 사이의 차이를 다윈의 자연선택이라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단속평형설이라는 이론을 내놓았다. 단속평형설은 어떤 생물종은 그것이 종으로서 자기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안정된 생물학적 평형을 유지한다고 하는 말이다. 독자는 이 설명이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쨌든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진화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어떤 과정이 개입된다고 하는 주장이다.

연속의 깨달음

돌발적 눈사태 불연속 과정
닦은 후 깨닫는 점수 연속적

생물학이 아니라 물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론이 있다. 그것은 파국이론(Catastrophie)이다. 이 이론은 개울가 여울에 몰려 있던 잔가지 뭉치들이 어느 순간에 봇물 터지듯 한꺼번에 쓸려 내려가는 모습이며, 어느 우연적인 작은 자극에 의해 눈사태가 한꺼번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기술한 하나의 이론이다. 이러한 자연의 사태들은 분명히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무엇으로 보여진다. 인간의 스트레스 역시 외부 자극에 대해 즉각적인 연속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다가, 그것이 누적되어 외부 자극과 관계없이 한꺼번에 터져 버리는, 그래서 갑자기 혹은 불연속적인 증상으로 여겨지는 일종의 질병이다.

인지 심리학에서는 심리 형성의 과정을 단편적 과거 기억들을 소재로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심리 형성의 과정은 연속적인 그 무엇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외부 자극에 대하여 갖는 인상은 사람마다 그 정도와 강도가 다 다를 것이다. 어떤 아이는 어렸을 적 본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나 어느 배우의 캐릭터가 어른이 되도록 그의 심리 저변에 근저로 놓이는 수도 있다. 어떤 이는 머리 속에서 기하학적 구조를 상상함으로써 갑자기 수학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불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상용어에서 깨닫는다 함은 대부분 깨우침이다. 그런 깨달음은 깨우치고 난 그 이후, 그 깨우침 자체보다는 깨친 대로 실천을 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그럴듯한 깨우침이라도 이후의 실천적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진정한 깨침이 아닐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그래도 우리는 주변 일상사 속에서 이런 것조차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깨닫는 일과 깨달은 후의 일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연속적이지 못하다면 그것은 가짜 깨달음이다.

불교에서는 윤회와 열반이 연속적이라고 지난 연재 가운데서 한번 쓴 적이 있었다. 즉 윤회의 끝이 열반의 시작으로 연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이다. 윤회의 끝이 열반의 끝이 아니라 열반의 시작이라는 점은 불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고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불교의 깨달음의 논의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말하기에는 곤란함이 많다. (첫째) 세간의 언어로 깨달음을 과연 제대로 그려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며, (둘째) 아울러 깨달음의 문제를 깨달음에 근처도 못 가본 내가 쓸 자격이 없다는 점과, (셋째) 더불어, 깨달음에 대하여 여러 훌륭한 선승들이 해 놓은 실천언어에 대하여 덧붙여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깨닫는 과정은 무엇인가? 돈오인가 아니면 점수인가. 이는 보조국사 이후 깨달음을 찾아가려는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앞서 말한 파국론에 유비시켜, 깨달음이란 깨닫게 된 개인의 체험의 연속상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돈오는 그 연속이 누적되었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경우일 수 있고, 점수는 그 체험이라는 연속의 끈에서 깨달음의 동아리를 쥔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돈오는 마치 불연속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점수는 연속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깨달음 이후의 실천을 중시한다는 점을 먼저 깨닫는 것이 세간인의 지표라고 생각한다.

▩최종덕/상지대 교수(jdchoi@chiak.sangji.ac.kr)

잠자는 검은 대륙 자비의 광명 비춘다

지구촌 불교 / 남아共 사찰불사

건축 기금을 모으고, 반발하는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며 사찰을 짓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캐나다의 불자들이 화제다. 두 나라의 사찰 건립 과정을 조명한 미국의 불교시사 월간지 '트라이시클' 지에 따르면, 두 나라에서 보여준 보시와 화합의 정신은 법당이 세워지기도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본보기라는 것이다.

남아공의 브론츨스트스피리트에 세워지고 있는 대만계 사찰은 우선 건축 부지만 80여 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다. 2003년 완공될 이 사찰은, 처음에는 1천 400여 명에 달하는 대만계 이민 1·2세대의 원력에서 출발했다. 이후 "사찰 건립을 통해 검은 대륙에 부처님의 광명을 비추고, 이민 사회의 유대와 협력을 꾀하겠다"는 그들의 소망이 본국(대만)에 알려지면서 국경을 초월한 모금 운동으로까지 번졌다. 모금액은 사찰을 짓는 데 충분한 100여 억 원에 이른다.



◇남아공에 들어설 대만계 사찰의 임시법당에서 행선하는 아프리카 스님들.

현재 건축 예정지에서는 기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그 옆으로 사찰건축준비위원회 사무실과 임시 법당, 박물관 등이 세워졌다.

100억 모금 80만평 부지에 절 건립
加선 주민반발 상생 화합으로 극복

남아공의 대만계 사찰 불사와 같이 국내외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캐나다의 피츠버그나 토론트에서는 지역 주민의 반발과 까다롭기만 한 관할 행정 당국을 설득하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피츠버그의 사찰 건립 과정의 불협화음은 지역 신문인 '피츠버그 포스트' 지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이 사찰 불사는 일본불교의 전통을 따르는 코키 로버트 법사에 의해 시작됐는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이에 따라 관할 행정 당국과의 관계도 악화됐다.

당시 주민들은 사찰이 도심 한가운데 들어서면 교통 체증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의 지가(地價)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데 적잖은 우려를 나타내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사찰 건립에 우호적이었던 행정 당국은 준공 검사를 계속 연기하는 등 당초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나 코키 로버트 법사의 꾸준한 설득과 지역 불자들의 캠페인에 힘입어 사찰은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토론토에서도 사찰 건립에 대한 논쟁이 법정의 판결로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토론도 스타' 지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라오스 불자회는 30여 억 원을 들여 사찰 건립 부지로 카렌돈 지구에 20여 만 평방미터의 농토를 구입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이 자연 경관과 캐나다 고유의 전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라오스 불자회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설계도를 수정해 자연 친화적인 사찰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또 사찰에 담길 문화유산을 적극 홍보해 주민들의 반감을 호전시킬 수 있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중구로(2개월 150만원), 유황간장(2개월 50만원), 유황된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의료 법인 효성양방 · 한방병원
총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

불교서적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 737-0695 Fax:02) 737-0696



소리와 색으로의 공(空) 벽면과 천장을 거울효과가 나는 알루미늄 sheet지로 장식하고 여기에 흰색과 붉은색 띠를 이용 '화엄일승법계도'를 그려넣었다.



나(我)를 찾아서(禪房) 문양이 그려진 광목천을 천장과 의자 시트에 씌우고 바닥은 마루를 깔았다. 사진은 특별행사중 하나인 선무도 공연모습.



현실의 버팀목(불교) 점자 <금강경>을 설치하고 형광안료로 점을 찍어 비장애인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선반에는 향나무를 설치해 향냄새가 나도록 배치했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방화'

봉축열차 6월30일까지

봉축열차 주요역 운행시간표

역 명	평 일		토요일		공휴일	
	상일동→방화	방화→상일동	상일동→방화	방화→상일동	상일동→방화	방화→상일동
방화	(12:24) (15:24)	12:31 15:31	(12:34) (15:33) (18:33)	12:39 15:40 18:40	(11:08) (14:08) (17:08)	11:15 14:15 17:15
영등포구청	11:59 14:59	12:56 15:56	12:09 15:08 18:08	13:04 16:05 19:05	10:43 13:43 16:43	11:40 14:40 17:40
충정로	11:44 14:44	13:11 16:11	11:54 14:53 17:53	13:19 16:20 19:20	10:28 13:28 16:28	11:55 14:55 17:55
종로3가	11:38 14:38	13:17 16:17	11:48 14:47 17:47	13:25 16:26 19:26	10:22 13:22 16:22	12:01 15:01 18:01
동대문운동장	11:34 14:34	13:21 16:21	11:44 14:43 17:43	13:29 16:30 19:30	10:18 13:18 16:18	12:05 15:05 18:05
군자	11:19 14:19	13:36 16:36	11:29 14:28 17:28	13:44 16:45 19:45	10:03 13:03 16:03	12:20 15:20 18:20
강동	11:10 14:10	13:44 16:44	11:20 14:19 17:19	13:52 16:53 19:53	09:54 12:54 15:54	12:28 15:28 18:28
상일동	11:01 14:01	(13:54) (16:54)	11:11 14:10 17:10	(14:02) (17:03) (20:03)	09:45 12:45 15:45	(12:38) (15:38) (18:38)

칸칸마다 부처님 세상 … 승객들 환희심

나를 찾아서 떠나는 기차여행'을 담고 운행하는 봉축열차. 낯선 놀라움, 신선한 문화적 충격이었다. 지하철에 불국토가 펼쳐지고 있었다.

4월 10일 오후 12시30분 방화역을 출발하면서부터 선방 칸에서는 봉축열차의 특별이벤트가 시작됐다. "옴~"으로 시작되는 선무도 공연은 조용한 가운데서도 힘이 넘쳐 관람객을 흡입하는 듯했다. 선무도 공연에서 시연자로 나선 어린이 두 명은 단연 인기. 고사리 손으로 펼쳐내는 선무도 동작 하나 하나에 열의가 가득했다.

일부러 봉축열차의 공연을 보기 위해 탄 승객들은 선무도의 호흡법과 무술 시범에 시선을 빼앗긴 채 1시간여를 보냈다. 미처 공연사실을 몰랐던 승객들은 내려서도 흘끔 흘끔 들여다보며 신기해했다. 종종 내려야 할 곳을 놓치고 허둥대는 승객들의 모습도 눈에 보였다. 선무도 공연 중에도 광대분장을 한 운영요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캐릭터 인형을 나눠주고 있었다. 어떤 아주머니들은 광대에게 인형을 한 개 더 달라고 부탁하는 등 동심으로 돌아가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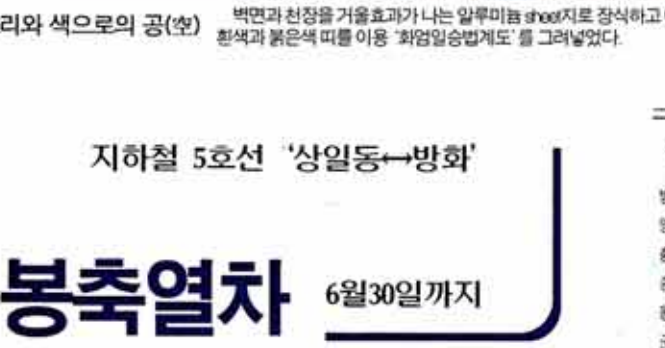
불빛의 환상속으로

봉축열차의 첫번째로 마련된 법계도 칸에 들어서니 우선 아광빛으로 다가오는 법계도 모양이 엄숙함과 더불어 위엄을 나타내고 있었다. 까만 실내에 형광색 선들이 색색으로 빛나고 승객들의 흰 옷이 파르스름하게 빛을 내뿜는다. '소리와 색으로의 공(空)'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법계도 칸은 화엄일승법계도의 모양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현해 내고 있다. 존재의 근원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존재의 충만함을 소리와 색으로 표현한 곳이다. 법계도 칸에 갈 때에는 하얀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하얀 옷에 비춰지는 불빛의 환상에서 문득 자신의 또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까맣고 환상적인 느낌의 법계도 칸을 지나면 하얗고 맑은 세계가 펼쳐진다. '나를 찾아서(禪房)'란 제목다 전혀 낯설지 않을 만큼 단아한 느낌의 구성이 돋보이는 곳이다. 산사 깊숙이 마련되어 있는 선방에 들어선 것처럼 발우가 올려져 있고 한지로 발라진 벽은 향냄새를 머금고 있는 듯 하다. 순간 화두에 들어 삼매에 빠져든 수행승이 되어본다. 각박한 현대인들에게 잃어버린 나를 돌아보도록 하는 선방. 마루가 깔린 정적인 느낌의 선방에 들어서면 수다를 떨기보다 잠시라도 입정에 들어 '행주좌와 어묵동정'의 선미(禪味)를 느껴본다면 어떨까.

깊은산 선방에 온듯

선방의 다음 칸으로 가면 경전의 세계가 눈에 들어온다. 참선을 막 마치고 난 다음이라서 더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을 읽으며 선정에 몰두한 나를 접벽에 세우라는 뜻인지도 모른다. 벽면을 수놓은 <금강경>은 눈이 보이지 않는 불자들까지도 한손에 끌어들인다.



◇정연하게 늘어선 발우들 속에도 수행자의 치열한 구도열이 숨쉬고 있다.



인연(因緣)잇기 5000여명의 미아 사진과 정보를 담고 있다. 인연이 다하지 않음에도 헤어짐의 괴로움을 맛보는 이들에게 잃어버린 인연 찾아주기를 한다.



연꽃세상 천장과 창문, 벽면에 여러 재질의 연꽃 조화를 부착하고 바닥과 손잡이는 연꽃문양지를 붙여 승객들이 연꽃밭 속에 들어와 있는 상상이 가능토록 했다.

〈금강경〉 자구 하나하나가 모두 점자로 같이 수놓아져 있는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벽을 더듬다 부처님 말씀을 접하게 된다면 이 또한 환희로움이 아닐까. 이 칸은 '현실의 버팀목(불교)'이란 제목을 달고 있다. 불우한 소수의 현실적 버팀목으로써 불교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인연(因緣)잇기' 테마칸은 온통 사진밭이다. 인연을 잇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옷깃 한번 스치기 위해서 세세생생 윤회의 고리에 걸려 있다는 것이 바로 인연의 깊이다. 그래서 인연잇기 칸에 들어서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이라도 더 돌아보게 된다. 이 칸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진은 미아들의 사진이다. 어디에선가 부모를 그리고 있을 이 아이들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인연잇기요, 선업쌓기인 것이다.

이벤트 계획

날 짜	프로그램	시간
4월24일(화)	선무도	
4월26일(목)	전통음악회	
5월1일(화)	내월전통춤, 선무도	10:00
5월10일(목)	전통음악회	1
5월13일(일)	내월전통춤	14:00
5월22일(화)	선무도	
5월27일(일)	내월전통춤	

미아를 부모품으로

마지막으로 지나는 칸은 연꽃으로 장엄된 '연꽃세상'이다. 연분홍 진분홍 빨강 등 색색의 연꽃이 마루에서부터 천정까지 온통 눈을 시리게 한다. 손잡이까지 연꽃벽지로 휘감겨 꽃밭에 들어서 있는 느낌이다. 조명마저도 핑크색이다. 아이와 같이 나들이 나온 일부 승객들은 연꽃방에서 사진을 찍고 즐거워한다.

방화에서 상일동까지 다시 상일동에서 광화문까지 두시간여를 봉축열차에서 보냈는데도 지루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앞으로 전통음악 연주회, 네팔 전통춤 공연, 즉석 사진 촬영 등의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봉축열차. 하지만 그 열차는 지금의 우리들이 부처를 이루는 것을 다짐하는 서원의 법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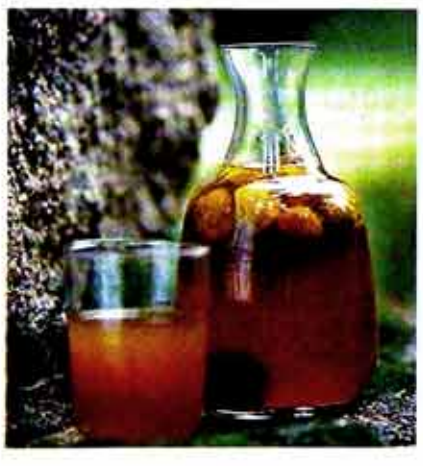
글=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매실엑기스



봄철 호흡기 질환에 효과

매년 봄이 되면 만주대륙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피해를 입고 있다. 올해도 황사 현상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 농작물의 피해가 막심하다. 하지만 황사가 늘 우리에게 시련만을 준 것은 아니다.

1624년(인조 2년) 당시 평안병사 이괄이 난을 일으켜 인조는 공주로 피난을 가야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도성에 입성한 이괄은 선조의 10째 아들 흥안군을 새 왕으로 추대했다. 당파싸움에 뜻이 든 관군 연합은 서로 힘을 모으지 못했다. 방어사 정충신(鄭忠信) 장군은 반란군의 전세를 살피기 위해 북악에서 부암동으로 내려오던 중 어린 사미승 2명이 노는 모습이 보였다. 깜짝 놀란 정충신이 "어서 이곳을 피하시오. 잠시 후면 전투가 시작될 게요"라며 소리쳐도 사미승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정충신이 큰 소리로 사미승들을 꾸짖자 "우리 스승이 말씀하신 그 미련한 정충신이 아닌가. 그대는 서풍(西風)도 모르거늘 왜 우릴 미련하다 하는가"하며 도망쳤다. 악이 오른 정충신 장군이 사미승을 잡으려고 비탈길을 올랐는데 정상에 서고 보니 지금의 무악산이었다. 그곳에서 정충신은 서풍(西風)의 의미를 깨달았다. '부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며 밤새 관군을 무악재로 이동시켜 도성을 내려다보자 이에 위기를 느낀 이괄이 먼저 공격해왔다.

지금의 적십자 병원터에서 벌어진 관군과 반란군의 일대 격전. 오전에 불던 동풍이 사시가 지나면서 서풍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흙먼지가 가득한 황사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바람 덕분에 관군은 승세를 잡고 이괄의 난을 평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해는 전염병이 창궐했다. 요즘의 독감 같은 것인데 고열이 수반된 이 병에는 불에 구운 매실이 효험이 있었다. 하지만 이괄의 난이 일어난 그 해에는 매실까지 흉작이어서 이래저래 백성들의 고통이 깊었던 시절이었다. 봄철 호흡기질환에 매실 엑기스나 매실차는 아주 유용하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황매실, 황설탕

요리법 ① 매실육을 씨와 분리하고 매실을 곱게 갈아 즙을 낸다.
② 은근한 불에 약 5시간 이상 졸인다.
④ 식힌 다음 밀봉하여 뜨거운 물이나 찬물에 타서 먹는다.

효능 ① 심장을 안정시키며 반신마비를 치료한다.
② 갈증과 담을 없애주고 학질과 토역광란에 좋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㉘

不知空本無空 唯是如來圓覺明淨之心
부지공본무공 유시여래원각명정지심
同處空通法界 該衆生心 無間斷處
동허공변법계 해중생심 무간단처
一切衆生 無明分別之心
일체중생 무명분별지심
當處處明 與十方諸佛 同一智海
당처허명 여시방제불 동일지해
同一法性 秖爲衆生 終日其中行履
동일법성 지위중생 종일기중행리
而自背負恩德耳 不知斯旨者
이자배부은덕이 부지사지자
以執吝貪着之心 求佛境界
이집인탐착지심 구불경계
如將方木 逗圓孔也
여장방목 두원공야

공(空)이라 하지만 본래 공이란 것도 없다. 단지 여래의 밝고 청정하게 깨달은 마음이 허공처럼 법계에 가득하여 끊임없이 중생심을 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일체 중생의 무명분별심(無明分別心)도 그 자체는 비고 밝아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와 동일한 지혜의 바다이며, 동일한 법성이다. 다만 중생들이 종일 그 가운데서 살면서도 스스로 그 은덕을 저버리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집착하는 마음으로 부처의 세계를 구하는 것이니, 마치 모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맞추려는 것과 같다.

或有行者 稟性浮僞 聞此心法
혹유행자 품성부위 문차심법
信樂修習 然得小爲足 不可決擇
신락수습 연득소위족 불가결택
知見未圓 全恃本性 不修萬行 亦
지견미원 전시본성 불수만행 역
不求淨土 見求生者 而生輕慢
불구정토 견구생자 이생경만 、
此上二人 於佛法中 不善用心
차상이인 어불법중 불선용심
多有滯障 可悲可痛也 若是最下根人
다유체장 가비가통야 약시최하근인
盲無慧目 而知稱佛號則歎其希有
맹무혜목 이지칭불호즉탄기희유
豈以不知佛意修行 爲過哉
기이부지불의수행 위과재

어떤 수행자는 성질이 들뜨고 허황된 사람도 있어, 심법에 대해 듣고는 그대로 믿고 수행하지마는 작은 것에 만족하여 더 큰 세계를 선택하지 못한다. 그러니 지견(知見)이 원만하지 못하여 단지 자기 본성만 믿고 만행(萬行)을 닦지 않으며, 또한 정토(淨土)를 구하지 않고 왕생을 구하는 사람을 보면 업신여기는 마음을 낸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은 불법(佛法) 안에서 마음을 쓸 줄 모르니 많은 장애가 있게 되니 참으로 원통한 일이다. 만약 아주 낮은 근기의 사람으로서 지혜의 눈은 없다 해도 부처의 명호를 부르며 희유(希有)함을 찬탄할 줄 안다면 이 어찌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수행한다 하여 허물할 수 있겠는가.

본성만 믿고 萬行을 닦지 않으면
많은 장애가 생겨 참으로 원통

或有行者 專精不亂 能調妄想
혹유행자 전정불란 능조망상
不被惑障 梵行成建 此人初從事行
불피혹장 범행성건 차인초종사행
感應道交 終入唯心三昧故
감응교도 종입유심삼매고
亦是善知佛意者也
역시선지불의자야

또 어떤 수행자는 기질이 굳고 크며 감정도 깊다. 이런 사람이 심법을 들으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러나 일단 부처의 백호광(白毫光)을 관하거나 범자(梵字)를 관하거나 경전을 외거나 염불을 하라 하면 이런 수행에는 산란함이 없이 정신을 집중시킨다. 그래서 망상을 다스리며 번뇌의 장애를 받지 않고 청정한 범행(梵行)을 이룬다.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도(道)와 서로 감응하여 끝내는 마음의 삼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라 하겠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가까이서 뵌 큰스님

종성스님

임제선원 조실

알음알이 놓음이 선문 철칙

해지기 전에 아주 잠깐
담벼락에 기대섰다 떠나간 나무 그림자처럼

出家한 사람을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

풀더미 속에 앉아 풀더미가 되어버린 집
문짝이 떨어지고 지붕에 별 비가 새고

텅 빈 집, 바람만 와서 자고 가는

섬광 같은, 달빛같이 사는
(이성선 詩 '출가' 전문)

설악산 시인 이성선이 느닷없이 출가한 사람을 찾는다. 웬 연유일까? 시인이 찾고 있는 '지붕에 별 비가 새고, 바람만 와서 자고 가는' 곳에서 '섬광 같은, 달빛같이 사는' 출가인은 어디에 있는가?

서울의 담벼락에도 개나리가 노랗게 핀 4월의 한날 서울 봉천동 임제선원 조실 종성스님을 찾았다. 주택가 2층집, 열댓 평 남짓한 마루가 법당이다. 예서 인근의 서울대 교수들과 법조인들이 모여 법담을 나누고 좌선삼매에 든다. 번듯한 절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곳은 문짝이 떨어지고 지붕에 별 비가 새는 집이다.

"그 동안 바빴지?" 오랜만에 들르는 기자를 나무라듯 반긴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스님도 몸고생을 꽤 했다. 신경성 위궤양으로 이십일을 병원에서 보냈다. "이젠 괜찮아"하며 손사래를 치는 뒤로 성철 · 향곡 · 서암 스님이 앉아 파안대소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눈길을 끈다.

얼마 전 성철스님의 생가를 복원하여 준공한 겁외사 얘기를 꺼냈더니 "준공 법회에 원로 대덕스님들이 모였다 하는데, 그러한 자리라면 무엇보다도 평소 성철스님께서 역설하신 유지를 받들어서 부처님 만세정법의 표준을 세우는 중대한 일들을 논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노선승의 근황은, 정체성 상실 위기에 처한 조계종이 대한 걱정이다. 그러니 성철스님이 떠난 빈자리가 더욱 커 보인다.

"우리 조계 후학들이 성철스님을 존경하는 참다운 의미는 부처님의 골수 심법(心法)인 조사가풍을 부흥하기 위해 일생을 실참증오를 통한 이론과 실지를 밝히신 희대의 정안종사(正眼宗師)로서 말세의 후학들에게 방황하지 않고 부처님 정법을 따라서 부지런히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데 있습니다."

마음공부의 핵심생명이라 할 수 있는 종지(宗旨)와, 마음공부의 올바른 계보라 할 수 있는 종통(宗統)과, 마음공부의 올바른 사표라 할 수 있는 종조(宗祖) 문제에 있어서 근래 한국불교 조계선종사상 성철스님만큼 분명하고도 올바른 이론을 세우신 분은 없다는 설명이다.

"그 분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수행의 가풍을 세우고 법도를 세우는 것이 진정으로 스님의 뜻을 잇는 길인데, 요즘 안목이 없는 납자들과 학자들이 분별망식으로 종지, 종통, 종조 문제에 대하여 제멋대로 떠들어대고 있어요. 오히려 종단에서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노선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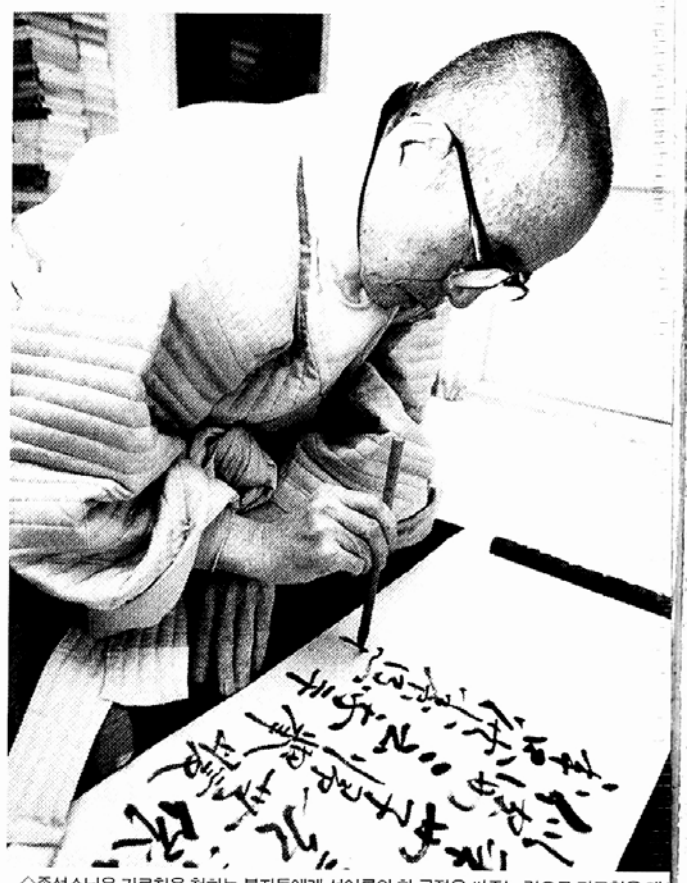
"종지를 밝히고 종조의 종통을 계승하여 대중의 바른 안목이 되어야 할 총림의 방장이나 조실까지도 바른 안목이 없는 대중들이 이 세력을 결집하여 아무나 선출해 버리는 현상까지 비일비재한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불조의 정법혜명(正法慧命)을 단절해버리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봉천동 주택가 2층집
열댓평 마루가 법당
교수 · 법조인 법담
좌선삼매 드는 곳

불법은 대중들의 견해보다 눈밝은 정안종사의 법으로 면면히 이어져왔다. 법을 잇는 중대사는 대중들의 숫자로 가름하지 않았다. 구봉스님의 일화(九峯不肯;구봉스님이 긍정치 않음)는 이 같은 불교만의 독특한 가풍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원 행사(靑原行思) 스님의 4세손에 석상 경저(石霜慶諸) 스님이 계셨는데, 석상칠거(石霜七去)라는 화두로 유명한 스님이다. 즉, 휴거(休去), 헐거(歇去), 냉추추거(冷湫湫去), 일조백련거(一條白練去), 고목한회거(枯木寒灰去), 일념만년거(一念萬年去), 고묘향로거(古廟香爐去)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석상스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회상의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떠나시니 그 때 대중들이 회상의 부조실로 있던 수좌를 조실로 추대했다. 그러나 당시 석상스님의 시봉 제자였던 구봉스님만이 이 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성스님은 가르침을 청하는 불자들에게 선어록의 한 구절을 써주는 것으로 가르침을 대신하기도 한다.

구봉스님이 그 수좌에게 물었다. "선사스님께서 말씀하신 '쉬어 가고, 쉬어 가며, 한 가닥 흰 실을 길게 펴듯 하며, 한 생각이 만년 가듯 하며, 마른 나무와 찬 재처럼 가며, 옛 사당에 향로처럼 가라' 하신 칠거 법문이 무슨 뜻인지 말해보라."

이에 그 수좌가 "명일색변사(明一色邊事;한결같이 순일무잡한 경지를 밝힌 도리)"라고 답했다.

구봉스님이 말하되, "그것은 선사의 뜻이 아니다" 하고 그 수좌를 대중의 의사와는 다르게 오직 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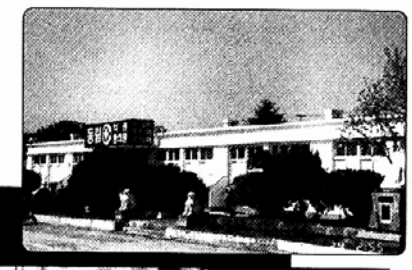
이에 그 수좌는 향 한줄기가 타는 동안 좌탈(座脫)하여 생사에 자유자재함을 보였으나, 구봉스님은 그 수좌의 등을 두드리며 "앉아 죽고 서서 죽는 일은 능하지만 우리 스님의 도리는 꿈 속에서도 보지 못했도다"고 끝내 긍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불조의 정법은 죽고 살기를 마음대로 하는 고참수좌의 공부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하물며 이 도리를 세우고 논하는 데 있어서 어찌 분별망정(分別妄情이 죽 끓듯 하는 대중의 구미대로 결정할 일이겠습니까? 예로부터 승단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집된 대중의 뜻이라 하더라도 정(正)과 사(邪)를 종사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법문중의 독특한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총림 선방의 방장과 조실의 책임은 방(棒)과 할(喝)로써 대중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올바른 공부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철스님께서도 생시에 〈선문정로(禪門正路)〉 〈본지풍광(本地風光)〉 〈한국불교의 법맥〉의 3대 명저를 친히 저술하시고 문도

가정에서 환자를 잘 봉양 할 수 없는
가족을 위한 희소식!!!

중풍! 치매!


■ 병원 전경


■ 병원 내부 복도

정성껏 간호하고
내 가족처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전원같은 이곳에서
가족 모든분들께
행복을 안겨 드립니다.


■ 환자 치료

정성을 다하는 병원
동림한방병원
대표전화 : 054-338-6100 / 휴대폰 : 011-829-6979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 2001년 3·4월호
불교와 문화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kbpf.org

인터넷이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쌍방향이 서로 교류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장인만큼 『불교와문화』도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에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특별기고 - 제3의 수행법, 이렇게 생각한다

지난 호에 〈불교에서 보는 제3의 수행법, 왜 문제인가〉라는 글이 나간 후 이 문제가 불교 정체성 문제로 확대되며 갖가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단순한 비방이나 자기 이해 변론에 그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다시 이 문제를 생각해본다.

① 화두선 수행자가 본 제3의 수행법의 문제점 / 상묵 스님(무불선원 원장)
② 이제는 종단이나 선방의 스님들이 말할 때다 / 진현종(불교저술가)
③ 제3의 수행법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 / 박상필(불교방송 포교제작팀장)
④ 제3의 수행법은 필연적인 후세 / 동준 스님(목포 길상사 주지)



컬러화보
사진으로 보는 - 인도 스리링카의 불교 의식구

성낙주의 문화재 소설 제1편 - 석굴암 아난 존자편
'미타의 사랑'



우리 문화재의 참가치를 일깨우고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깊이있는 성찰을 통해 이를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우리의 언어로 복원해 낸다는 취지로 연재되는 문화재를 소재로 한 우화. 문화재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는 우리시대 소설가, 성낙주 선생이 쓰는 문화재 소설!

특집 한글대장경 완간의 의미와 발전적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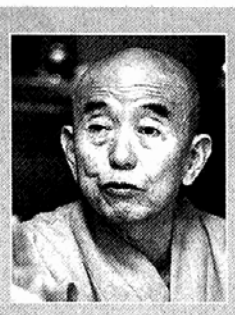
한국 불교사에서 한글대장경 완간이 갖는 의미를 알아본다. 또한 2001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전개되는 한글대장경 개역 및 전산화 작업을 앞두고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역경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전적 비판의 장을 마련하였다.

① 한글대장경 발원에서 완간까지 / 최철환
② 절반의 성공, 한글대장경의 과제 / 김도영
③ 한글대장경의 개편 및 전산화 작업 어떻게 하나 / 편집부

지상중계 - 2000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오싱젠(高行健)의 수상강연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 (02) 719-2606, 팩스 : (02) 719-5052 인터넷 홈페이지 : www.kbpf.org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

종성스님은



마음이 우주만유와 유정 무정의 근본인가, 초목와석과 산하대지가 방광설법(放光說法)을 하고 있는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출가 전 종성스님의 화두였다. 어느 날 〈선가귀감〉의 "이 마음은 텅 비어서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고, 죽어서 깜깜하지 않고 초롱초롱 살아 있다(空寂靈知 惺惺寂寂)"는 구절을 읽고 크게 놀랐다. 내소사 서래선림에 주석하고 계신 해안스님을 시봉하다 37세 되던 해인 1968년 현 고불총림 방장인 서옹스님을 은사로 본격적인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

70년대 초 서옹스님이 조계종 5대 종정으로 계실 때 시봉하기도 했으나, "참선하는 사람은 일단 선지식을 만나 화두견처를 인정받지 못하면 옳다고 인정받을 때까지 줄곧 떠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해야 할 것이며, 공부가 익기 전에는 돌아다니지 말라"는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하고 있다. 92년 서옹스님으로부터 "부처님의 정법을 제산장실(濟山丈室:제산은 종성스님의 법호)에게 부촉하노라"라는 전법게를 받았다. 10여 년 전부터 봉천동 관악산 기슭에 임제선원을 열어 수행에 전념함과 동시에 길을 묻는 이들을 제접하고 계신다.



◇79년 은사인 서옹스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했다. 맨 뒷줄 왼쪽이 종성스님.

들에게 이르시되 '선문의 생명인 종지, 종통, 종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대로만 따라서 공부하면 된다' 고 하셨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조계선종의 종지, 종통, 종조를 확립하는 바른 길은 성철스님이 세우신 이론에 추호도 이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정안종사(正眼宗師)의 필생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우리 전 조계종도들은 그 유지를 겸허하게 받들어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 시급한 본분사입니다."

출가 이후 줄곧 30여년을 오로지 화두선 수행에 전념하고 계신 종성스님의 눈길이 창 밖으로 향했다. 잠시 후 시봉인 법현스님에게 〈종문십규론(宗門十規論)〉을 찾아오라고 일렀다. 책을 펼쳐들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읽어나갔다. "요즈음 사람들이 마음이 오만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바가 많아서 총림에 비록 들어와서도 참구에 게으르고, 더러는 참구할 마음을 가지기는 해도 눈밝은 종사를 택하지 않고 삿된 스승의 그릇된 지도를 받아 함께 바른 법의 뜻을 잃어버리는지라, 육근 육진에 얽매임도 벗어나지 못하고서 번번이 삿된 알음알이로 마구니의 세계로 들어가서 정법의 인연을 전부 잃어버리도다. 오직 주지직(방장)에 급급하여 외람되게 선지식을 자칭하여 헛된 이름으로써 상사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니 죄악이 몸에 배어듦을 말할 것이 있으리요. 이것은 뒷사람들을 눈멀고 귀먹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법의 교풍을 시들어 없어지도록 억압하는 것이다. …"

법안종의 개창 조사인 법안스님이 일찍이 〈종문십규론(宗門十規論)〉을 통해 오늘의 현실을 경책한 것은 아니었을까.

침묵이 길어졌다. 말없이 옆에 앉아 있던, 노심초사하는 스님의 심중을 잘 알고 있는 법현스님이 거들었다.

"군맹무상(群盲撫象:여러 장님들이 코끼리를 말함)이지요. 여덟 장님의 구구한 의견이 어찌 눈밝은 한 사람의 정견(正見)을 당하겠는가, 하는 말씀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 사자후보살품에서 이르시길, "심안(心眼)이 열리지 못한 중생이 불성(佛性)을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마치 여덟 사람의 장님이 코끼리를 제각기 만져보고서 그 모양을 쟁논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혹자는 상아를 붙잡고 코끼리를 무쁘리 같다고 말하며, 혹자는 귀를 붙잡고서 코끼리는 화살통과 같이 생겼다고 말하며, 혹자는 머리를 붙잡고서 코끼리는 차돌 같다고 말하며, 혹자는 코를 잡고서 코끼리는 절구공이 같다고 말하며, 혹자는 다리를 잡고서 코끼리는 절구통 같다고 말하며, 혹자는 등을 만져 보고서 코끼리는 평상 같다고 말하며, 혹자는 배를 만져보고서 코끼리는 단지 같다고 말하며, 혹자는 꼬리를 만져보고서 코끼리는 노끈과 같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이들 모두는 어느 누구도 코끼리의 본래 모습을 바르게 보고 말한 것이 아님을 비유로 설하신 것입니다."

> "주지자리 급급하여 선지식 자칭하니 죄악이 몸에 배어들고 뒷사람 눈 귀 멀게"

화제를 돌렸다. "요즈음 마음수련원이다, 아봐타니 해서 새로운 수행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스님의 답변은 단호했다. "자기의 성성적적(惺惺寂寂)한 본래 마음자리에서 오직 화두만 들고 나가야지 침공체적(沈空滯寂)의 선정주의(禪定主義)나 능소대립(能所對立)의 소승관법 따위로 오도하는 할안(瞎眼)의 돌팔이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 사야다 존자와 바수반두 존자의 일화를 소개했다.

불조 전등 21조 바수반두 존자가 20조 사야다 존자를 만나기 전에 두루 수행을 하되 하루 한 끼만 먹고 눕지 않으며, 하루 여섯 때로 부처님께 예불을 하며, 욕심이 없이 청정한 수행을 하니 승속을 막론하고 많은 대중들이 모여들어 귀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20조 사야다 존자가 장차 반수반두의 어리석음을 제도하시고자 그 문도들에게 물었다. "이 두루 고행을 하는 중놈이 능히 천상에 나는 수행을 하고 있으니 가히 불도를 얻을 수 있으랴?"

바수반두의 문도들이 되물었다. "우리 스승의 정진이 이와 같이 훌륭하거늘 어째서 옳지 않다 하십니까?"

"너희 스승은 도와는 아주 머니라. 설사 미진겁이 지나도록 고행을 해도 모두가 허망한 근본이니라."

그 문도들이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안색이 변하며 큰 소리로 사야다존자에게 "존자는 무슨 덕행을 쌓았기에 우리 스승을 나무라십니까?" 하고 물러서지 않았다.

사야다 존자가 말했다. "나는 도를 구하는 마음이 없되 또한 전도(顚倒)된 마음이 없고, 나는 예불하지 않되 또한 경만한 마음이 없고, 나는 길게 좌선하지 않되 또한 게으른 마음이 없고, 나는 꼭 하루 한 끼만 먹는 것은 아니로되 또한 잡된 마음으로 먹지 않고, 나는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없되 또한 탐욕을 일으키는 마음도 없으니 마음 속에 추호라도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을 진여일심의 도라 하느니라." 바수반두가 이 법문을 듣고서 비로소 번뇌가 일어남이 없는 본래 마음자리의 지혜를 깨달았다.

"대중들의 깜깜무지한 안목으로 볼 때는 바수반두의 고행을 정법으로 알고 모여들었지만, 만약 사야다 존자 한 사람의 정안(正眼)이 아니었던들 바수반두와 그 추종자들은 영원히 허망한 근본에 떨어져 불조의 증득하신 진여일심의 대도는 성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알기 어려운 정전(正傳)의 심법(心法)인 바 여기에 이르러서 눈밝은 선지식 스님을 표준삼아 공부하지 않고 어리석게 자기 주장을 하며 패거리를 조성하여 거짓말로써 중생들을 속이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비방한다면 진사겁토록 혀를 빼서 땅을 가는 지옥고를 면치 못할 것임을 조사스님들은 경계를 하셨으니 참으로 그 죄보는 무서운 것입니다."

공부인에게 탁마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게송 한 수를 부탁드렸다.

"승려가 됐던지 학자가 됐던지 선을 논하고 싶으면, '이 문안에 들어와서는 지해(知解)를 두지 말라(入此門內莫存知解)' 는 것이 선문의 철칙임을 알고 먼저 부지런히 화두부터 참구하여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道得也三十棒 道不得也三十棒
如何是三十棒 喝!

(말해도 삼십방이요, 말하지 않아도 삼십방이니, 이 삼십방이 무엇이냐? 악!)"

글=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 현진스님

현진 스님은 10대 중반에 전남 해남 대흥사로 출가하였다. 출가이래 30 여년 동안 좌복 위에서 화두 참구만을 올곧게 해온 수좌 중의 진국이다. '현진' 이라는 법명을 쓰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호를 '노은(老隱)' 이라고 하는데 도반들은 속명인 만수라는 호칭으로 많이 부른다. 도반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주지도 하고 상좌도 두라고 하면 무슨 객적은 소리냐고 화를 내며 말도 못 붙이게 한다. 주지나 상좌가 수행에 무슨 보탬이 되냐는 것이다. 몸뚱이 하나 지탱하고 수행하기도 바쁜데 또 다른 업을 지어서 번거로움을 더한다면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다.

근래에 상당수의 스님들까지도 전통적인 불교 수행과는 상관도 없는 별의별 잡되고 삿된 행법들을 어설프게 익혀가지고 최상의 수행법인 양 기만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는다. "무슨 기공이니, 관법이니, 활법이니 하며 설치는 놈들부터 시작하여 남방선이다, 티베트선이다, 요가 수행이다, 심령술이다 하여 온갖 잡것들이 요사비사한 말로 현혹시키며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만약 이대로 가다가는 수좌들마저 수행관이 제각각이 되어 어지러워진다면, 장차 한국불교는 지난 수십년 동안 겪은 종단분규보다 더 심각한 질곡에 빠지게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30여년 올곧게 화두참선 효심 지극하고 진솔한 선승

현진 스님은 수년전 제주도 난곡선원의 무문관에서 정진했었다. 그때 스님의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부음을 알리느냐 마느냐로 도반들이 고민을 했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알려야 되겠지만 생사해탈을 위해 목숨 걸어놓고 정진하는데 우리가 그 선정을 깨서야 되겠느냐 하여 결국 알리지 않았다. 장례 기간 내내 현진 스님의 속가 친지들이 스님의 행방에 대한 물어왔지만 연락이 안된다고만 대답했다. 사십구재도 청량사에서 도반들이 모셨다.

현진 스님은 모친에 대한 정이 남다른 사람이다. 가끔씩 그는 "우리 오보살님 젖을 12살 때까지 먹었어"하며 향수에 젖기도 했다. 1년 후 무문관에서 해제를 하고 나오고서야 모친이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었다. 도반들에게야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그 아픈 마음이야 오죽 했겠는가.

2년전 인도의 부다가야에서 현진, 합현, 원타스님 등과 함께 정진을 했었다. 인도에서 결제에 들어가기 전 파키스탄의 간다라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실크로드를 따라 불교유적지를 답사했다. 중국의 돈황과 티베트의 라사를 경유하여 네팔, 스리랑카와 인도 여행을 했다. 부다가야에서 동안거 결제를 마치고 또다시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를 한달동안 트래킹했는데, 그때 현진 스님의 놀랍고도 감동스런 모습을 보게되었다. 한국을 떠나 이듬해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한시도 돌아가신 모친의 왕생극락 발원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들리는 사원마다, 전각마다 모든 불상과 불탑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모친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히말라야 산중에는 옴마니반메훔 이라고 쓴 원통이 마을 입구 길 양편으로 줄지어 세워져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으로 돌리면서 기도를 하게되어 있다. 스님은 지나는 마을마다 매번 원통을 돌리며 발원했다.

해인사는 결제때가 되면 매달 음력 보름날과 그믐날 포살법문을 한다. 한 25년 전 포살법문 때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율주이던 일타 스님께서 포살법문을 하셨는데 낭랑한 목소리로 물 흘러가듯 계를 설해 그 모습만 보아도 잠시 해이해졌던 마음이 저절로 추스려졌고 새로운 신심이 솟곤 했다. 하안거 결제 포살법문을 듣기 위하여 수백 대중이 대적광전에 가득히 운집하였다. 이때 율주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여기 모인 대중이 청정합니까?" (3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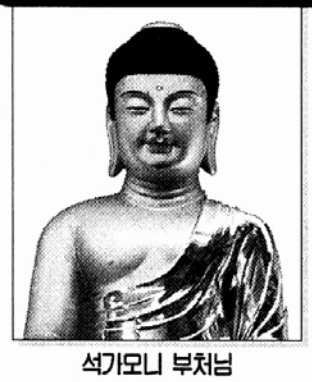
이에 대해 아무 대답이 없으면 대중이 묵연한 연고로 청정한 줄 알고 내가 계를 설할 것이니 잘 받아 지닐지니라 하고는 목차에 따라 계를 설하게 된다.

그런데 그날 율주 스님께서 "여기 모인 대중이 청정합니까?" "여기 모인 대중이 청정합니까?" 하고 두번째 물었을 때 갓 스물 된 수좌 하나가 일어서면서 "여기 청정하지 못한 비구가 있습니다" 했다. 바로 선원에서 정진하던 현진 스님이었다. 율주스님께서 "청정하지 못한 비구는 발로 참회 하시오"하자, 현진 스님은 청정하지 못한 이유로, 목욕하는 날 마을에 내려가서 술과 고기를 먹고 여자의 손도 잡았다면서 참회했다. 율주 스님은 내가 20여 년간 포살계를 설했지만 오늘처럼 그 죄를 발로참회하는 수좌는 처음 보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율주 스님이 어린 수좌에게 당했다(?)며 후일담이 재미를 더하였다.

달밤이면 술 생각이 곡우 날 나무에 물오르듯 한다며 술병을 통째로 비우고도 밤새도록 좌복에 앉아 정진을 하는 선승. 사이비 수행자들이 사이비 수행관을 최상승 수행인 것처럼 판치는 요즘 세태에 분노하는 선승. 섬세한 감성과 지극한 효성을 가진 담백하고도 진솔한 선승이 바로 현진 스님이다. ▩ 정취암 주지

청동불상 제작 전문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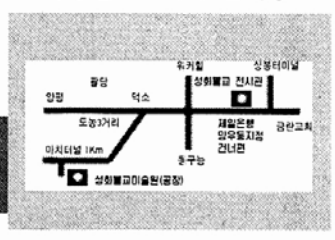

관음 보살님

청동 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탱화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주 · 야 상담합니다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1층)
성화불교전시관 · 성화불교미술원
전시관 : 02)2209-0080, 0081
공장 : 031)591-1022 핸드폰 : 011)302-1022

진성 석재 예술원

귀의 삼보하옵니다.
玉 전문 불사 업체 '진성 석재 예술원' 이
사부대중과 대덕스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진성석재 예술원' 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옥에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대한민국 명장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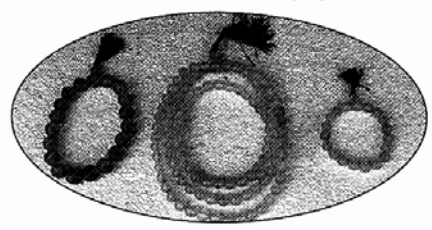

청 옥


백 옥


황 옥


장수거북(청옥·화옥)


두꺼비(청옥·화옥)


단주 · 16송염주 · 합장주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 이진억 명장 : 이석규)
■ TEL : 031-527-6778 (팩스겸용)
■ H P : 011-9046-6981

※ 순옥 조각제품 주문 제작 환영 ※

5월의 문화인물 보조국사 기념사업 송광사 "다채롭게"


◇보조국사 지눌 스님.

송광사가 5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보조국사 지눌스님 기념 사업'을 전개한다.

송광사는 오는 19일 입재하는 '제791회 보조국사 종재'를 시작으로, 19일~5월 31일까지 송광사 박물관에서 '보조국사 지눌스님 유물유적 특별전', 5월 13일 '학술세미나', 5월 18일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5월 19일~20일 '선체험 문화순례'를 실시한다.

19일부터 열리는 보조국사 유물유적 특별전에는 보조국사 원불 국보 제42호 '목조삼존불감'이 특별 전시된다. 이 삼존불감은 현재 국립문화재문화재연구소에서 보수수리중에 있으며, 전시를 통해 삼존불감의 역사적 미술적 개요와 보존수리의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80여쪽의 특별전 도록도 발간한다.

이은자 기자



◇최완수 간송미술관 학예실장이 석굴암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석굴암으로 초대

EBS 18일, 최완수 씨 강의

책에서 접할 수 없는 석굴암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를 접하고 싶다면 18일 밤 8시30분에 방송되는 EBS-TV '최완수의 우리미술 바로보기, 아! 석굴암'을 눈여겨 보자.

최실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석굴암의 주존을 석가모니불로 선택한 이유, 석가세존이 상주한다는 영취산의 유래, 중국 영취산 자연석굴과 토함산 석굴암 인공석굴의 비교분석 내용 등을 영상자료와 함께 소개해 준다. 또 석굴암이 한국불교 건축미술에 끼친 영향도 곁들여 설명한다. 이외에도 이번 프로에서는 내실과 외실의 2실 구조로 돼 있는 석굴암의 외실을 지키는 호법신장 가운데 사바세계의 주인인 법천왕과 도리천의 천왕인 제석천의 위치가 바뀐 이유가 1913년 중수 때 공사를 맡았던 사람들에 의해 빚어진 실수라는 에피소드도 들려주는 등 다방면에서 석굴암을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불교연극 三色三題

불기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3편의 불교 연극이 관객을 찾아간다.

이윤택 작의 연극 '오구'를 불교적으로 재각색한 '오구대왕풀이', 불교개혁가 독립운동가로서의 만해스님의 삶과 사상을 현대적으로 되살려 낸 '끽다거-연꽃의 노래', 현대인의 방황과 사랑을 미황사를 배경으로 구성해 낸 '나비는 천년을 꿈꾼다' 등이다.

종교극 '오구대왕 풀이'

23 · 30일 삼광사


◇'오구대왕 풀이'는 연출가 이윤택 씨가 자신의 연극 '오구'를 시왕전의 세계를 빌려 불교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색적인 종교극 '오구대왕풀이'가 23일과 30일 두차례 부산 천태종 삼광사 지관전에서 공연된다.

'오구대왕풀이'는 90년 연희단 거리패에 의해 초연된 이후 9년동안 계속 공연되어 온 화제의 연극 '오구'를 시왕전의 세계를 빌려 불교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연극은 평소 연극이나 문화적인 공연을 통한 포교와 감화에 관심을 두고 있던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죽은 지아비의 극락왕생을 비는 오구굿판을 벌이다 갑자기 '나 갈란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숨을 거둔 황씨 할머니가 저승세계에서 사자의 죄를 심판하는 염라대왕 등 시왕(十王)을 만나 갖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줄거리다. 극중 시왕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의 전통악기 연주와 열두발 상모놀이 등 다양한 공연양식을 선보이며, 극중 동자승과 각설이로 출연하는 배우 정동숙이 시왕 각각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연출가 이씨는 "불교적 생사관을 철저히 이해하고 삶과 죽음의 연속성 속에서 현재를 더욱 소중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이번 연극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051)808-7111

'끽다거 – 연꽃의 노래'

5월 8~10일 인천예술회관


◇'끽다거'는 현실속의 만해 유(有)와 또다른 자아의 상징인 만해 무(無)가 만나면서 극이 전개된다.

극단 '항아리'가 만해스님의 삶과 사상을 현대적으로 그린 연극 '끽다거-연꽃의 노래'는 현실의 만해스님(有)과 상상속의 만해스님(無)이 펼치는 대화로 극적 긴장감을 더하는 작품이다.

만해스님이 입적하기 전 날, 또다른 만해 무(無)가 만해스님을 찾아오며 극이 시작된다. 만해스님의 또다른 자아의 상징인 만해 무를 따라 또다른 두명의 등장인물 마와 여인도 나오는데 이들은 바로 만해스님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집착의 화신들이다.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며 길을 재촉하는 만해 무. 이를 수긍하지 않는 만해스님. 결국 만해 무는 66년의 생을 살아 온 만해스님의 과거를 보여 주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해 깨달음의 궁극적 경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지난 95년 초연된 작품으로 최현묵씨의 희곡에 이재상씨가 연출을 맡았다. 시공간의 초월과 혼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조명과 상징 세트를 사용하고, 또한 자칫 철학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관객들에게 부담없이 전달하기 위해 음악, 합창, 마임 등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요소를 곳곳에 배치했다. 5월 8일~1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선보인다.032)361-2311

'나비는 천년을 꿈꾼다'

5월 6일까지 대학로 소극장


◇'나비는…'은 다양한 소품과 장치를 통해 색다른 연극적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빠르고, 편리하고,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모든 고뇌의 근원은 탐심에 있으며, 버려야만 참으로 얻을 수 있다는 불교적 메시지를 담은 연극 '나비를 천년을 꿈꾼다'는 지난 달 말 서울 대학로에 막을 올린 후 오는 5월 6일까지 공연된다.

극단 떼아뜨르의 작품인 이 연극은 자살을 하기 위해 산사를 찾아간 한 사내가 빠지는 비극적 사랑을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다루었다.

서민들의 애환과 한국적 정서를 감칠맛 나는 대사로 그려낸 바 있는 작가 김태수 특유의 탁월한 언어적 감각으로 사건을 풀기보다는 번뇌와 해탈에 관한 철학적 성찰에 더 중점을 두었다.

연출가 우현주씨는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연극에 색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향냄새, 객석에 깔린 낙엽 등 다양한 이미지 소품과 장치를 사용했다. 극중 배경무대로 등장하는 땅끝마을 미황사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032)373-0258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누구의 신호에 의한 것일까? 앞다투어 피어난 꽃들로 산과 들이 온통 환하다. 역시 '봄'은 '보라'고 봄인가 보다. 봄의 진수는 '보는' 데 있고, 그 대상은 꽃들일 수밖에 없다. 삭막한 겨울 내내 얼마나 기다려온 생명의 약동인가. 자연에 넘치는 봄의 기운은 우리 내면에서도 정신의 꽃을 피워보라고 재촉하는 것 같다.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은 자연이지만, 정신의 세계에선 꽃이 피면 바로 봄이다. 선사(禪師)들은 '늘 봄(四時長春)'이라 했는데, 우리의 내면은 지금 어느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며칠 전 안동을 여행했다. 봉정사 영산암과 하회마을에 들른 뒤, 낙동강이 꽃메(花山)를 휘감아 도는 언덕에 자리한 병산서원에서 잤다. '저녁에 바라보는 경치가 좋은 누각'이라는 뜻을 가진 만대루(晩對樓)에 올라가 앉으니, 앞이 병풍 같이 둘러친 병산(屛山) 위로 달이 둥실 떠올랐다. 이름 그대로 절경이었다. 만대루 뒤편 서원의 뜰에는 매화나무 두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흰 매화 꽃잎에 달빛이 부서져, 문자 그대로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의 정경이 펼쳐졌다. 소금을 확 뿌려놓은 듯 희뿌연 마당에 봄바람이 살랑 불어오니 꽃 그림자가 일렁이면서 매화 향기가 옷 속으로 배어드는 듯했다. 서원에서 하룻밤을 묵으니, 유학자들도 불자 못지 않게 연꽃을 좋아했다는 사실이 퍼오르면서, 주렴계(周濂溪, 1017-1073)의 '연꽃을 사랑하는 이야기(愛蓮說)'가 생각났다.

주렴계의 '애련설'
'속이 통했다' '겉이 꼿꼿하다' 보현의 힘찬 실천력

물 속에서 나는 꽃, 땅 위에서 피는 꽃, 세상에는 사랑할만한 꽃이 너무도 많다. 진나라 도연명은 유독 국화를 사랑했고, 당나라 이래 세상 사람들은 유행처럼 모란을 좋아했다. 그런데 나는, 흙탕 속에서 꽃을 피우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을 사랑한다. 연꽃은 맑은 잔물결에 씻기어도 요염하지 않고, 속은 비어 위아래가 통한 채 겉은 대쪽 같이 꼿꼿하다. 어지러이 덩굴지는 법도 없고, 번잡하게 가지를 치는 법도 없다. 그 향기 멀수록 더욱 맑고, 언제 보아도 그 모습 물 위에 우뚝 깨끗하게 서 있다. 위엄 있는 군자를 우러러보듯 멀리서 볼 수는 있어도, 가까이 접근하여 희롱할 수는 없다….

주자(朱子)로부터 신유학의 개조로 평가받은 주렴계가 연꽃을 유독 사랑했다는 말은 신유학이 불교의 강한 영향 아래 태어났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가 본 연꽃의 핵심적인 면은 '속은 비어 위아래가 통한 채 겉은 대쪽 같이 꼿꼿한(中通外直)' 대롱의 모습이다. '속이 통했다'는 것은 마음이 허공처럼 툴림으로서 문수의 빛나는 지혜를 갖추었다는 뜻이다. '겉이 꼿꼿하다'는 것은 진리에 중심을 잡아 보현의 힘찬 실천력을 갖추었다는 말이다. 정토에 화생한 부처님들이 저마다 자리잡은 연화대는 빛과 힘이 넘치는 꽃자리이다.

■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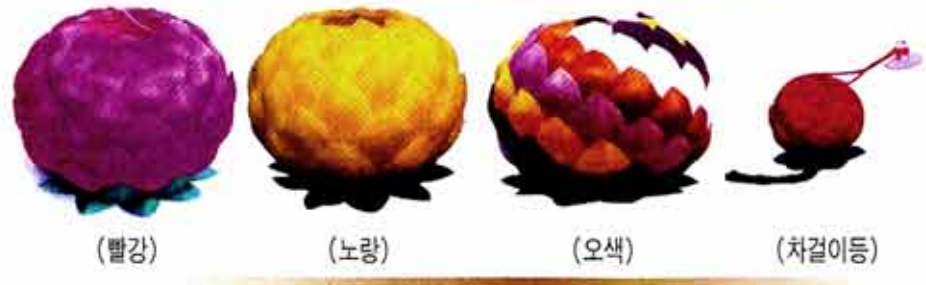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안에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팔모주름등


(빨강)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빨강) (노랑) (오색) (차걸이등)

팔모조립등


(빨강) (노랑) (주련등 빨강) (주련등 노랑)

만월등


(육각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안공원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탈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삶과 죽음 초월한 깨침의 노래

정휴스님 '죽어서 시가 되는 삶이…'



"육체는 내 것이 아니요/ 오온 또한 내 소유가 아니네/ 흰칼이 목에 닿으니/ 오히려 봄바람 자른 것 같네." 〈조론〉을 저술한 중국의 대석학 승조 스님이 죽음에 이르러 토해낸 임종게(臨終偈)다. 육체와 오온이 공합을 일생 동안 느꼈으니 죽음을 맞아 그 느낀 것을 봄바람 자르듯 버리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남을 수 있다는 여유가 느껴진다. 우리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선사들은 오히려 죽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웠다. 생사에서 초연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옛 선사들의 임종게를 짧은 시의 형태로 재구성한 〈죽어서 시(詩)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우리)는 그런 의문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 정휴 스님은 승조 스님의 임종게를 이렇게 평했다. "이른 새벽 나를 부르는 소리에/ 깨어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었다/ 밤새 머물고 있던 어둠이/ 떠나는 소리였고/ 별들이 빛을 거두어/ 하늘로 돌아가는 기척이었다."

별들이 빛을 거두어 돌아가듯 인간도 자성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삶과 죽음을 초탈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른 선사들의 열반송을 오늘의 시어로 되살려 내고 있다. 값 5천원. 김중근 기자

생활이 곧 묘법인 천태사상

이영자 지음 '천태불교학'



중국과 우리나라의 천태불교 성립배경과 전개 그리고 사상체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천태불교학〉(불지사)이 나왔다. 글쓴이는 평생 천태사상을 연구해오다 최근 정년 퇴임한 이영자(전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교수. 그는 이 책에서 천태사상을 반야공관에 기초를 두고 제법실상의 묘리로 전개한 불교 사상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천태불교를 불교사상의 극치라고 말한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여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사고의 정점을 이루는 한편 이론과 실천은 물론 사상까지고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천태의 전개' '한국 천태의 전개'로 구성된 이 책은, 성립배경부터 구조, 사상체계 등을 역사적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화엄불교학 수행법 규명



'화엄오교장'
'화엄종 관행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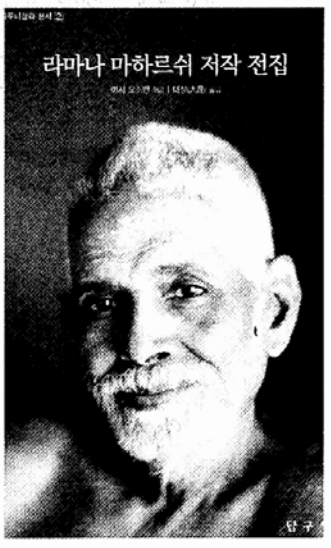
화엄종의 교학·수행체계를 밀도 있게 규명한 연구서가 발간됐다.

조계종 불학연구실은 화엄종의 가르침을 이론과 실천 두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한 불학총서 4권 〈화엄오교장〉과 5권 〈화엄종관행문〉을 내놓았다.

화엄교학의 개설서인 〈화엄오교장〉은 화엄종 제3조인 법장 스님이 저술했으며, 이론적 측면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불교학 개론서로 주해까지 상세하게 달았다. 화엄종관행문에는 '화엄오교지관' '화엄법계관문' '화엄일승십현문' '망진환원관' '오온관' '삼성원융관문' '주화엄법계관문' 등 화엄종의 주요 실천수행법을 하나로 묶었다. 김원우 기자

몸도 마음도 아닌 나는 누구?

'라마나 마하르쉬 저작전집' 대성 스님 옮김



"나는 누구입니까." "일곱 가지 기질로 이루어진 몸은 내가 아닙니다. 소리를 듣고, 감촉을 느끼고, 색을 보고, 맛을 느끼고, 냄새를 맡는 다섯 가지 지식기관은 내가 아닙니다. 말을 하고, 움직이고, 붙잡고, 배설하고, 생식하는 다섯 가지 행위기관은 내가 아닙니다. 호흡 등의 다섯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쁘라나 등 다섯 가지 생명기운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마음조차도 내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 내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들을 모두 '이것도 아니다'라고 부정한 뒤에 단 하나 남는 '나는 존재한다'하는 자각입니다."

육체·마음의 에고 벗으면 순수한 존재 진아 깨달아

'나는 누구인가'하는 물음은 남인도의 성산 아루나찰라의 진인 라마나 마하르쉬(1879~1950)의 주된 자기 탐구법이다.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진아(眞我)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데 주안을 둔다. 간단히 요약하면 사람들이 완전무결한 실재로서의 본성을 망각하고 생사윤회를 거듭하며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육체나 마음을 자기 자신으로 아는 무지(無知) 때문이다. 이 육체가 나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에고를 소멸하면 순수한 존재이자 의식인 자신의 성품, 곧 '진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신간 〈라마나 마하르쉬 저작 전집〉(아서 오즈번 엮음, 대성스님 옮김, 탐구사)은 마하르쉬의 시와 산문 등의 저작을 망라한 것으로 그의 가르침 전반을 살필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그동안 출간된 마하르쉬 책들은 대부분 제자들에 저술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 전집은 마하르쉬가 직접 저술(번역)한 것으로 1931년 인도에서 출간됐다. 영어판은 그의 제자 아서 오즈번에 의해 1959년 간행됐고 우리나라에 완역본으로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은 크게 '창조적 저작'과 '번안과 번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창조적 저작에는 마하르쉬가 처음으로 쓴 저작 '자기탐구'와 '나는 누구인가' '영적인 가르침' 등 초기의 어록들과 그가 자신의 스승으로 삼았던 아루나찰라산에 바치는 '아루나찰라 다섯 찬가', 실재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운문인 '실재사십송(實在四十頌)', 수행과 깨달음을 간결한 언어로 노래한 '가르침의 핵심'이 실려 있다. 이외에도 그가 지은 시(詩)들도 있다. 이 시들은 존재와 개인적 영혼의 합일에 대한 열망과 헌신 그리고 깨달음의 상태에 관한 심원한 철학적 사유들이 마하르쉬의 탁월한 시적 감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육필 시·산문 등 총망라 마하르쉬 저서 결정판

번안과 번역은 마하르쉬의 독창적 저술이라기보다는 그전의 여러 종교적 저작을 그의 모국어인 따밀어로 번역하거나 번안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바가바드 기따〉중에서 핵심적인 구절 42연만 가려 뽑은 '천상의 노래', 힌두경전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번역한 '싸르와 냐놋따라', '데비깔롯따라' 등이 수록돼 있다.

마하르쉬는 이론적 바탕 없이 진아를 깨달았듯이 자신도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도 이론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모두 독자들을 진아지로 향하도록 도우려는 실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 이 책은 마하르쉬와 관련된 책들을 전문적으로 번역해 오고 있는 역자 대성 스님이 독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역주로 보완하고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본문 중의 여러 부분에 대해 다양한 번역을 해 놓아 독서의 편안함을 더해준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자연친화적 상생의 불교관 조명

고영섭 지음 '연기와 자비의 생태학'



자연 환경 생태가 파괴하는 것을 우려하는 한켠에서 그 대안으로 우리의 현실에 바탕을 둔 생태철학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른바 '21세기 제1의 철학은 생태철학'이어야 한다는 움직임이다. 이런 가운데 부처님의 연기론과 보살의 자비행을 중심으로 생태학을 살핀 〈연기와 자비의 생태학〉(연기사)이 나와 주목을 끈다.

이 책을 쓴 고영섭(동국대 강사) 씨는 "불교의 전적에는 생태에 대한 다양한 교설이 설해져 있다. 그런데 그 교설의 궁극적 지향은 모두 중생에 대한 자비의 관점에서 전개된다. 이것은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된 불교 수행자의 삶이며 본래부터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율장에 나오는 생태관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연 친화적인 사유, 즉 생태에 대한 깊은 이해 위에서 수행해 나갈 것을 역설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표적 생태학이라 평가하면서도 그에 대한 단행본이 거의 없는 불교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책은, 이 땅에서 불교생태학의 초석을 쌓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불교의 자연관·생태관·환경관 등 크게 5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글쓴이는 불교의 생태관은 기본적으로 '함께 함', '보살핌', '무소유', '비폭력'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 출발은 보살적 인간상의 제시와 실천이라고 주장한다. 보살적 인간은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선 어떠한 보편적 가르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불교의 생태관은 유정과 무정이 모두 함께 하고, 보살피는 연기와 자비의 관점 위에 선 상생의 생태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라 할 수 있다. 값 6천9백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관음(정만 스님 지음, 우리)= 관음성지 답사기. 강화 보문사, 낙산 홍련암, 남해 보리암 등 3대 관음도량을 비롯해 19곳의 관음 성지를 조명한 책. 으레 '불교성지 답사기'하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책은, 한번 손에 쥐면 최소한 한 사찰의 이야기를 다 읽어야 한 숨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게 읽힌다. 고통받는 중생을 위하여 관음 도량을 열었던 옛 스님들의 간절한 바람과 연기설화 등이 그 재미를 더해준다. 값 9천원.



▲산사의 메아리(원인 스님 지음, 장경각)= 사람은 누구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체제 속에 살고 있다. 과거는 현재를 있게 하고, 미래는 현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늘 과거를 돌이켜 현재를 보아야 하고 미래를 생각하여 현재를 살펴야 한다. 특히 아직 오지 않는 미래는 무지와 무명으로 덮여 있다. 때문에 미래를 밝혀줄 마음의 등불을 지녀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 쓰여진 수필집이다. 값 8천원.



▲숲이라 나무야(임경빈 지음, 다른세상)= 우리 땅에서 자라는 나무 130종의 생태와 문화적 의미를 담은 책. 나무의 기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나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이어서 나무가 모여 이룬 숲의 환경과 역할에 대해 적고 있다. 또 기후대로 구분하는 한편 가로수가 아름다운 나무,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 꽃이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이용하는 나무 등 재미있게 나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값 1만5천원.



▲극락세계 가고 싶어라(정태혁 강해 동산문문)= 정토신앙의 근본 교전으로 일컬어지는 〈무량수경우바제사원생게(정토왕생론)〉 강해서. 상·하 두권으로 구성된 이 경은 세친보살이 〈무량수경〉의 읽고 정토왕생을 기원하며 쓴 책이다. 그 내용은 오탁악세의 중생은 오직 아미타불의 본원력의 의지하여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값 9천5백원.



▲음식궁합 2(유태종 지음, 아카데미북)=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양의 한방 요리와 서양의 전통 요리를 통해 보는 맛있고 신기한 음식궁합. 식물성 음식, 동물성 음식, 건강 보양식은 물론 술과 차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다른 음식의 성분, 서로 다른 재료의 상승효과와 반감 효과를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영양적 가치를 규명하고 음식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준다. 값 1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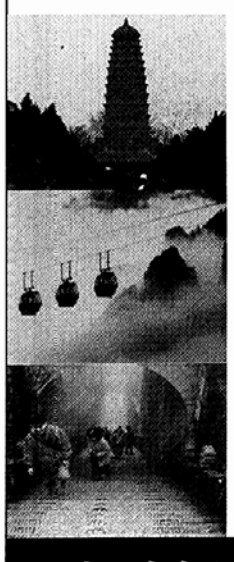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의 나침반	숭 산	열 림 원
2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3	금강경 강의	혜 거	불디스틸 덧셈
4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을
5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6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김 태 완	장 경 각
7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8	선의 역사와 사상	성 본	불교시대사
9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10	생활속의 불교	권 기 종	숨

도서 안내: (02)737-0695

중국 서안 국보사찰 선유사 신라대덕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황실사원 법문사 현존 유일의 불지골(佛指骨) 사리 친견—
—중국 4대 불산 지장성지 구화산 음력 윤 4월 천도재—



수당시대부터 불교의 중심지로 이름을 떨쳤고, 당송대의 수많은 문인학사들이 거쳐갔던 중국의 국보사찰 선유사.
당나라 대종때 구법차 오셨다가 황제의 명을 받아 선유담에서 기우제를 지내신 "왕오천국국전"으로 널리 알려진 신라의 고승 혜초스님.
댐건설로 인한 선유사의 수몰때문에 인근 언덕위에 새로 복원되는 선유사에 대웅보전 법왕탑과 나란히 혜초스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휘호 현판으로 제막식이 봉행됩니다.
중국 대륙의 중심, 국보사찰에 세워지는 한국스님을 위한 최초의 기념비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십시오!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행사
불기 2545(2001)년 6월 13일 오전 10시

중국서안/구화산 5박6일 99만원
1차 - 6월 11일 14시 출발 (12시 집결)
2차 - 6월 12일 10시 출발 (08시 집결)

- 1차 출발편과 2차 출발편은 기념비 제막식 행사 관계로 2일째와 3일째의 일정이 서로 맞바뀌며, 항공 사정상 일정 운영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인천신공항에서 출발합니다.
- 동참금에는 중국비자발급비용과 공항이용료, 출국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300명 선착순 마감합니다.

증명 : 청화큰스님

◆세 부 일 정
제 1일 : 서안 도착후 간단한 시내 관광
제 2일 : 대흥선사, 대안탑, 병마용갱, 흥교사 순례, 화청지(유황온천욕)
제 3일 : 선유사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동참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법문사 불지골사리 친견
제 4일 : 구화산 도착후 육신보전 천도재, 고배경대 순례
제 5일 : 구화산 개산사찰인 회성사 순례 무호 광제사 순례 남경 현무호 공원 관광
제 6일 : 인천신공항 도착후 해산


법문사 법왕탑의 지궁


법문사 사리공봉대와 보주정단, 불지골사리


황실사원 법문사 전경




진시황 병마용갱


혜초스님께서 기우제를 모신 옥녀담의 거북바위


지장보살 김교각스님이 구화산에 들어가시기 전 수행했던 무호 광제사


진시황릉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반야여행사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중국서안불교협회, 조계종전국비구니회,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방송, 불교TV 협찬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고인의 영혼을 편안하게 모시는 벽제정안공원 정통중국요리의 명가 하림각

반 야 여 행 사
문의전화 : (02) 730-0020

국내 最古 목조건물

봉정사 극락전 무너질 위기

지붕 처지고 기둥 균열 72년 보수 부실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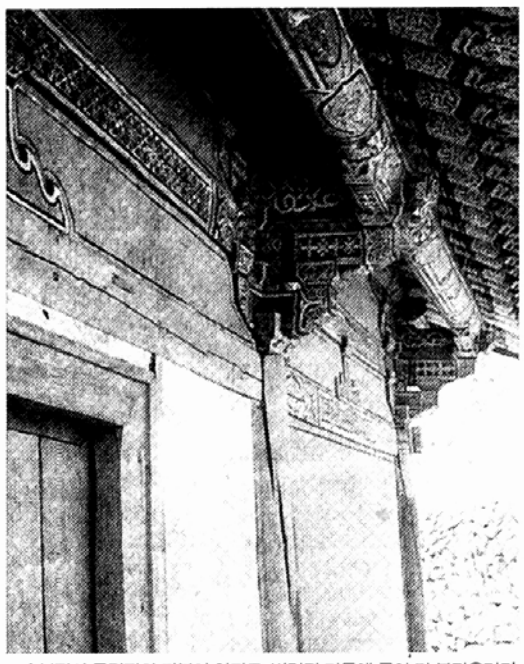
문화재청 "7억예산 보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경북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의 지붕 끝부분이 처지고 벽면과 기둥에 금이 가는 등 무너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문화재청이 전면 보수에 나선다.

문화재청과 안동시, 봉정사에 따르면 극락전 지붕의 무게를 받치는 공포 8개 가운데 건물 뒤편 4개에서 균열이 발생해 아래로 꺾여있고 기둥도 심하게 금이 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극락전 기와가 얹혀 있는 지붕 끝부분이 아래로 처져 있는 데다 벽면에 금이 가면서 건물 뒤쪽 벽면 일부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72년 해체 보수공사를 하면서 한 겹으로 된 처마에 한 겹을 더 얹어 지붕무게가 늘어나면서 처마쪽과 건물 옆쪽은 흡처마였으나 해체조사 과정에서 지붕 뒤쪽도 부연을 단 겹처마 지붕임이 밝혀져 원형대로 고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봉건 미술공예실장은 "지붕의 무게 때문에 처지는 현상이 나타났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해체조사를 맡았던 김동현 전 문화재연구소장은 "지붕 앞쪽은 겹처마, 뒤쪽과 옆쪽 기둥 일부가 미국산 리기다소나무와 알래스카산 가문비나무 등 외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밖으로 드러난 기둥이 외국산이라면 나머지 역시 외국산 나무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재청은 1995년부터 문화재연구소에서 해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급한 붕괴우려는 없으나 벽체 균열이나 공포 처짐현상이 발생해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7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면적인 보수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설계를 마치고 봉정사 대웅전(보물 제55호)의 보수공사가 끝나는 10월쯤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봉정사 극락전의 지붕이 처지고, 벽면과 기둥에 금이 가 붕괴우려가 높다.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무염선사 동방대보살로 존칭

곤륜산 무염사지

조영록 〈동국대 교수〉



적산법화원과 그리 멀지 않은 문등시(현 연대시) 서자진 곤륜산 아래에는 무염선사의 유석처로 추측되는 무염사지가 남아 있다. 천복원년(901)에 세운 '중수무염선사원비'에는 사원 중수때 시주한 이들이 나와 있는데, 평로절도사 왕사범(王師範, 891~905) 등 당나라 고관들과 나란히 '계림인 김청압아(金淸押衙)'라는 이름이 보인다. 당나라에 거주하던 신라인 사회에서 압아라는 직함을 가진 김청은 절강성 영파 지역을 내왕하며 부를 축적했다고 한다. 신라인으로서 적산촌 부근의 길목에

김청 무염원의 대시주

위치한 곤륜산 무염원의 대시주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신라 구산선문 성주사파의 조사 무염선사는 장경초에 당은포(화성)에서 배를 타고 바로 이 문등 지역에 도착하여 육로로 낙양과 장안, 종남산 등지로 구법 유력하면서 강서 마조의 사법제자인 여만과 마곡보철에게 법을 인가받고 이른바 동방대보살로 존칭되었다. 그는 전후 약 20년 간 주로 화북지방의 명승 고찰을 순례하는 동안 무종이 저지른 회창법난을 만나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곤륜산 무염원지가 아마도 무염선사가 오가며 유석하던 사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추측이다. 무염사가 반세기 후 신라인 압아 김청 등의 시주로 복원되고 있다는 사실도 결코 우연이라고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나라 때 연운항시 숙성촌에 있었던 신라방과 신라사원 법기사지 부근으로 답사하고 있다.

우리가 연운항시(連雲港市) 숙성촌(宿城村)까지 가서도 막상 신라방과 법기사지를 찾지 못하고 온 것은 못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운항은 옛 해주(海州)로서 지금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소성 최북단에 위치하지만 당대에는 산동성 연해의 여러 지역과 마찬가지로 신라인이 집단 거주하던 곳이었다. 일본승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는 그들 일행이 해주 숙성촌 연안에 이르러 밀주(密州)에서 초주(楚州)로 목탄을 운송해 가던 신라인들을 만나 이들의 집에 안내되었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당시 숙성촌 앞 바다에 호공도(胡公島, 현 육주도)가 있어 신라인들이 살았다고 한다. 숙성촌에는 신라인의 절 법기사(法起寺)가 있었으며, 호공도에는 대운선사(大雲禪寺)가 있어 신라인 승려 통선법사가 주석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육주도는 지금은 대륙과 이어져 옛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숙성촌도 지금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 부근 유원지만 배회하였는데, 돌아와서야 그 유원지 안쪽 저수지 부근이 신라방과 법기사지임을 알게 되었다.

연운항에서 황해를 오른편으로 하고 한참을 북상했을 때 차창 밖으로 대주산(大珠山)이 보였다. 이 지역은 일찍이 신라인들이 소금과 목탄 등을 재조 운반하며 상업활동을 하던 영역이었음은 엔닌의 일기에서도 상술하고 있거니와 그 이후로도 한반도와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대각국사는 우리가 북상하는 길과 반대방향으로 남하(南下)하여 연운항에서 다시 서쪽으로 운하를 따라 송황제의 알현을 위해 수도 개봉으로 행차하였으며, 당에 벼슬하면서 크게 문명을 떨친 최치원이 이 대주산에 배를 대고 10수의 시를 지어 오늘에 전한다.

산동성 연해 신라인 거주

산동반도와의 관계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가지 사실은 고구려 유민 이정기 일가의 산동진출에 관한 이야기다. 이정기(李正己, 732~781)는 안사의 난을 평정할 임무를 띠고 평로치청 절도사에 임명된 이래 그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무려 55년 동안이나 산동성 전역을 거의 반독립국처럼 지배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그들 '소왕국'의 토벌(819)에 세운 공로로 두각을 나타낸 이가 바로 무녕군 소장 장보고였다는 사실이다. 등주에서 제남으로 밤길을 달리면서 나는 이 지역민들의 피 속에 고구려와 신라인의 피가 맥맥히 흐르고 있을 것이란 생각을 떠올려 본다.

국내 소개안된 텍스트 번역 · 주석 등 연구 열기

'윤독회' 새 풍속도

교양 수준의 독서회로 생각하기 쉬운 윤독회가 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 학계에서 번역되지 않았거나 연구가 미비한 책을 텍스트로 선택해 번역은 물론 주석까지 다는 윤독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 윤독회에서 선택하고 있는 텍스트는 조선 후기에 간화선 논쟁을 일으킨 〈선문수경〉이나 도교적인 식견으로 불교를 다룬 〈조론〉과 같은 한문 문헌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선(禪) 관계를 조명한 〈돈오의 수사학(The Rhetoric of Immediacy)〉이나 〈전통을 향하여(The Will To Orthodoxy)〉, 불교사회사상사의 개론서이라 할 수 있는 〈불교사회학(Buddhist Sociology)〉 등의 영문 문헌까지 다양하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0여 개 이상의 학자들 소모임이 결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미 번역본이 나와 있는 문헌에 대한 자구(字句) 해석에 매달리는 교양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대불교독경회(회장 이진오), 〈조론〉윤독회(회장 은정희), 원전윤독회(회장 윤원철), 동양사회사상연구회(회장 이영찬) 등이 신앙의 차원을 넘어선 진지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면서 불교 문헌 읽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선문수경〉을 2년 간 연구해 온 부산대불교독경회는 이미 번역과 주석 작업을 마치고 교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 작업이 끝나는 8월경에는 단행본으로도 출간할 예정이다.

6년 전부터 학자들의 윤독회와 연구 소모임을 지원해 온 성철선사상연구원 최원섭 간사는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행본이나 논문과 같은 학문적 성과로 이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윤독회 모델"라며 "다양한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윤독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추정 목탑지와 사리공 전경.

하남 천왕사지 목탑터 발견

'天王' 명 기와 · 대형건물터 등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340-2번지 일대 옛 천왕사(天王寺) 터로 추정되는 곳에서 목탑터와 대형건물터 등의 흔적이 발견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이 곳을 발굴중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은 13일 이 일대 약 2천여 평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목탑터로 추정되는 1곳과 건물터 1동, 담장 및 배수시설 등 모두 9기의 유구를 확인함으로써 이 곳이 대형 사찰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천왕(天王)'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여러 종류 발견됨으로써 이 곳이 문헌기록에 남아 있는 광주 천왕사터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연구단이 목탑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건물터에서는 사리공으로 추정되는 석조 유물과 초석열이 확인됐다.

권형진 기자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 改訂增補版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招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 ·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 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과 神明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등 活人專門天役者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 · 양장제본 · 금박 · 2000페이지 · 미색용지 · 옵셋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답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401호

도서출판 복 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 · 시(每日 · 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鼓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율림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설명회를 갖고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 테이프로 제작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오.

▶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달마의 발자국엔 빗물이 고여 있었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㉘

(27) 해 떨어지는 낙양(洛陽)

지극한 간병 덕분에 달마는 곧 건강을 되찾았다. 자광 대사의 안내를 받으며 절 안팎으로 산책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달마는 영령사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면서 이 절이 범상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우선 절의 규모가 엄청났다. 광주의 법성사나 금릉의 동태사보다 결코 작지 않은 규모였다. 건축양식도 독특했다. 선정불전(禪庭佛殿)이 아주 빼어났다. 주변의 경관과 어울려 한 폭의 그림처럼 구도가 꽉 짜여 있었다.

게다가 영령사에는 자광 대사를 비롯한 여러 고승대덕이 주석하고 있었다. 수많은 승려들이 이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에 열중했다. 달마는 이런 절의 분위기에 마음이 끌렸다.

달마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광 대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도담(道談)을 나누었다. 얘기를 나눌수록 자광 대사의 비범함을 느낄 수 있었다. 자광 대사야말로 나무랄 데 없는 선학자(禪學者)였다.

밤 늦게까지 道談 나눠

이런 느낌을 갖기는 자광 대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달마가 예사로운 인물이 아님을 진작 알아보았다. 애당초 진흙 속에 쓰러져 있는 이역(異域)의 노인을 발견했을 때부터 그의 심장은 가쁘게 뛰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자광 대사는 거의 무아지경에서 달마를 들쳐 업고 영령사로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레를 간병과 기도로 지샜다. 달마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회복해서야 비로소 침소에 들어 눈을 붙였다.

자광 대사는 자리에 누워 왜 이방의 노인에게 그토록 정성을 쏟고 있는지 자문해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자비심의 발로가 아니었다. 분명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듯싶었다. 그는 더 이상 누워 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한달음에 달마의 처소로 달려갔다.

달마는 깊은 잠 속에 빠져든 것 같았다. 전혀 인기척을 의식하지 못했다. 자광 대사는 여태까지 했던 대로 달마 옆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 달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비록 여위고 창백했지만 얼굴에선 형언할 수 없는 기풍이 풍겼다. 달마의 숨소리는 들릴 듯 말 듯 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호흡이 고르지 못했다. 빠른가 싶으면 이내 느려지는 등 심한 기복을 나타내고 있었다. 자광 대사는 긴장했다. 달마의 들숨과 날숨을 헤아리며 지켜보았다. 그러나 어느 사이 그의 숨은 달마의 숨에 합치되고 말았다. 그는 이런 사실조차 한참 뒤에야 깨닫고는 크게 놀랐다. 도대체 이 노인에게 무슨 힘이 있기에 숨조차 빨려들게 하는지 의아스러웠다. 숨만 빨려드는 것이 아니었다. 몸과 얼이 모두 빨려드는 느낌이었다.

자광 대사는 달마가 건강을 찾은 뒤에도 곁을 떠나기가 싫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붙잡아매는 듯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는 달마에게 가르침을 받으려 애썼다. 그러나 달마는 그 때마다 소이부답(笑而不答)으로 응했다. 겨우 알아낸 것이 천축의 28대 조사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해도 경천동지할 만했다. 자광 대사는 더욱 극진하게 달마를 모셨다. 그는 달마가 이 절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았다.

> **조사가 보이지 않았다**
> **자광대사는 빗줄기를 뚫고**
> **이곳저곳 찾아 나섰다**

달마는 모처럼 안정과 평안 속에 하루 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하루는 혼자 선방을 나섰다. 절 안에 흐르고 있는 작은 실개천을 따라 거닐었다. 바위틈을 비집고 흐르는 개울소리는 마치 음악소리인양 분위기를 돋우었다. 물소리와 하나가 되어 흐르듯 걷듯 하며 한참을 내려갔다. 드디어 조그만 연못에 이르렀다. 개울은 그 곳에서 모든 소리를 멈추었다. 연못은 고요 그 자체였고 맑기가 거울 같았다. 달마는 연못 속에 드리운 자기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연못 속에 있는 자기와 연못가에 있는 자기가 둘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새삼 되새겼다.

문득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 뒤로 커다란 불탑(佛塔)이 투영되었다. 달마는 몸을 돌려 산등성이를 올려다보았다. 구층탑이 우뚝 솟아 있었다. 달마는 여러 번 연못 주변을 산책했었지만 산등성이에는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곳에 불탑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몸과 얼 빨려드는 느낌

하긴 그 동안의 산책은 늘 자광 대사와 함께였다.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이야기에 팔리다 보면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별로 없었다. 달마는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 듯 산등성이를 향해 올라갔다. 가까이서 본 구층탑의 규모는 엄청났다. 안에서 예불을 볼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였다. 구층까지 층계가 놓여 있고 층마다 불상이 조성되어 있었다.

탑 앞에 서자 달다는 솟구쳐 오르는 희열을 느꼈다. 서둘러 탑의 계단을 밟았다.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단숨에 구층까지 올라갔다. 난간을 잡고 밖을 내다보았다. 구름과 안개가 산 아래에 깔려 있고 멀리 낙양성 전체가 한 눈에 들어왔다. 구층탑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선경(仙境)인 듯 느껴졌다. 구층탑 안팎의 조각은 거의 신기(神技)의 조화인 듯했다. 달마의 입에선 절로 탄성이 흘러 나왔다.

"불가시의한 일이로다!"

순간 그의 마음 속엔 이 곳에 오래 머물고 싶은 충동이 강렬하게 일었다. 이전에도 자광 대사의 지극 정성에 끌려 때때로 정착하려는 마음이 생기곤 했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렇게 절절한 감정은 아니었다. 이제 구층탑을 내려가면 자광 대사를 만나 결심을 밝혀야 겠다고 생각했다. 탑을 내려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멀리 낙양성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탁 터지듯 후련했다. 그런데 낙양성 너머 멀리 천축이 아른거리더니 문득 스승 반야다라의 모습이 떠올랐다. 달마는 자신도 모르게 합장의 예를 갖췄다. "일하가련쌍상마(日下可憐雙象馬)"라고 읊조리던 스승의 게송이 귓가에 맴돌았다.



◇범주 스님 作 달마도(종이에 수묵).

달마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게송에서 말한 일하(日下)란 무슨 뜻일까? 해가 떨어진다는 뜻의 낙(洛=落)양(陽)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가련(可憐)한 쌍상마(雙象馬)는 바로 이 곳에 머물기로 마음먹은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달마는 반야다라 존자가 읊은 게송의 끝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다. "이주눈계구창창(二株嫩桂久昌昌)." 즉 '두 그루(二株)의 계수나무 피어 있는 곳(嫩桂) 오래도록 창성하리라(久昌昌)' 고 하지 않으셨던가. 그렇다면 법연의 땅은 계수나무가 두 그루 우뚝 솟아 있는 곳이 아닐까?

달마는 얼핏 자광 대사가 지나가는 말로 들려 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이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숭산(崇山)이 있는데 그 곳에는 계수나무도 있고 숲이 우거져 경치가 수려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달마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숭산으로 내달았다. 달마 자신이 생각해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달마는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심장의 박동은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다. 흥분으로 다리가 후들거렸다. 달마는 천천히 구층탑에서 걸어 내려왔다. 올라갈 때와는 발걸음이 사뭇 달랐다. 그는 이것저것 여러 생각에 잠겼다. 이런 식으로 자광 대사와 헤어지고 영령사를 떠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은 벌써 날개를 달고 숭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달마가 막 탑 밖으로 나올 무렵 자광 대사는 부지런히 탑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달마를 보자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즉시 앞으로 달려가 달마를 부축하며 말했다.

"조사께서는 큰 병에서 막 일어나신 몸이 아니십니까. 불체(佛體)를 보중하셔야 하십니다."

달마는 머리를 끄덕일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가엔 눈물이 핑 돌았다. 다행히도 안개가 자욱해서 자광 대사는 그런 달마의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다. 자광 대사는 달마의 손을 공손히 받들고 천천히 본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광 대사는 순간 무엇인가 이상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 전과는 달리 잡고 있는 달마의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밤새 말이 없었다.

자광 대사는 이른 새벽에 눈을 떴다. 대야로 퍼붓는 듯하는 폭우소리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자광 대사는 온몸에 썰렁함을 느꼈다. 늘 하던 대로 옆에서 자고 있는 달마 대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누워 있어야 할 달마 조사가 보이지 않았다. 혹시 먼저 일어나 참선에 들어갔나 싶어 벌떡 자리를 박찼다. 그러나 방안 어디에도 달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순간 자광 대사는 당혹스런 느낌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이 새벽에 조사께서는 무엇 때문에 밖으로 나가셨을까? 자광 대사는 급한 마음을 누르면서 살며시 방문을 열었다. 자칫 달마 조사에게 결례가 될까봐 발소리를 죽이며 문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달마 조사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자광 대사는 손으로 눈을 비비면서 어둠 속에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이 곳 저 곳 살폈다. 머리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그만치 당혹과 충격이 그를 엄습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조사님, 조사님!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 보아도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메아리조차 빗소리에 파묻히는 듯 싶었다. 자광 대사는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사방을 살피면서 절 문 쪽으로 치달았다. 닫혀 있어야 할 절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자광 대사는 밖을 살폈다. 그의 입에선 절로 신음 섞인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눈앞에 달마의 발자국이 보였기 때문이다. 뚜벅뚜벅 나 있는 발자국엔 빗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다. 자광 대사는 발자국 방향을 바라보며 합장했다.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는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다. 자광 대사의 가슴엔 구멍이라도 난 듯 스산한 새벽바람이 스며들었다.

숭산의 소실산에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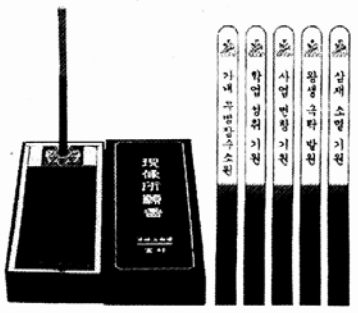
달마는 자광 대사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지만 자는 체했을 뿐 깨어 있었다. 그는 몰래 영령사를 빠져 나갈 심산이었다. 번거롭게 할 것도 없고, 오고 가는 것을 알릴 까닭도 없었다. 다만 자광 대사에게 미안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알리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더욱 크게 줄 것이 뻔했다. 달마는 빗속을 뚫고 빠른 걸음으로 절을 벗어났다.

달마는 숭산이 정확히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짐작으로 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직관에 바탕을 둔 그의 짐작이나 느낌은 거의 어김이 없었다. 마음 가는 대로 발을 옮기면 그 곳이 곧 목적지였다. 숭산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수십 일이 걸려서야 숭산의 소실산(小室山)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등봉현(登封縣) 북쪽에 있는 숭산은 동쪽으로는 태실산(太室山), 가운데 준극산(峻極山), 서쪽의 소실산(小室山) 등 세 개의 산이 모여 있는 명산이다.

발명특허 NO. 0060218

現像所願香

현 상 소 원 향



소원성취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건강, 사업, 학업등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現像所願香이 소원성취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소림사의 달마대사가 오랜 面壁修道로 달마의 형상이 面壁洞 벽면에 投影되어
나타나듯이 現像所願香에도 여러분의 念願이 투영되어 나타납니다.
소원의 성취는 僥倖이나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現像所願香이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을 증폭시켜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本 製品의 特性

本 現像 所願香은 燃燒된 後에도 남은 재가 부서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本來의 形態를 維持함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燃燒가 進行되면서 재 위에 부처님의 形象과 함께 貫下께서 念願하시는 文句가 나타나는 本社의 發明特許品입니다. 本 香은 정신을 맑게 하여주고 心身의 氣運을 북돋아 주는 人體에 有益한 最上質의 天然材料만을 嚴選하여 使用하였으며 一切의 人工香料는 添加하지 않았습니다.
人體에 有益함은 물론 燃燒時 담배냄새, 기타 惡臭제거에 卓越한 효과로 室內의 공기가 맑아졌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원재료 : 침숯, 지단향, 모과향, 목향, 백단향

使用時 有意 事項



· 향에 표시된 부분이 정면 하단에 오도록 하여 향꽂이에 꽂아 주십시오.
· 연소된 향이라 할지라도 화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화재 및 화상에 주의하십시오.
· 향이 굵은 관계로 처음 불을 붙이실 때 시간이 여타 향에 비하여 조금 더 요구됩니다.
· 제조 유통 중 파손된 제품은 본사 또는 판매점에서 교환하여 드립니다.

(株) 富好

본 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66 ☎ (02) 733-1235
대구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38-13 ☎ (053) 764-6610

"부처님오심을 기리는 축제, 저희들도 함께 즐겨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교계의 어린이 및 청소년 단체와 종립학교들이 다채로운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올해는 특히 사생대회와 백일장, 부처님 그리기 대회, 사경 공모, 탑돌이 행사, 찬불가 경연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들이 주를 이뤄 청소년들이 불교 문화를 통해 부처님 오신 참뜻을 기리며 축제 분위기도 만끽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봉축 문화행사 풍성

흥도 절로 신심도 절로

사경 · 찬불가 · 백일장 다채

우선 22일 동국대 중강당에서는 서울불교청년회와 좋은 벗 풍경소리의 공동주최로 '제 13회 연꽃 노래잔치 경연대회'가 열려 노래솜씨를 겨루며 찬불가로 부처님 오심을 축하한다.

5월5일 월간 〈불광〉과 목아박물관 공동주최로 속리산 법주사에서 열리는 '제7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리기 대회'는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가족전부가 나들이 삼아 참여해 볼만한 행사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는 5월 13일 오후 2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14회 청소년 전통 예술 경연대회'를 연다. 청소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국악연주, 탈춤, 고전무용, 농악, 판소리 등 전통예술부문에 걸쳐 초 · 중 · 고 학생들이 단체와 개인으로 각각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목동청소년수련관에서는 5월 6일 목동 파리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모여 글과 그림



◇어린이 · 청소년 단체들이 다양한 봉축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봉축문화행사 때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주최로 열렸던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 행사내용

행 사	장 소	날 짜	연락처
서예백일장	제주 남녕고 체육관	4월21일	064)746-9597
연꽃노래잔치	동국대 중강당	4월22일	02)730-9108
마야왕비 공주 선발대회	광동여고 강당	4월30일	031)873-9113
사생대회 및 백일장	명성여고	4월30일	02)452-8655
부처님께 편지쓰기	동대부중	4월30일	02)2217-8423
전국어린이부처님그리기대회	속리산 법주사	5월5일	02)420-3300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목동 파리공원	5월6일	02)2646-6815
사경공모전	조계사	5월12일까지	02)723-6165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	동국대중강당	5월13일	02)735-8165
참나 청소년예술대전	동국대 장각원	5월27일	02)326-0248

솜씨를 마음껏 뽐내는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연다. 또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5월 12일까지 조계사에서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을 열어 청소년들에게 불심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종립학교들도 벌써부터 움직임이 분주하기는 마찬가지다. 광동여고는 26일 사경대회를 시작으로, 28일 오후 5시 의정부 시민회관에서 '봉축 음악제'를 열어 사바세계에 부처님오신뜻을 불음의 메아리로 알린다. 또 30일에는 반야심경 암송대회와 이색적인 '마야왕비 공주 선발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청소년 불자들에게 열띤 호응을 얻을 것으로 주목된다.

명성여고도 30일 탑돌이와 교내봉축법회에 이어 5월3일에는 봉축 사생대회 및 백일장을 연다. 동대부중은 30일 교내 학생을 대상으로 각자 미리 준비한 그림 엽서와 편지지에 자신의 발원을 담은 '부처님께 편지쓰기 행사'를 기획해 우수 작품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윤제학기자의 손 이야기 ⑭ · 끝

■ 양손쓰기

진화론에서 보면 인간이 인간다워진 분기점은 직립 즉 손의 해방에서부터다. 이를 지극히 단순하게 이해하면 '도구의 사용'이 인류 문명을 일구어냈다는 얘기가 되겠다. 하지만 '손의 해방'이 갖는 더 중요한 의미는, 손의 활동과 두뇌의 공명에 있다.

"손은 하나의 기관이 아니고



'다수의 기관'"이라는 말도 있다. 손과 내장기관의 관련성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라 하겠다.

뇌의 연장으로서 손, 인체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손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의 얘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열심히 손을 쓰자'는 것이다.

우선 양손을 조화롭게 써야 한다. 좌 · 우뇌의 고른 발달을 위해서도 그렇고 인체의 균형을 위해서도 그렇다. 어린아이일수록 손을 많이 쓰게 하자. 손놀림에는 전신이 반응한다. 운동할 때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깨선이 비뚤어지는 등 부작용이 따른다. 그렇다고 양손의 기능을 무리하게 교정할 필요는 없다. 오른손잡이가 무채

양손 적절히 쓰면 지능 고르게 발달

를 썰 때, 오른손만 쓰는 것 같지만 왼손은 굵기를 조절하는 정교한 기능을 발휘한다. 이 때 좌 · 우 뇌는 사이좋게 활동을 한다. 반대로 이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치매라는 놈도 찾아오게 된다. 손놀림의 둔화는 뇌의 기능 둔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녹차 마시기, 도자기 빚기, 설거지, 빨래, 악기 다루기…. 양손을 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손을 쓰자. 그것은 또한 인간의 위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동물 학대하지 마세요

'가재 뽑기' 등 생명경시 풍조 확산 우려

파라미타 내달부터 캠페인

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지홍스님, 이하 파라미타)가 5월부터 동물애호 운동의 일환으로 교계 단체들과 연계해 '동물학대금지 및 생명존중 캠페인'을 벌인다.

이같은 결정은 인형뽑기 게임기에 인형 대신 살아있는 바닷가재나 토끼 등을 집어넣고 끌어올리는 '동물 뽑기 게임'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확산돼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들의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파라미타는 서울 ·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 뽑기 게임' 기의 보급 실태 조사를 통해 생명존중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팜플렛을 제작해 동물애호 캠페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파라미타 이병두 사무국장은 "이번 캠페인은 부처님의 생명존중 정신을 사회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계 청소년 단체들을 비롯해 신행단체들과 연계해 청소년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게임기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청소년 단신

만화 · 영화 동아리 공모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관장 범산스님)은 5월 한달동안 '청소년 동아리 공모전'을 실시한다. 건전하고 다양한 동아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만화 · 영화 · 댄스 동아리 등 현재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를 선정해 장소 및 소정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부산양정청소년회관에서는 VJ 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 (051)868-0750

전국 순회 예절마당 열어

김해 봉화산수련원(원장 선진규)은 15일부터 20일까지 경남 함양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김천교도소, 속초, 논산, 강화 등 13개 지역에서 '예절서당'을 연다. 전국 읍 · 면 동단위의 마을회관, 사찰 수련원 등을 장소로 섭외해 교육하는 '예절서당'에서는 훈장을 비롯한 10여명의 강사가 △한문교육 △예절교육 △환경 · 놀이 교육 △자율 토론 지도 등을 지도한다. (02)732-7272

주부 신행담

보시행의 공덕 ㊤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행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진정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는 소중한 삶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5년전 영남불교대학 학장 우학 스님의 '보시행 실천'에 대한 감동적인 법문을 듣고, 도반 한 명과 함께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결심했다. 그래서 영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대구시내에 있는 3~4개의 병원을 찾아가 환자들을 위한 봉사계획을 털어놨더니 모두들 좋아했다.

이렇게 시작한 병원 봉사활동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영남대병원 7층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70세 할머니는 2년동안 목욕을 도와드렸던 일이 인상깊었다. 그 할머니의 집안이 모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우


그림 · 이준석

더러움 깨끗함 본래 없구나

리들의 작은 봉사에 감동하셨는지 자신의 가족들에게 내가 다니는 영남불교대학으로 가서 보시금을 내고 부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권유할 정도로 고마워했다. 다른 사람의 종교를 사랑할 줄 아는 이들의 모습에 머리가 절로 숙여졌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미워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아름다와 보였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 봉사하러 갔을 때 그 병원에 입원한 한 개신교인은 단지 내가 불자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반기지 않았다. 그래도 싫은 내색 하지 않고 몇 번씩 찾아갔더니 그 환자는 그제서야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환자보다 더 정성껏 간호를 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오히려 그 환자가 종교의 벽을 깨고 우리가 봉사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가 되었다.

내가 병원 봉사를 시작한지 어느덧 5년이 됐다. 그러다보니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보면 어디가 아파서 입원했는지, 병의 상태가 얼만큼 호전됐는지 또는 악화됐는지 이제는 몇마디 대화와 환자의 표정만 보면 대충 알 수 있게 됐다.

수많은 환자들과 만났지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사람이 있다. 96년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와 하체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30대 초반의 젊은 환자였는데,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으면 대소변조차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우리 봉사팀에 무보수 간병을 부탁해와 내가 맡기로 했다.

간병을 맡은 첫날 대변을 봐야 한다

리들의 작은 봉사에 감동하셨는지 자신의 가족들에게 내가 다니는 영남불교대학으로 가서 보시금을 내고 부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권유할 정도로 고마워했다. 다른 사람의 종교를 사랑할 줄 아는 이들의 모습에 머리가 절로 숙여졌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미워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아름다와 보였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 봉사하러 갔을 때 그 병원에 입원한 한 개신교인은 단지 내가 불자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반기지 않았다. 그래도 싫은 내색 하지 않고 몇 번씩 찾아갔더니 그 환자는 그제서야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환자보다 더 정성껏 간호를 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오히려 그 환자가 종교의 벽을 깨고 우리가 봉사오는 날을 고 하길래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변비가 워낙 심해 도대체 변이 나오질 않는 것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내가 더 안타까워 환자의 양해를 구한 뒤 손을 항문 깊숙이 넣어 변을 끄집어 내자 그제서야 변이 쏟아져 나왔다.

봉사일을 하다보면 가끔 이런일과 부닥친다. 그럴때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불구부정(不垢不淨)', 즉 원래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다는 구절을 가슴속 깊이 되새긴다.

한달 정도 그 환자를 간병했는데, 농사일이 끝난 그 젊은이의 어머니가 간호하러 병원에 올라오게 돼 봉사가 끝났지만, 더러움과 깨끗함의 경계를 없앤 깨달음을 내게 줬다는 점에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됐다. (계속)

도재원(대구광역시 북구 고성3가)

기 자 모 집

격주간 불교 포교지로 새롭게 태어난 만불신문이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격주간 5만부를 발행하는 만불신문과 함께 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수습기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 불교대학 졸업자 우대

경력기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 주간신문 2년 이상 경력자
• 1965년 1월 이후 출생자
•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전형절차 및 선발인원 1차 - 서류, 2차 - 면접, 0명
접수기간 2001년 4월 30일 까지
접수방법 본사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4월 30일자 소인 유효)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접수처 및 문의 서울 서초구 서초 1동 1670-10 문화빌딩 3층 **만불신문**
전화 02)522-0101, 053)756-0101
※ 서류합격자는 개별 통보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만 불 신 문 사

第16回 不二賞 要綱

不二會에서는 한국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이 될 참신한 젊은 일꾼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연구 · 실천 2개 분야에 걸쳐 탁월한 가능성을 보인 젊은 인재를 발굴, 그들의 보다 달찬 발전향상을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상을 제정 매년 1회 시행합니다.

1. 시상분야
가. 연구분야
· 대학원 박사과정수료 이상의 학력자로서 대학에서 시간강사 이상, 조교수 이하의 직에 있는 자로서,
· 최근 2년 동안 업적 중 불교학(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 · 철학 · 문학 · 예술 · 비교사상, 기타)관계의 탈월한 연구 성과를 올린 40세 전후인 자.
나. 실천분야
· 불교에 입문하여 7년이 경과한 불자로서,
· 신행과 포교가 모범이 되는 자로서 연령 제한 없음.
2. 시상규모 : 각 분야별 1명 500만원
3. 후보자 제출서류
가. 후보자 추천 카드(본회 소정양식 : 별첨)
나. 자필이력서(사진 첨부)
다. 학력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마. 업적 증명용 연구물 또는 활동 내역서, 성적 증명서
바. 具足戒, 受戒 증명서
사. 추천서 3통(총장 · 대학원장, 기타 기관 및 단체의 장)
4. 접수마감 : 2001년 5월 31일까지
5. 심사 : 불이상 심사 위원회
6. 수상자 발표 : 불교계 언론 매체
7. 접수처 및 문의 : 불이상 심사 위원회
서울 강남구 개포 3동 186-1 개포 빌딩 6층
Tel. (02)3411-6167~8 / Fax. 3411-6169

不 二 會

빅-뉴스

피로?
나에게는 없다!

■ **LIHIS** 건강양말
· 건피부(특히 발이 갈라 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 숙취 해소
건강양말 특허출원번호 0043150 LIHIS

■ **LIHIS** 건강 숲 양말
· 발냄새 제거
· 당뇨에는 더 이상 당이 안 오름
· 원적외선 차단
건강숲양말 실용신안번호 0165970 LIHIS

상담문의
(주) 화동섬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053)582-1245
전남·북 특판점 062)956-7676~7
동 대 구 특판점 053)982-4976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光彩'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세친년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백과 차단) 특별보시!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www.korea-art-gallery.org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 0058
E-mail unjang21@kornet21.net
●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돌탑아미타부처님영험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생활 空하니 집착 없이 살라

옛날에 선지식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필요로 했지만,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고 그냥 비켜버리면 안되죠. 그냥 외워서 알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항상 내 주인공이라는 불성에 모든 거를 놓아야죠. 여러분의 불성은 여러분의 참 보배이자 여러분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눈썹 하나에 여러분의 불성을 싣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날에도 그런 말을 했죠. 왜란 때에 사명대사가 일본을 가는데 어떤 선지식이 묻기를 일본에 가면 목이 달아나가기 쉬운데 어떻게 가려고 하시느냐고 하니까 '제가 없는데 상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했어요. 내가 없는데 상대가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다 엎어놓듯이, 뒤집듯이 종을 울렸죠. 그 당시에 그 말씀이 중요했듯이 지금 생각할 때에 참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뿐이 아니라 발우 공양을 하다가도 부처님 앞에 올렸던, 그때는 지금처럼 공양을 그릇에다 가득 채워서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발우 공양을 해야 될텐데 말입니다. 공양을 내려야지 먹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주지스님이 죽비를 탁 치면서 하는 소리가, 저 밥은 누구로 인해서 먹느냐는 얘깁니다. 저 밥은 누구로 인해서 먹으며 누가 저 밥을 떳떳이 갖다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이건 말로 해서도 아니 되는 거고 말을 안 해서도 아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조께서 그렇게 말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주지스님으로 인해서 먹는다. 또 부처님으로 인해서 먹는다. 또 신도들로 인해서 먹는다. 여러 소리가 많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스님이 말이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죽비를 다시 한번 치면서 악을 쓰니까 '제 밥 저 먹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부목으로 내 쫓으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뭐 잘 났다고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나' 없는데 상대 있으랴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공부를 알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은 퍼뜩 알아들었었을 건데 말입니다. 불 때는 부목으로 내 쫓았으니 수행자가 부목으로 내려보냈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내보냈으니 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나무를 해다가 패서 아궁이마다 불을 지피면서 드 정말 싱글싱글 웃어 가면서 즐겁게 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보니깐 말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패서 안고 이 아궁이 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하는 소리가, '어쩌다가 벌이 방에 들어와서 유리창을 보고 그게 문인 줄 알고 그냥 거기다가 얼굴을 박고 머리를 부딪치니 머리가 깨져서 죽는구나.'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할 점입니다.

왜 자기 밥이라고 했는지, 왜 벌이 어쩌다가 들어와서 유리창문이 문인 줄 알고 거길 박고 그래서 떨어져 죽는 다는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한 번쯤은, 아시는 거지만 해보는 수밖에 없죠.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뜬뜨 문뜨 생각날 때 한번씩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해 보시라고 그러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그냥 생활이고 도구나. 그래서 도가 별 따로 없구나 하니까 별 따로 없다뇨? 하고 물었답니다. 또 거기 이유가 들어가지만 말이 길어서…. 그리고 왜 사명대사가 자기가 없는데 상대가 있겠느냐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 일상생활이 다 공해서 돌아가고 오온이 다 합해서 공식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바쁘게 돌아 치죠. 만나기도 하고, 뭘 해야 하기도 하고, 뭐를 결정짓기도 해야 하고, 말을 해야 뭐 돌아가고, 현상계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요새는 아마 더 바쁠 겁니다. 생각들 해 보셨습니까? 요새는 좀 더 바쁘고 그렇구나 하는 걸요. 모기가 불에 타 죽는 것도 모르고 환하기만 하면 들이덤비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세면 군데에서 나르고 야단이니까 정신 없죠. 그러니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자체가 우리가 왜 공했다고 했나. 왜 살긴 살아도 삶이 없이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나. 그렇게 24시간 바쁘게 돌아 쳤는데 함이 없이 하고 있구나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삭발을 할 때에 왜 바싹 다 깎느냐. 또 나올텐데. 그 말을 들어보기 위해서도 그렇고 트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설총이 쓰레질을 해서 쓰레기를 다 모아 놓으니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쓰레기를 도로 집어다가 활활 던지면서 이렇게 남겨 놓고 해야지. 본래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싹싹 쓸면은 뭐 남는 게 있어서 지탱해 나가냐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한 번 뛰어 넘어서, 이렇게 내가 하는 것만 집착하고 오늘도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뛰어 넘을 줄 아신다면….

예전에 누가 공부를 배울 때 하루동안 먹지를 못해 배가 고파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니까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골짜기에서 내려가는 물을 엎드려서 한 모금 입에 넣으니까 천 모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 모금이요. 한 모금 먹는데 천 모금을 먹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말이 안되니깐 말이 된다는 얘기죠. 천 모금이라는 생각에 깜짝 놀랐죠. 아! 물도 흐르는 게 없이 흐르는구나. 흐른다는 소리도 없이 흐르는구나. 사람도 한 달, 일년하고 날짜를 정해 놓고선 모두 그거를 생각하고 살죠. 그래야 질서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몽땅 다 놓아도 질서를 무너지게 안 한단 얘기죠. 그걸 다 놓고도 말입니다. 다 놓고도 질서를 무너지게 안 했기 때문에 사명대사도 거기 가서 목이 안 달아 나간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심하게 치고, 비도 오고 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아이구,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용신을 찾으면서 그냥 야단법석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스님 한 분이 앉아서 아무 소리 없이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모르게 그냥 앉았다 내리시는 겁니다. 아무 요동도 없이. 몸을 조금도 움죽거림도 없이. 그래서 스님은 말씀도 없으시지만 몸짓도 없으시고 내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말을 하고 내가 있어야 움죽거리죠,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말을 하고 내가 있어야 움죽거리죠.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느냐는 소립니다.

그래서 아주 가깝게 있는데도 여러분은 그걸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을 배로 비유했고, 그것도 가르치기 위해서요. 몸을 배로 비유를 했고, 속에 있는 의식들을 즉 말하자면 생명들을 중생으로 비유했고, 주인공을 선장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죽는 사람이 많죠. 그러기 때문에 짐승들이나 새, 어느 생물들한테 가서 태어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알아야 가려서 갈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버지로 불렸다가, 남편으로 불렸다가, 아들로 불렸다가, 또 회사에 나가면 아무개로 바쁘게 돌아 치면서 하루를 사셨다고 봐요.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한 걸음에 지나지 않습니까? 반 걸음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냥 계셨습니까? 움죽거리고 지내셨습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이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부설거사가 말입니다. 따님도 있고 아드님도 있고 마나님도 있는데 말입니다. 스님들이 가서 노자를 좀 달라면 안줬습니다. 그 노자는 받아 뭘 하느냐고. 여길 가도 그 자리, 저길 가도 그 자리인데 어디다가 쓸려고 찾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따님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갈까봐 들어가서 책상 앞에 앉아서 고만 죽어버렸습니다. 으리가 지금 그냥 말을 하려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열반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아버지가 앉아서 또 갔습니다. 그런데 마나님이 바깥을 내다보면서, 남편도 그렇고, 딸도 다 갔으니까 밭에서 김을 매다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소리죠? 괭이로 밭을 매다가 괭이를 든 채 그냥 서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밭을 매다가 말고 호미 든 채로 바쁘니까 그냥 가신 거예요. 하하하. 재밌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 분의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앞으로 끝없이 가는 세월을 생각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 분들이 왜 그렇게 벌여 놓고 가겠습니까. 벌이지 않아도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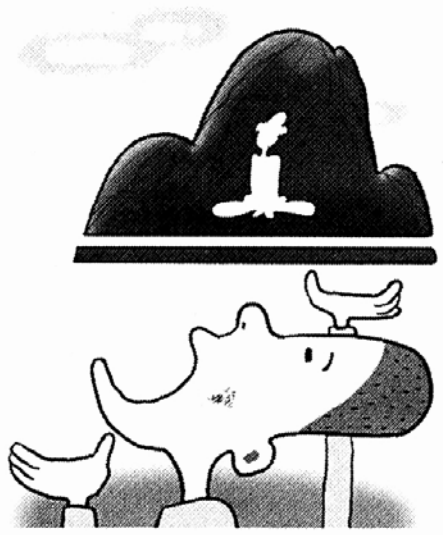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살려면 남의 마음 아프게 말고
섭섭케나 업신여기지도 말고
못난대로 자기와 똑같이 보자

공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알려고 노력 하세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도 빨리 내가 가야겠다 하면 벗어 서 놓고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달렸죠. 그런데 삼년씩, 이 년씩, 뭐 몇 년씩 앓고 병이 들어서 자식들도 고생이고 부모도 고생이고, 친척들도 고생이고, 돈이 없어서 고생이다 보니 온통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부설거사 가족은 간 사이도 없이 그렇게 갔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죽기 위해서 그냥 그 애를 쓰고 피땀을 흘리고 해야만 되느냐 이 소립니다. 생각하면 말입니다

집착말고 뛰어넘어라

옛날에 난리가 나서도 그렇고, 일본사람들이 말을 타고 싸우러 가면 돌부처가 말을 막고 가질 못하게 해서 그 이웃을 다 살렸답니다. 왜 그렇게 말이 가다가 막 튀어 나가고 서서 가지를 못하느냐 이 소립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돌부처가 화해서 여러 명으로 말 앞에 나타나니까 말은 뛰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아까 물 한 모금 마실 때 천 모금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한 생각이라면 천 모금 아니라 만 모금이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환생이 모두 일컬어서 주장했다면 어땠을까 하니까, 어떠한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아! 이런 공부를 조금도 못했기 때문에 죽어서도 화신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공부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죽은 혼백이 있다 하더라고 문을 열고 나갈려도 해도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죠. 닫지를 않으니까. 발길로 차도 차지지를 않으니까 말입니다.

예전에 육조스님이 말입니다. 죽어서 있는데 목을 움치리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을 감추려면, 겨울에 눈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칡꽃이 만발한데다 갖다가 묻으면은 아주 잘 감춰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깐 칡꽃 있는 데를 찾아다니니 세상 천지에 있어야 말이죠. 찾아다니다, 찾아다니다 발이 부어서 쪼개지고 그냥 고생 고생하다 보니깐, 부처님이 할아버지로 화해서 저기 가면은 칡꽃이 많이 피었더라고 일러주니깐 밤에 잠깐 꿈을 꾸고선 바로 일어나서 그 밤에 일러준 대로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정말 칡꽃이 만발했더랍니다. 그래 거기다가 묻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저 보다는. 하하하.

아시는 것은 더 잘 아시는데, 한번 여러분의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 나오면서 이렇게 머리를 굴리셨죠. 그러니 별의 별 게 다 머리 속에 있죠. 여러분의 머리 속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는 거든 모르는 거든 다 머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은 아는 놈은 머리만 보아도 머리에 주장자를 딱 빼서 쓸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도 그 머리에 헤아릴 수 없는 색색가지의 여건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자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공부를 하면 편안하고 즐겁게 산다는데, 제가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때로는 가슴에서 아주 차디찬, 뭐라고 그럴까요? 차디찬 얼음물이라고 그럴까요, 핏물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그냥 좌르르르 흘러내리면 아주 찬 게 좋지를 않아요. 그러고 한없이 눈물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어디서 생겼나 하니까 그게 뼈끝마다 그냥 자기가 마음을 진짜로 낼 수 있다면 그냥 저절로 내져서 눈물은 저절로 나게 돼 있어요, 샘물 나듯이. 그 눈물이 피도 될 수 있는 거지만은 하얀 젖도 될 수 있죠.

여러분이 24시간 살아나가는 동안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산 것이 있이 저녁이 됐나? 삶이 없이 저녁이 됐나? 함이 없이 우리가 했나? 할 것도 없이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서 한 생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생 가는 거는 이 껍데기를 자기가 집이라고 뒤집어쓰고선 그냥 굴러다니다 보니까 이 껍데기가 자기인 줄만 아는데 자기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되면, 벗어버리고 싶으면 그냥 활딱 벗어버리고 나가지 왜 싫은 데 그냥 둡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으니깐 조금 더 있다가 하고 조금 더 있어야지 그게 좀 나아지겠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늦어지고 그렇겠죠. 지금도 이런 말을 하면서 눈물이 자꾸 흘러요. 왜 그럴까요? 왜 나도 모르게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를, 이 마음공부 하신다는 분들이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보시를 한다. 마음의 보시다. 물질의 보시다 이런 거요. 그런데 물질의 보시보다 마음의 보시가 더 중하다. 내가 살아 보니까 당장 굶고 있을 때는 물질의 보시하고 정신적인 보시를 한꺼번에 줘야 되죠. 이 정신적인 보시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단련을 하고 해 봐야 알죠. 즉 말하자면은 주인공에 관해서 자기가 그 쪽으로, 모르는 사람이니깐 들어가야 자기같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일이 해결 나고, 들어가 주니깐 그 사람이 보시를 받죠. 받는 사이도 없이 누가 주는 줄도 모르고 그냥 받는 거죠. 그럼 그걸 받은 인연 때문에 요 다음에 재생을 하더라도 참 아름답게 할 수 있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한 걸음을 뛰어도 뛰는 사이도 없다는 것을 알게끔 될 때 그걸 자꾸 해 보세요. 하다 보면은 아! 내 육신은 아무리 걸어서 몇 십리 몇 만리를 가도 속도가 나질 않는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런데 내 안에 불성은 보배야. 찰나에 다른 혹성에 갈 수가 있어. 그러니 이 껍데기만 의지하고 살지 말고 내면의 불성을 진짜로 의지하고 살아라 이 소립니다. 아파도, 아프게 하면 어떡해. 네가 형성시켜 놓았잖아. 정말 사람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위의 모든 것이 딱 막히고 그래 보세요. 정말 눈물나죠. 눈물납니다. 호화롭게 잘 살아 본 사람은 그걸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팠던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다 알죠.

세상에 잘났든 못났든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왜 눈은 육안으로만 뚫어놨느냐. 보게끔만 했느냐. 속으로 보게 법안으로 뚫어놓지. 뚫어 놓지 않았으니깐 사람 껍데기란 말입니다. 그랬으니 이거를 배우면 법안도 트이고 불안도 트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게 벌써 순간으로 나오는 걸요. 순간으로 그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이 다 나오는 걸, 과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와도 한 찰나예요. 그러니 얼마나 빠르냐구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하면은 잔소리가 되죠. 그러니깐 잔소리해서 될 일이 아니고, 창문이 문이 아니니 문 없는 문을 문으로 알고 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 이 소리죠. 오늘 질문들 하실 분 있으면 질문들 하십시오.

▲질문자1: 부처님을 그리도 간절히 찾아다녔던 사람이 오늘 난생 처음 5층 대법당에서 이렇게 꿇어앉아 가까이에서 우러러 뵐 수 있음을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기쁨으로 더욱 공부에 매진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감히 서게 된 까닭은 마음법의 요체를 여쭈어서 공부의 갈증을 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개인적인 작은 체험을 통해 신묘하게 느껴지는 맛을 아롬으로써 스승님의 은혜에 보잘것없으나마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고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과는 부끄럽고 낯간지러우나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감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3월 셋째 주 법회 날입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저는 또 절에 오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그 날 열리는 동아 마라톤에 뛰키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여덟시에 옛날 경기여고 자리에 모인 일만 이천명은 10시 정각이 되어서야 광화문 네거리의 동아일보 앞에서 총소리에 맞추어 뛰어나갔습니다. 주인공이 두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묵연히 맡기고 대한민국의 심장지대를 온 몸으로 느끼며 국운창성하기를 축원하며 아침의 추운 날씨를 즐기면서 걸음을 옮겨놓았습니다. 따라나온 처와 아이에게 오후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잠실 주 경기장에서 보자고 했고, 그 동안 연극구경을 하도록 보냈었기 때문에 3시간 반 동안의 레이스는 온전히 혼자서 주인공을 발현시켜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또 아무런 의심 없이 녹아서 엎어져야 하는 외롭게 제 스스로 찾아 나선 발길이었습니다.

군자교를 지나 10킬로 매트를 밟을 즈음에 무릎의 통증이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늘 그러했듯이 곧바로 관했습니다. 뛰게 한 것도 너야, 아프게 하는 것도 너고 아프다고 느끼는 것도 너이니 너가 책임지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스님을 불렀습니다. 49분에 지나가고 있었으니 기록으로는 그럴 듯 했습니다. 늘 10킬로미터를 50분 가량으로 주파했기 때문에 그냥 무심으로 내달려 나갔습니다. 잠실대교를 건널 때 그 다리가 유난히 길어 보였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제법이었습니다. 11시 법회가 다가오고 있을 때 스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절에 앉아 있어야 할 놈이 율해도 여길 뛰고 있습니다. 절과 길바닥이 같은 곳이고 앉았는 것이나 이렇게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달리는 것이나 다름 아니게 멀리서 11시 법문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순일하게 집중하는지를 다루어 보려고 몸뚱이를 던집니다, 라고요. 천호 사거리를 지날 때는 남아 있는 25킬로를 뛰기 위해서 물 한 컵과 포카리스웨트 한 컵을 뛰면서 들이켰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은 가도 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무릎은 뜨끔뜨끔하다가 어떤 때는 통째로 굳어지는 듯한 마비증세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온 것입니다. 재작년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에서도, 작년에도 이 코스에서도 왔던 것이 또 오는 것입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나를 만나고 보고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극심할수록 다리가 뻐덩뻐덩해 질수록 님을 만나고 확인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가 아프지 않게 해. 너가 뛰도록 해. 너는 어디 있나?

껍데기를 자기로 알아

몇 년 전 이렇게 눈물과 콧물에 뒤범벅이 되어서 춘천 의암호를 끼고 돌면서 화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던 그 오르막 길이 안겨 주던 극한의 고통 속에서 스님을 부르며 주인공을 찾던 그 사무치던 순간이 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너가 하는 법문 네 귀에 들리게 할 수 있지 않니 하고 마음을 몰고 또 몰아가고 있을 때 주인공은 대열에서 벗어나서 쓰러지게 내 동댕이쳐버렸습니다. 자기를. 28킬로 지점이었습니다. 뒹굴면서 시계를 보니 한 시 십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두시간 십분에 다리가 마비된 것입니다. 28킬로 밖에 안 뛰었는데. 아직 15킬로나 남았는데. 바람은 세차고 자기 자신과 묵묵히 싸우는 장한 선수들의 대열은 끝없이 지나가는데. 저는 길가에 뒹굴어서 온 몸이 뻣뻣하게 굳어 들어오는 극도의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그냥 사무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주인공이 보였습니다. 어린애 손을 잡은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사금파리를 찾더니 드디어 제 가슴에 붙은 5500번 번호표 꽂은 핀을 빼내서는 무릎을 마구 난자했습니다.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차츰차츰 무릎의 마비는 풀리는가 했더니 다시 위로 스물스물 오르락 내리락하더니 왼쪽 사타구니가 터질 듯이 부풀어오르면서 쥐가 나서 다시 마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고마운 양반이 또다시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찔러 나갔습니다. 조금 숨이 쉬어지는가 싶더니 또 오른쪽 무릎이 그렇게. 또 그 위 사타구니가.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그 30여분 동안도 저는 스님을 부르며 주인공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떼어놓고 나가려는 엄마 치마폭을 잡고 매달리듯이. 저는 드디어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게 해. 걸어다닐 수 있게 해. 뛸 수 있게 해. 네 놈이 두 다리를 못쓰게 했으니 풀어서 경쾌하게 내 달릴 수 있게 하는 놈도 너 아니냐. 저는 한사코 매달렸습니다. 이번에는 뛰지 말라고, 이사하느라 청소하느라 며칠동안 밤늦게까지 무리했고, 금요일 강의가 많아서 많이 지쳐 있었고, 토요일은 제가 맡은 학교의 보직

☞ 20면으로 계속

자기 몸속에 세상 밝히는 길 있어

☞ 19면에서 계속

때문에 밤늦게까지 신문을 만들어야 했고, 새벽에 집에 와서는 거의 뜬눈으로 긴장감 때문에 밤을 샜고, 새벽밥 조금 먹고 이렇게 나와 뛰는 저를 처는 완강히 말렸습니다. 무슨 일이 나면 어찌 하느냐면서. 이런 처를 3시간 반 안에는 들어올 거라고 다독이며 되돌려 보내고 이 결전에 임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눈 때문에 장거리 연습을 한차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바쁘게 구르다가 출전했는데 그렇게 저는 오히려 제 자신과 극명하게 만나는 이 기쁜 상황을 더욱 그리며 전의를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이 신묘한, 기막힌 재주를 가진 주인공은 저를 일어 설 수 있게 했습니다. 한 발을 떼어 놓으려는 순간 또 쥐가 나며 두 다리가 굳어지면서 또 넘어졌습니다. 응급차에 타라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저는 스님을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극한 순간에 본 주인공

극한에서의 고통과 울부짖음은 오로지 한 곳으로만 정신을 귀일시킬 수 있는 가장 순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찾고자 하는 이에게는 가장 괴로움을 주면서도 그로부터 가장 완전한 정신의 열락에 맞닿을 수 있기에 석가부처님은 6년의 설산고행을 자청하셨고, 우리 스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을 깊은 산 속에서 찾아 헤매오신 그 뜻을 기리며 저는 뜨거운 눈물 범벅이 되어 발걸음을 떼고 또 옮겨보고 또 걸어보았습니다. 29킬로미터쯤에서 다시 엄청난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습니다. 또 핀으로 마구 찔렀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너가 해. 그냥 버렸습니다. 30킬로 측정매트를 뒤뚱거리며 밟고 지났습니다. 이 때 이미 세시간 반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처가 메인 스타디움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뛰어 들어올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스님 법문은 지금쯤 끝났을 거야.

이 아픔과 대결하느라 스님의 법문을 한마디도 알아듣질 못했으니 너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지껄이며 무심으로 세곡동 네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선생님 지금 몇 시나 됐습니까?" 하는 목소리가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인데 온 얼굴이 크게 이지러져 있어서 큰 중상을 입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한 시 반이요." 왼쪽 무릎 인대가 늘어나서 허벅지를 들어올리기조차 고통스러운 환자였지만 아! 부처님이 또, 주인공의 화신이로구나. 작년에도 삼십 오 킬로미터 지점에서부터 몹시 힘들어하는 사람을 제가 격려해 주면서 그 덕택으로 오히려 제법 좋은 성적으로 골인할 수 있었는데 올해 또 저 젊은 사람이 주인공이 무엇이며 어디,있나를 나한테 보이러 왔구나. 사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 서로 말을 건네고 서로 힘을 실어 주다 보면 도움 받고 건져지고 되살아나는 쪽은 오히려 제 스스로임을 언제나 느끼고 고마워해 온 저로서 부처님은 제 시간에 제대로 나타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꼭 완주하실 거지요. 교수님이시군요. 제가 아까 선생님이라고 제대로 불렀네요.

이렇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서로 격려하며 4시간을 넘긴 사이에 이제는 교통통제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쌩쌩 달리는 차들에 쫓겨서 인도로 올라와서 뛰어야 하는 판이었지요. 15센티미터의 인도 턱에 오를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던지요. 그리고 신호등의 제약까지 받아야 했기에 수서 인터체인지를 지나서부터는 그 아까운 시간에도 멈춰서야 하고 네거리에서는 사정하면서 차들의 흐름을 막아가면서 절뚝이며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얼굴은 우스울 정도로 구겨진 채로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잠실 메인스타디움에 들어왔습니다. 42.195킬로미터. 5시간 26분. 제가 마라톤을 해 본 뒤로 가장 나쁜 성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볼 가마에 들어가 보려고 마라톤이란 방법을 써본 뒤로 가장 공부를 제대로 한 날의 기록입니다.

스님! 지금까지 찾아 왔습니다. 참으로 애타게 늘 설하시던 그 법문을 뻔하게 아는 척하는 제가 미워서 이 방법 저 수단 다 해보고 있었습니다. 불룩불룩 기어다니는 근육의 경련 덩어리를 핀으로 마구 찔러서 풀어주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또 저를 선생님하고 부르며 시간을 물으며 다가 왔던 그 젊은이가 바로 스님이며 주인공의 화신이며 한마음의 응신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놓아 흐느끼며 스님을 불렀습니다. 달리던 그 산야의 길이 찾으며 애타게 부르며 뛰기에는 오히려 십상이었습니다. 아무도 보고 듣는 사람이 없었기에 부끄럽지도 않았고요. 찾는 임 어디 있나 했더니 찾는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거울로는 온갖 것을 다 비춰보지만은 그 거울 자체는 거울이 안 비춰줍니다. 마음으로 만물 만사를 다 보고 알아도 자기 마음 자체는 제 마음이 볼 수 없지요. 그러니 아무리 한들 어디 가서 찾고 볼 수나 있겠습니까? 스님께서 가르치시는 불법이 너무나 쉬워서 저희들은 오히려 더 못미더워 하고 있지요. 찾는 자기 속에 진리의 당체가 그대로인체 여여한데 저희들은 신기하고 오묘하고 위대한 어떤 것이 꼭 있을 것이리라고 지레 믿고 달려드는 습에 오랜 세월동안 젖어 왔으며 또 그리도 큰 것을 바깥으로만 찾으려는 병폐 깊숙이 앓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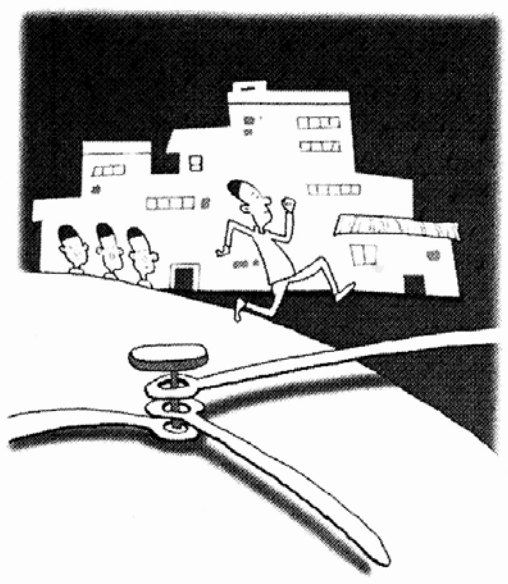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육신 아닌 내면 불성에 의지하라

자기뿌리 믿어 모든곳에 써먹도록

공하니 공한 곳에 놔라

제가 불법이 적혀 있는 몇 권의 경을 읽어보았습니다. 답은 모두 하나. 모두가 공하다였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이 경에서 저 경전에서 모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절에서 깨쳐들은 한 말씀의 진리가 있습니다. 공함으로 공한 곳에 놓아라. 공한 곳에 몰록 쓸어모아 나아가면 그냥 스위치 올리듯이 전기가 통한다. 일체가 공하기에 그냥 다 통한다. 모든 것이 공하기에 성분이 다 똑같기에 그렇다. 마음만 일으키면 그냥 그대로이다. 이 말은 진리이다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 자기가 자기의 뿌리를 믿어서 모든 곳에 다 써먹어라. 이 부처를 활용하는 묘용은 제가 탐구해 본 바 어느 경전에도, 어느 선지식의 가르침에도 본 바 없고 들은 바 없습니다.

저희들 이제 눈뜨고 있습니다. 님을 그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걸음마 하려 합니다. 이 거룩하신 진리의 법문을 온 누리에 펴지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감로의 법문에 목축이고 하루 하루의 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싱그럽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 스님의 가르침이 전파되는데 머리 한오락 만큼이라도 이 몸뚱이가 쓰여질 수 있다면 더 없는 큰 기쁨, 참으로 다함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부처임을 알려하면, 이 생에서 닦아서 세세생생 쓰려 하면 지금 이 자리 생각하는 이 놈이 바로 부처요, 찾는 님인 것을, 믿으면 부처요 못 믿으면 중생인 것을….

▲스님: 화엄경에도 그렇지만 모든 경전에도 기둥마다 줄기마다 연꽃이 피고 향기가 난다고 그랬소. 그런데 그 줄기가 누구의 줄기냐 하면은 자기의 모든 혈관의 줄기였소. 그 말대로 그렇게 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사람의 혈관 줄기에 연꽃이 피었소. 그렇게 피더라고. 그러니 길은 딴 데 없어. 자기의 몸이 이 세상의 길이고, 이 세상의 그릇이고 이 세상의 색색가지가 한데 합쳐진 공식 바로 그머리야. 향내가 위아래서 나고 꽃이 피어서 휘날릴 때 남들이 꽃을 못 보든, 보든 그 꽃을 받으면은 영원히 이 세상에 벗어 날,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고 벗어나서 먹는다 입는다 싸우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건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그러니 정말 앞으로 귀신 털을, 귀신 씨를 아주 잘 길러서, 지금 귀신 털을 가진 소린데 뭐. 잘 길러요. 하하하.

믿으면 부처 못믿어 중생

▲질문자 2: 요사이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깐 과연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 생각을 하다 보니깐 과연 우리가 그동안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업식이나 아니면은 이 몸이라든지 나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 세상이라든지 인연업보 등에 얽매여서 사는 것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구나. 우선의 목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출세도 아니고 달리 얘기하면 진짜 인간이 되는 그런 공부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름하여 저 나름대로는 이것이 출인간이구나, 아니면 진짜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진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공부를 하는 과정은 스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 공한 자리에다 놓고서 몸과 나라고 하는 의식도 놓고 인연,업보도 다 놓고 완전히 주인공과 계합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을 다 벗어났을 때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벗어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떠한 자리이고 육신을 벗어난 자리는 어떨 것인가 라고 하면서 물론 차원과 각자의 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한 자리는 어떠한 것인지요.

▲스님: 물론 높다고 하면 높은 자리가 따로 있죠. 또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고 산다. 이런 것도 보살의 한 등이차적인 문제죠. 또 삼차 중생으로서 아주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사느냐. 남한테 악한 짓 안하고 사느냐. 중생으로서의 그냥 삶을 산다는 것이 삼차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삼차적으로 사는 거는 좋은데 삼차적으로 살다가 보면은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다시 선하게 살아도 악한 것이 거기에 또 끼어 들어서 선한 것도 악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다면 우리들의 몸과 같이 이렇게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니다가도 구제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게 화해서 보여서 건져주고 가다가 없어지면 또 그만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혹성이고 저 혹성이고 따로 없지. 그러니깐 만법을 그 공법으로서 그냥 이룩하느냐, 그냥 법으로 요것 조것 따져서 놓느냐. 그러면 이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지. 그래서 정말 보살의 행적이란 여러분이 볼 수도 없거니와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본다 하더라도 그게 뭘 하는지 모를 거고. 그러니깐 여러분은 24시간 일했다고 그러는데 일한 게 아니라 그거 한 찰나에 그런 보살이 있다면 벌써 다른 혹성에도 한 찰나에 오고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깐 그걸 잘났다 못 났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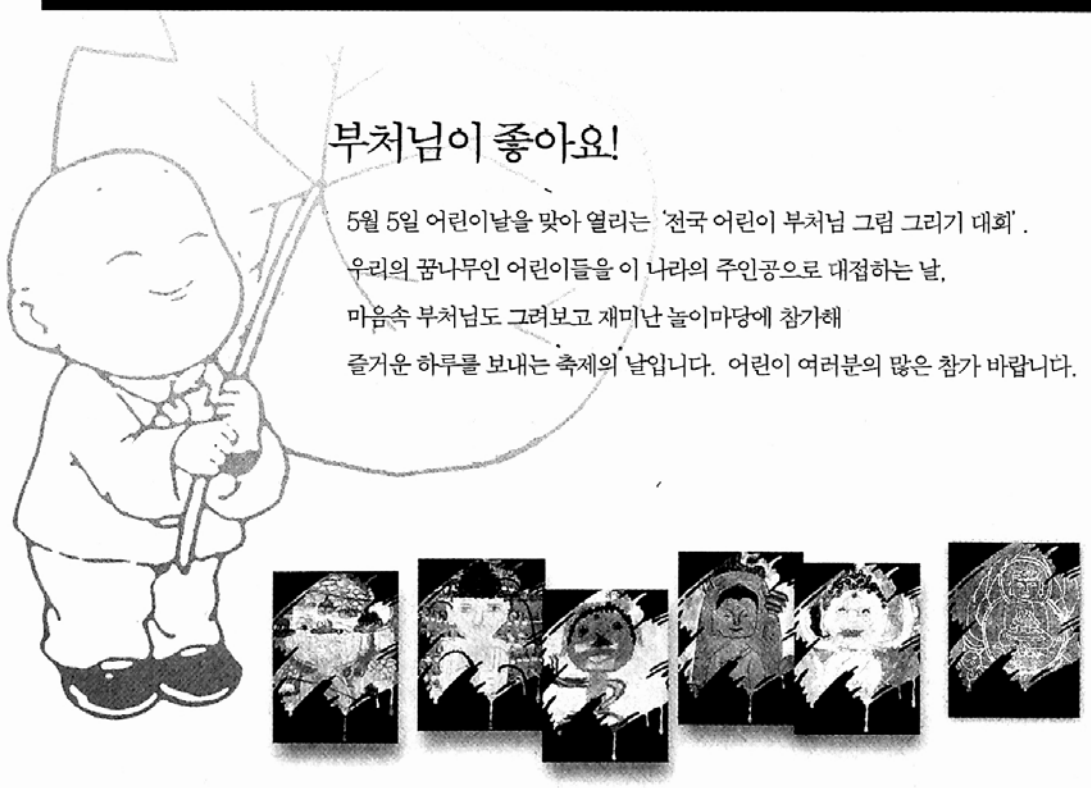
그리고 내가 항상 즐거우면 다 즐겁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고 사는 거. 모두가 평등하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 살려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말고 남을 섭섭하게 하지말고 업신여기지도 말고 자기가 못났으면 자기가 못난 대로 똑같이 생각하라 이거야. 그러면 쉬울 거 아니야. 나와 같이 못났구나 하고. 전자에 내가 못났을 때 나하고 똑같구나 하고 생각하면 아예 남을 얕보지도 않게 되잖아. 사실이 그러니까. 알고 보면 기어다니는 벌레도 그게 벌레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 사람도 사람으로만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 또는 이 집에서 살다가 저 집으로 가서 태어나고 저 집에 갔다 이 집으로 태어나고, 딴 나라에 가서 태어나고 이러거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한 번 생각을 잘 하면은 한 우물 안을 아주 깨끗이 정수를 만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깐 그저 살기가 좀 피곤하더라도 그렇게 잘 사세요. 식구한테 욕하지 마시고,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잘하든 못하든 내 탓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또 살기에도 편리하지만 요 다음에 재생이 될 때 참 갸륵하게 태어나실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나서 공부 열심히 하신다면 그 때 태어나지 않고도 이 세상을 아니, 우주 전체를 한 찰나에 돌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그저 어디 경치 좋은 돌이 있으면 그냥 돌을 집을 삼아서 들어 가셔서 구경 다 하고 또 딴 데로 가시고 아!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지난 4월 1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월간「불광」· 목아불교박물관 · 법주사 주최 제 7 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부처님이 좋아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열리는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우리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대접하는 날,
마음속 부처님도 그려보고 재미난 놀이마당에 참가해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축제의 날입니다. 어린이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일 시: 2001년 5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 소: 속리산 법주사 (043-543-3615)
대 상: 전국의 어린이 (만 5세 이상 유치원생, 초등학생 1~6학년)
참 가 비: 5,000원 (10명 이상 단체 참가시 1인당 3,000원, 작품 우편 응모시 작품과 5,000원 우표 동봉)
준 비 물: 참가 부문별 미술도구(크레파스, 그림물감, 조각도, 화판 등), 모자 착용, 돗자리, 도시락
특 전: 참가자 전원 기념 T셔츠 등 선물 증정(행사 당일 참가자및 동반자법주사 무료입장)
주 최: 월간 불광, 목아불교박물관, 법주사
참가부문: 크레파스화 부문 - 유치원 · 초등 1,2학년 | 수채화 부문 - 초등 3,4학년 | 판화 부문 - 초등 5,6학년
참가방법: 하나 5월 5일 당일 행사 참가 둘 작품(우편) 공모 참가
(응모작품 규격 : 각 부문 8절 도화지 사용, 판화부문 1도 인쇄, 응모기간 : 4월 1일~4월 25일 우편 응모작품 뒷면에 소속사찰 어린이법회, 학교, 학년, 반, 성명, 성별, 집주소, 전화번호 명기)
시 상: 우뚝으뜸상 (1명, 상장 및 상품) | 각 학년별 으뜸상 (6명, 상장 및 부상)
각 학년별 버금상 (6명, 상장 및 부상) | 유치부 으뜸상 (1명, 상장 및 부상)
유치부 버금상 (1명, 상장 및 부상) | 보람상 (500명, 상장 및 상품) | 한마음상 (3곳, 상장 및 상품)
발표 및 시상: 행사 당일 참가작과 우편 응모 참가작 모두 5월 5일 행사 당일 발표 및 시상
(우뚝으뜸상과 각 학년별 으뜸상, 버금상 명단은 월간 불광 6월호에 게재하며, 보람상 이상 수상자 전원을 대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그림 그리기와 함께 펼쳐지는 올해의 놀이마당 - 출발 보리팀!
· 봉망치 서바이벌(볼풀) · 월리엉텔 따라잡기(활쏘기)
· 꼬마자전거 타기 · 릴레이 덩크슛 · 림보댄스 · 통나무 밀어내기

참가신청 및 문의
월간「불광」 02) 420-3200 | 목아불교박물관 031) 885-9952~4 | 법주사 043) 543-3615 | 선재이벤트 0502) 317-2555

후원 :문화관광부, 봉축위원회, 보은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보은교육청, 한국박물관협회,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불교방송, 학교법인 동국학원, 불광사 불광법회, (재)보덕학회 협찬 : 롯데월드, 롯데칠성음료(주), 짐경이 우리옷(주), 생활한복 짱아, 대한불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월간「불교」, 월간「금강」, 중앙승가대신문사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붓 다 마 켓
www.BuddhaMarket.com
인터넷 불교 용품점
도매 (B2B) × 소매 (B2C)
부산 금정구 남산동 225-12
051)583-7939

찬불가 피아노 렛슨
방송피아니스트 도연
◇ 합창반주반 ◇
1. 체르니 수준을 치셨던 분
2. 기본적인 코드는 알아도 세련되게 응용이 안되시는 분
3. 악보는 잘 치실 수 있으나 멋있는 편곡 변화를 모르시는 분
4. 찬불가를 대중대중 치실 수 있는 분
5. 찬불가 합창단의 반주자가 희망이신 분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째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직업연주반 ◇
전공자 및 피아니스트 희망자
에드립 및 째즈와 클락식과 실용음악을 응용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도연피아노학원 02-834-2270/011-663-2270

녹차 판매
지리산 화개야생녹차(햇차)
※ 공장도가 판매
※ 샘플 무료로 보내드림
※ 한통도 주문 可
055) 883-9321
염목다전(지리산 화계)

특허품 **명당 氣 탐지기** 특별 보급기 38만원
◎ 발명신상품(특大) 수맥탐지기 12만원
※ 수험생용 베개, 방석, 건강 천연지기요 수맥방지 바닥 마감재 (1평당 6만원)
▷ 농협 150042-52-200478 이민택
053) 982-6778 / 011) 813-3679

(50대 비구 스님)
· 3년간 기도처 구함
· 조용한 암자 관리하여 드림
011)9328-6661

40대 비구스님
조용한 암자
관리하여 드립니다.
▷ 명리학, 침술 능통
051)244-3360
011)879-3217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대한불교 조계종 철마산 모각사
032)522-8131

법왕사 행자(男)모집
◆ 세계 최대불교 종합복지관 건립도량 법왕서에서는 21세기 불교를 이끌어갈 신심있는 행자를 모집합니다.
◎ 자격 : 고졸이상의 40세 미만
(단, 고졸이하는 검정고시 교육후 자격 부여됨)
◆ 대학교 불교학과에 진학 할 경우, 박사학위 취득시까지 법왕사에서 전액 지원함
◎ 21세 전후 환영
문의 : ☎ 053)766-3747, 9088
인터넷 : www.bubwang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당

상담해 드립니다
기공수련이나 업습을 버리는 마음 수련을 할 만큼 했는데도 현실 생활속에서 고뇌를 경험하고 계신분 무료상담
현대생활 레이키 연구회
02)720-568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전라도 광주 비전사)
062)951-3562

경기도 화악산 줄기 산세가 우렁하고 물세 좋은 조용한 암자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생활하실 비구니 스님을 구합니다.
017)708-0635
수 월 스 님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된 성불사에서 정법으로 함께 수행정진할 스님이나 거사님 몇분을 모십니다
침식등은 무료제공
054)858-0134

임야 (급) 안내
• 용도 : 사찰적지 및 농장도 가능함
• 소재지 : 의정부시 산곡동 소재 (의정부 역 하차 10분 거리)
• 면적 : 약 8000평
• 기타 : 매매가격 절충 최하가격 가능
문 016)405-1727
의 018)260-0419
야간 02)419-0419
야간 02)2247-3821

사찰 (급) 안내
• 신축 사찰을 조성 원가 20억 일부 보시하고 양도 합니다. 뜻있으신 스님 연락 주십시오.
• 부지 2천평, 건물 180평, 포집양식, 정남향 기와, 황토집 (건물 7동)
• 경부 고속도로 용인, 기흥 IC 인근
031) 375-7063 (창건주 직접)

기도,공부할 분
심신을 수련하고 공부 정진 하실 불자님 모십니다.
청정도량 정안사
031)375-1831

모십니다
· 공양주 보살님
· 기도하실 분
관음기도 도량(월 30만원)
· 기도스님 모십니다
055)552-7979
011)855-1116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60세 미만)
052)288-452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50세~65세 미만)
▷ 경북 구미
052)288-4520
,0845 (주지실)

법회를 지도해 주실 스님을 모십니다
본원은 불자교육과 참선 수행도량으로 불교교양대학과 신도수행을 이끌어 주실 스님을 모십니다.
문의전화 054)273-0108
포항 고불선원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31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5평
• 가액 : 3억 1천만원
※ 전국 사찰 양도 ※ 사찰 전문 소개소
광진불사 02)723-4082

스님, 행자 초빙
큰스님 지도하에 수행 기도하실 출가 희망자, 기도스님 모심, 창건 사찰
경남 밀양 얼음 골
055)356-1394
055)356-5968

소나무 숲속의 양지바른 땅
산높고 물맑은 강원, 조롱박 물마시며 솔향속에 묻혀사는 여여한 삶터. 치악산 구룡사 앞 명산 구룡산 자락의 천하절경 명당자리 입니다. 노송사이에 학들의 군무가 아름답고 밤이면 반딧불과 밤하늘 쏟아지는 별빛이 눈부신 곳. 휘감아 흐르는 청정계곡과 약수가 있습니다 (문인,화가,마음공부하시는분과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의 최적지임) 100%준농림 1400평
희망가액 8000만원이고 분할도 가능합니다.
011)379-5152 주인직접

토굴 안내
• 가액 : 800만원
구옥 방 4개, 사용가능 대지 150평, 입식주방, 건축물 등기 있음, 변기 자기 수도, 자동차 진입로 포장, 음성 읍내까지 7km일년 도지 (대지 사용료 쌀 한가마니)
011)9046-9903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산 19-17
• 대지 : 300평
• 건물 : 범당, 기와, 요사채, 미륵 3존불 58년된 사찰
• 특징 : 월명공원 부지 내에 위치
• 가액 : 5천만원 (가격 절충)
전북 군산 미륵사
011)9646-3220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 대지 38평, 실사용평수 45평
• 특징 : 인법당, 주변녹지, 경관수려, 교통편-전철역 10분 버스종점에서 5분 거리
• 가액 : 1억5천2백만원
016)481-6909

사찰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 대지 : 120평 • 건평 : 120평
• 가액 : 총 5억 (융자 1억 포함)
교통 및 주변 여건 매우 좋음
• 불기구 (약 5천만) 무상제공
031)454-1133
011)386-6467

탈 중 공 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법 명 일보 속 명 임윤이
주 민 340120-285161
사찰명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산 28번지 월궁사
본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여 이의 탈종 공고 합니다.
2001년 4월 11일

조용한 암자에서 같이 기도하시며 생활 하실 분
▷ 비구스님, 처사님
017)708-0635
※ 계곡에 위치해 있으며 산세 수려함, 경기도 지역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목포 유달산 달성사
061)244-1489
011)624-2133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 건물 : 요사채 20평 1동, 법당 15평
• 대지 : 450평, 사유지 300평
• 가액 : 전세 3,000만원
※ 산세좋고 양수리 부근임 초파일 법회 가능
011)201-2561

사찰터 구함
• 평수 : 약 500평 이상 남향이나 동 남향, 동향 현재 사찰이 있어도 됨
충청도 지방 원함
011)9680-4708

사찰안내
• 위치 : 광진구 중곡동 용마 4거리, 큰 대로변, 상가 빌딩 3층
• 평수 : 4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 특징 : 무제한 주차 가능 전철역 10분거리, 화장실, 샤워실, 도시가스
02)3409-3209

사찰 안내
• 대지 : 192평 • 건평 : 90평
• 요사채 : 20평
• 법당 : 70평
방 6개 주방 3개 거실 3개 욕실 2개
※ 법당 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영험한 기도 도량
031)952-79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대지 : 240평
• 건물 : 50평(신축), 삼존불-석지반,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임법당, 방 3, 화장실 2개, 창고 1, 마당화장실 3, 현대식 주방, 욕실, 기름보일러, 시설 A급 (즉시 법회 가능)
• 특징 : 교통편리, 주차완비, 정남향, 뒤는 산, 주위 땅 싸게 매입 가능
• 가액 : 9천5백 (답사 후 절충가능)
011) 501-1640

사찰안내(전세)
• 위치 : 서울 근교 30분 거리
• 평수 : 대웅전 20평, 지각장 12평 요사채 30평 • 대지 : 256평
• 가액 : 3억 (전세 1억 5천) 전세후 매입도 가능
• 특징 : 교통편리, 주위전경 좋음, 개별중
031)637-0325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소재
• 대 지 : 120평
• 법 당 : 40평 (2층)
• 요 사 : 40평 (1층)
※ 뒤는 아산이며, 마을근접 텃밭도 있음. 도심포교건물로 건축한 포교도량 임. 지하철역 10분 거리
• 양도가 : 2억5천 (융자있음)
포교당 매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2층 건물 중 2층 40평보증금 3천 월 50만원 시설비 : 천만원
※ 30년 역사의 오래된 도심 포교당 임
※ 철학, 역학 하시는 스님, 또는 보살 최적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270평
• 법당 : 9평 • 요사 : 20평
• 가액 : 1억 3천만원
※ 전국 사찰 양도 ※ 사찰 전문 소개소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 건물 : 37평 1층 요사체, 2층 법당
• 가액 : 6,500만원 (융자있음)
• 시설 : 지하수, 뒤 : 공원, 교통편리
• 대상 : 비구니스님, 무속인, 사주보시는 분 가능
061)762-2630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300평(문중땅 년 사용료 50만원)
• 법당 : 25평, 요사 : 30평
• 굴법당 : 15평, 산신각 : 5평
• 가액 : 8천만원
• 특징 : 산밑 기도 영험 도량으로 주변경관이 수려함
사찰전문융역 02)736-3578~9
금강기획 011)789-2255

암자(급)안내
• 위치 : 경북 군위(부처골)
• 대지 : 182평 , 밭 724평 건평 43평, 황토집 2채
• 노천 석불 양도가 5300만원
• 3년분할, 전세가능
스님 직접 053)982-6778
011)813-3679

부동산(급)임야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 2리
• 용도 : 사찰부지, 기도원, 암자, 납골당 및 공장부지(재활용 재생등)도 적합 함
• 평수 : 2만 6백평(뒤쪽산 경계선에 약 10만여평의 방치된 땅이 있음)
• 가격 : 답사후 가액 절충가(직거래원함)
• 교통 : 마우 편리함(마석에서 현장까지 승용차로 10-15분)
• 시설물 : 가옥 2동(46평), 우사(80평)및 부대시설, 식수탱크, 전화, 전기
031)595-4436/011)9094-443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위치 : 용인 • 위치 : 부산
• 법 당 : 24평 • 법당 : 34평 • 법 당 : 45평
• 요 사 : 50평 • 요사 : 70평 • 요사 : 120평
• 부 지 : 300평 • 부지 : 450평 • 부 지 : 81평
• 가 액 : 3억2천 • 가액 : 4억 • 가 액 : 3억2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급 안내
• 위지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혜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 438평 (종교대지 등기필)
• 건물 : 법당 31평 (목조 3포, 5포, 금단청필)
• 요사 : 80평 (방10칸, 주방2칸, 거실)
• 명부전 : 10평 (단청필)
• 기타 : 주지실 사무실 포함 9평, 창고 약 4평, 주차장 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가능
• 가액 : 8억 (건물완공 4년, 총공사비 12억 들었음,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큼. 노스님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 055)294-4889 02)351-4447 053)652-9598 02)326-1060

사 찰 안 내
• 위치 : 가평군 하악산 줄기
• 특징 : 벗나무가 많고, 산세수려, 물이 좋고, 계곡 깊음
• 건물 : 법당, 용화전, 용왕전, 산신각, 요사채 2동, 사워실, 욕실, 화장실
• 평수 : 1000평
• 가액 : 3억 5천 (절충가능)
017)708-0635

이전안내(사무실)
주간 불교 신문 -
광주, 전남지사 사무실 이전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418호
062)222-5587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우라리
• 임야 : 830평
• 사용 : 2000평
• 싯가 : 2억
• 가액 : 1억 2천
하우스 두동 150평(법당, 산신각)
차석용 054)751-8225

일자리 찾음
· 사찰운전직 원함, 연령 50대
· 최근근무처 : 식품회사 운송 및 관리업무 · 학력 : 대학 중퇴
· 도울 수 있는 업무 : 운전직, 건물보수관리 (단청, 조경, 원예, 채소재배)
· 월급 : 상의하여 조정 원함
▷ 부 산
017)561-1981

지리산 시조암 선원
• 위치 : 실상사 마천→백무동방향→가채마을 위
• 대지 : 605평 건평 32평 황토방 한옥 2채 자연식 탑 둘레 25m 텃밭 • 가액 : 1억 9천
• 특징 : 전체 자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경관수려, 주차 시설
• 함양 휴천 계곡 옆 토굴터 2천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 4가 (요지)
• 평수 : 70평 4층 건물 3층
• 구조 : 법당시설 A급, 개금동불 (아미타불 5자) 일급 탱화 모든 시설 완비, 요사채 2, 주방 1, 앰프시설완비, 샤워장,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전세) 월세 8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523-0716/054)292-4117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부천여중 뒤
• 평수 : 3층 23평
• 보증금 :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천만원
032)654-5859/011)294-0528

사찰 안내
• 위치 : 은평구 응암 4동 (대림시장옆) 2층 35평
• 석가모니불, 지장, 관음(동불조성), 후불, 신중, 철성탱화, 대북, 범종, (불단조각, 닫집) 경탁, 경상, 영가단 및 법당내부단청했음. 대형에어콘설치
• 법당1, 스님방1, 상담실1, 주방 및 방1, 화장실 및 욕실1, 뒤베란다, 앱프, 도시가스 완비 (비구니, 무속인,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시설A급 시설비 별도 절충가
011)685-8484/02)376-8182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 (버스 정류소 50m) 고목, 대나무 울창
• 가액 : 5억 2천
016)651-1800
011)870-1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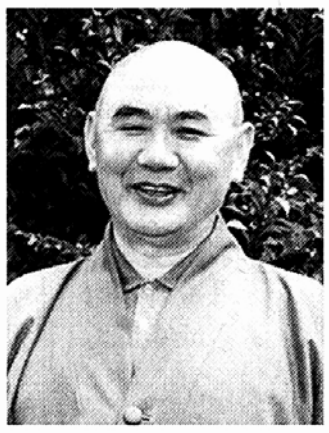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와룡사 산세좋은 2차선 도로변
• 대지 : 158평
• 건물 : 2층 법당, 1층 요사채, 삼존불, 건평 65평
• 가액 : 총 평당 25,000원
055) 854-6458
011) 840-1578

사찰안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1평
• 요사체 신축건물 50평
지방문화재 3층 석탑, 대지 400평 등기필 있음. 도로근접 동네를 끼고 있고 절 뒷면 등산로 심아 보일러 태양 온수기 설치 주차장 있음
• 가액 2억 6천 (절충 가능)
011)671-5161
063)451-2410, 451-5161

차암련 회장에 듣는다

"제주불교사 정립에 노력"

제주불교총련 중원스님



"제주불교는 지리적 위치로 보아 육지의 불교와는 또다른, 특유의 역사와 전통을 형성해 와 제주불교만의 독특한 불교사와 불교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주불교는 18세기 초에 제주에서 거의 절멸되다시피 하다가 지난 1907년 안봉려관 스님에 의해 새로 시작됐습니다. 거의 200년 가깝게 끊어진 제주불교사를 바로 잇고 전통을 확립하며 제주불교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는데 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주불교총연합회 회장 중원스님(제주 관음사 주지)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제주불교사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 착수 '제주불교총람' 발간 △제주에 있는 사지 조사 △ 제주지역 불교와 관련된 지명 조사 △제주불교학 정립 등 계획을 설명했다.

절터·지명 등 조사 … '총람' 발간

제주도는 조계종과 태고종, 법화종, 일붕선교종 등의 사찰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대부분의 행사가 초종파적으로 추진되고 참여되고 있다. 따라서 불자들의 화합과 단결력이 그 어느 곳보다 높다고 자부하는 중원스님은 이러한 제주불교 특유의 장점을 잘 살려 내부적으로는 친목과 단합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대 사회활동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요즘 물질위주의 가치관에 침몰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방황하고 이기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부처님사상을 배우는 것은 진정한 자아를 찾고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섬불교 특유의 기복신앙을 극복하고 부처님가르침을 진정으로 깨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가르침을 잘 알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불교문화원, 불교교양대 등의 개설로 교육을 강화해 제주불교의 질을 높이고 이 사회를 밝고 향기롭게 가꾸어 가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주도

또 민족의 영산이며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반대 운동을 제주불교총련이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환경이나 복지 등 활동에도 역점을 두어 불교의 대 사회적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시민운동, 환경 운동 등도 제주불교총련이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94년 10월 '제주불교협의회' 로 출발했다가 96년 총연합회로 확대개편된 제주불교총연합회는 제주도내 사찰 240여 사찰이 가입되어 있으며 특히 부회장, 부장, 차장 등 조직에 스님 뿐 아니라 남자신도 여자신도 등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사부대중의 연합기구로 확대된 것은 종파는 물론 승가와 재가를 초월 하나가 되어 제주불교를 발전시키고 포교를 해야한다는 제주불교계의 희망을 반영시킨 결과이다.

제주=이경숙 기자

청련암 '경내지 도로' 말썽

수원시 추진에 주민반발

"전사법 무시 · 환경 훼손"



◇청련암 경내를 통과하는 수원시의 계획 도로는 사찰 유치원 놀이시설과 실습용 밭, 일주문 등을 가로 지르게 된다.

수원시와 주택공사가 전통사찰보존법을 어겨가며, 수원 청련암(주지 도문) 경내지를 통과하는 도로 개설을 강행하려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달 11일 공람을 통해 청련암 부설 연화유치원(원생 330명) 놀이시설 및 교육용 밭을 통과하는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중로 1류 19호선)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조계종과 보훈복지타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11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청련암 경내지 통과 도로는 청련암 전각에서 불과 20m 거리를 통과해 전통사찰의 수행환경 및 문화재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찰부설 유아교육환경의 저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청련암 경내지 수용을 통한 도로개설 의지를 굽히지 않은 채, 지하도로화 및 지상공간에 대한 조경식재와 소음저감 대책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의 변경안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우회도로의 추가개설로 인한 전통사찰의 기능상실 및 유아교육환경의 훼손, 광교산 자연휴양림의 파괴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청련암과 주민들의 입장이다.

청련암 주지 도문스님은 "수원시는 전통사찰의 경내지 수용시 문화부장관의 사전 동의와 해당 사찰의 대표자와 협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전통사찰과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가 유공자들과 유치원생들의 안전사고와 정서장애를 유발하는 도로 개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시와 주택공사는 지난 95년부터 인근지역의 주공아파트 건설과 함께 도로건설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경북경찰청 경승 창립

실장 법조스님 추대

호국안민기원 및 경북지방경찰청 경승 창립법회가 9일 영천 은해사(주지 법의)에서 사부대중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사진)됐다.

이날 법회에는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법조 경북지방경찰청 경승실장(고운사 주지)을 비롯 김중권 민주당 대표, 이의근 경북도지사, 전용찬 경북지방경찰청장 등 정관계 인사와 불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대 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경북도내 경승스님들이 경찰관 포교와 유치인 교화를 통해 범죄예방과 재범방지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부산지하철 '자비의 말씀'

부산 지하철에서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자비의 말씀' 게시판이 부착됐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는 서울과 수도권, 대구에 이어 10일부터 부산지하철 1,2호선 총 55개 역사에 각 4개씩 모두 220개의 게시판을 부착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3경·3수·3물 지정

경주 불국동 관광상품화

경북 경주시 불국동이 자체적으로 3경(景) · 3수(水) · 3물(物)을 지정해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경주 불국동은 10일 관내 석굴암 일출과 불국사 봄 벚꽃, 석굴로 가을 단풍을 3경으로, 구정 온천수와 불국사 오동수, 석굴암 감로수를 3수로, 구정 땅두릅 및 시동 부추, 시래 양송이를 3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장학금 2천8백만원

한마음선원 학생 28명에 전달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스님)은 7일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7명 등 모범학생 28명에게 1년치 학비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금은 중학생은 각 64만원씩, 고등학생은 각 120만원씩 모두 2,780만원이다.

한마음선원은 이어 10일에도 동국대 선학과 일반대학원 학인스님 2명에 200만원, 경주캠퍼스 선학과 학인스님 4명에게 200만원의 장학금도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법주사 흰 사슴 방사

제5교구 본사 법주사(주지 지명)는 금동 미륵 대불의 개금불사를 기념해 오는 24일 흰 사슴 한 쌍을 포함한 5마리의 사슴을 인근 산림에 풀어 줄 계획이다. 이들 사슴은 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유산리에서 사슴목장을 경영하는 백인범(79 · 호법농원 대표)씨가 기증한 4년생 흰 사슴 한 쌍과 생후 8개월 된 새끼 사슴 3마리로 지난달 사찰 인근의 간이 막사로 옮겨져 적응훈련 중이다.

태고종

안정사 주지 진산식



백우 사정원 부원장(사진)은 3일 태고종 서울 3대 사찰중 하나인 왕십리 안정사의 제24대 주지에 취임 3일 진산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혜초스님 인곡 전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 종단 간부들과 고재득 성동구청장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진산식에서 백우스님은 인사말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회관 건립불사를 비롯 가람정비와 사부대중의 교육강화, 신도 조직의 재정비 등에 역점을 쏟겠다"고 말했다.

천태종

명장사 종합불교회관 기공



청주 명장사(주지 화산)는 종합불교회관 '대승전' 기공식을 8일 봉행(사진)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도용 종정 스님, 운덕 총무원장스님, 박형철 참의원장 등 종단 스님들과 이원종 충북도지사 등 2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명장사 종합불교회관 대승전은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1천여평 규모로 오는 2004년 상반기에 낙성될 예정이다.

법화사 연화장 세계 '장엄'

구품연지 복원…연꽃심기 축제 성황

우리나라 사찰의 연지(蓮池)중 최대 규모로 복원된 제주 법화사(주지 시몽)내 구품연지에서 연꽃심기 축제가 벌어졌다.

법화사와 법화사복원추진위원회는 구품연지의 복원이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7일 제1회 연꽃심기 축제를 개최했다.

1부 법요식과 2부 연꽃심기로 진행된 이날 축제에는 중원 관음사 주지, 다정 백양사 주지, 성공 약천사 주지 등 스님들과 법화사 신도, 우근민 제주도지사, 강상주 서귀포시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법화사 주지 시몽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구품연지 연꽃공양을 계기로 법화사가 그 웅장했던 옛 모습으로 하루속히 복원되어 만 중생이 귀의하고 미래역사를 창조하는 중심도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천700평의 구품연지에는 이날 참석한 사부대중에 의해 백련 홍련 수련 등 1천여 뿌리가 심어졌다(사진). 통일신라 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법화사는 원나라 황실과 고려 왕실의 원찰로서 중창되기도 하는 등 육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사찰이었다. 지난 82년부터 발굴조사가 시작되면서 과거 법화사에, 4천여평의 구품연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었다.

제주=이경숙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아바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워저드 김희균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造成한圓滿
慈悲하시고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聖像
이시다
二五四五年二月二十一日
小林西翁謹書

■ 주전서



■ 고불총림 방장 서옹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구미 불로사 어린이 합창단 25일 뮤지컬 공연

'부처님 오신날' 장애인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불로사 룸비니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장애인을 위한 뮤지컬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한창이다.

"부처님 탄생의 기쁨과 큰 뜻을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요. 포교하는 마음으로 친구들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7일 구미시 불로사(주지 현오) 법당. 70여명의 불로사 룸비니 어린이 합창단이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연습에 한창이다. 정반왕 누나역을 맡은 박예진(구미여중1)의 말처럼 얼마 남지 않은 공연을 앞두고 송은호(43) 선생님과 어린이들, 스님 모두는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25일 구미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초청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뮤지컬 공연을 펼치게 될 룸비니 어린이 합창단들의 연습에 임하는 각오와 정성은 더욱 각별해 보인다.

25일 선보일 '부처님 오신날'은 불로사에서 대본, 무대장치, 의상, 연출까지 직접 만든 창작뮤지컬이다. 부처님의 탄생을 둘러싼 주변 이야기를 코믹한 웃음과 감동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이 뮤지컬은 막과 막 사이 룸비니 합창단의 고운 화음으로 들려주는 찬불가에서 감동이 절정에 달한다. 특히 부처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막에서는 모든 출연진들이 객석과 한데 어우러지는 시간을 마련해 장애인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려는 숨은 배려를 느끼게 했다.

매주 토,일요일마다 거의 절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봄방학 때는 아예 3박 4일 절에서 합숙 연습을 하기도 했다. 룸비니 합창단의 뮤지컬 공연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 불로사내 양로원인 불로원에서 펼쳤던 음악공연이 기대이상의 호응을 얻자 올해는 더욱 어려운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로 하고 그 대상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로 했다.

연습장을 오가며 소품을 정리하고 막을 여닫는 일을 도와주고 있던 현오스님은 "이번 공연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육체적 불편을 극복함은 물론 자신의 존귀함을 되찾으라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부처님 성장과정에서 열반까지를 창작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날 줄 모르는 연습장을 나서며 자비의 참뜻을 전하는 노래말이 긴 여운이 된다.

"자비는 선한 마음~극락은 바로 이 세상~극락은 바로 이 몸! 극락은 바로 이 곳!"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는 중에도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자리는 귀한 이 때, 25일 펼쳐질 룸비니 합창단의 뮤지컬 공연은 장애인들의 몸과 마음에 극락을 화현하는 연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구미=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복지시설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체험 · 등반대회등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계 각 단체들이 세상나들이, 체육대회, 장애체험, 등반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승가원, 연화복지학원, 강북장애인복지관, 원심회 등 교계 장애인시설의 장애인을 초청해 15일 남양주 봉선사로 세상나들이 행사를 개최하며 02-723-5101, 의정부 곰두리네집은 20일부터 1박2일간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 정동진으로 여행을 떠난다 031-829-8294. 덕유사회복지관도 24일 강화도 역사관 등을 둘러보는 야유회를 갖는다 032-325-2161.

소쩍새마을은 22일 장애인들과 가족, 자원봉사자, 후원자, 인근 군부대 장병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033-762-9870, 광림사 연화복지학원도 22일 오전 10시 석촌초등학교에서 청각장애인 체육대회를 연다 02-2202-5831.

경주 장애인복지관은 20일 오후 2시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학생들이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안대를 하는 등의 '장애체험' 행사와 함께 학교 앞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054-776-7522. 또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도 21일 오후 10시 제천시내와 시민회관에서 장애인과 일반인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체험 및 장애예방 비디오 등을 상영하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예방 캠페인'을 개최하며 043-652-0900, 대구 점자도서관도 20일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체험행사를 갖는다 053-256-8877.

구미금오복지관은 29일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함께 하는 가족동반 등산대회를 개최하며 054-458-0230, 대광맹인불자회도 22일 팔공산 갓바위로 산행을 떠난다 053-256-0114. 또 신흥사와 속초종합사회복지관도 26일 관내 장애인들을 초청, 설악산에 오르는 '하나로 장애인 등반대회'를 개최한다 033-631-8761.

한명우 기자



◇생명나눔실천회는 12일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전국민 1인1장기기증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장기기증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을 선언했다.

생명나눔실천회 '1인 1장기기증 전진대회'

시민단체 대표들 잇달아 서약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12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창립 7주년을 맞아 '전국민 1인1장기기증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장스님을 비롯해 법타(은해사 회주), 법등(전 종회의장), 진허(마곡사 주지), 일면(봉선사 주지), 청화(종회부의장), 성운(삼천사 주지) 스님 및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박광서 재가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교계인사와 이연숙 한나라당 부총재, 김기재 민주당 최고위원, 오장섭 건교부장관,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 박진탁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장 등 7백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직전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유종순(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은형(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임삼진(녹색연합 사무처장), 김두선(지식사회 청년연대 대표), 박광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들은 장기기증 및 시신기증을 서약했다.

법장스님은 축사에서 "전국민 1인 1장기기증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돼 이 땅이 생명을 나누는 불국토로 승화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네덜란드 안락사 합법화

교계 찬-반 엇갈려

네덜란드가 10일 안락사를 합법화함으로써 가톨릭, 시민단체 등이 이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상당수 교계 관계자와 학자들은 안락사가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정태혁 박사(동방불교대 학장)는 "안락사는 정신과 육체를 둘로 보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것은 불교 교리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다른 해석을 하는 학자나 스님들도 많다. 법장스님(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은 "안락사를 통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죽은 생명과 산 생명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적극적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직지사 앞 문화공원

김천시, 내년말 완공

경북 김천시가 직지사 일주문 앞에 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어서, 사하촌 난개발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천시는 12일 직지사 일주문 앞 2만1400평의 부지에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말까지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착공되는 문화공원에는 조각공원과 인공폭포, 조형분수, 산책로, 소나무 숲, 전통 정자, 물레방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천시 도시개발계획과 관계자는 "문화공원 조성으로 일주문 앞 토지 소유자들의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던 직지사의 사찰환경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경 기자

서정주 시인 유품 1만 2천여점 동국대에 기증

미당 서정주 시인이 남긴 유품 1만 2천여점이 동국대에 자리를 잡았다. 미당의 친동생인 서정태 시인은 10일 동국대를 방문해 〈화사집〉을 비롯한 유품 1만 2천여 점을 기증했다.

기증된 유품은 미발표 육필원고 30점을 비롯해 도서 4천 300권, 사진 2천 97점, 시작노트 10권, 제자들의 성적표, 시험지, 영수증 등이다. 또 미당이 생전에 치매 예방을 위해 외웠던 1천 625개의 산이름이 적힌 원고지 200장을 비롯해 그의 손때가 묻은 책상과 의자, 지팡이, 피리, 양복과 두루마기 등 생활용품도 포함됐다.

서정태 씨는 "유품 가운데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추렸다"며 "유족들도 대학에 보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기증품 전시를 위해 2002년에 완공되는 도서신관 안에 '미당 기념 자료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미당이 소장했던 도서는 일반인들에게 대출하고, 희귀본의 경우 복사본을 만들어 대출키로 했다. 오종욱 기자

동국대 전자도서관 짓는다

9일 도서신관 기공식

2002년 8월 완공

동국대는 9일 본관 옆 부지에서 도서신관 기공식을 가졌다.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4500평 규모로 2002년 8월 31일 준공될 도서신관 기공식에는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 스님, 송석구 동국대 총장, 황수영 동국대 前 총장, 서돈각 불교진흥원 이사장, 김동일 중구청장 등 3백 여명이 참석했다.

도서신관은 최근 경향인 전자도서관에 초점을 맞춰, 각 층에 인터넷 전용선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자료 검색이나 영상 정보 열람을 위한 190평 규모의 멀티미디어실과 AV실 등을 갖춘 최첨단 전자도서관으로 지어진다. 오종욱 기자

혜진스님 사건 '성폭력' 규정

불교여성개발원 반박성명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운동단체들이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혜진스님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자, 불교여성개발원이 반박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3일 혜진스님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통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거나 제한받은 경우는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했을 때 이번 경우는 성폭력의 한 유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은 7일 '혜진스님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한 반론'이라는 성명을 통해 "정확한 조사없이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의 말과 추측된 정황만으로 이번 일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한명우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 · 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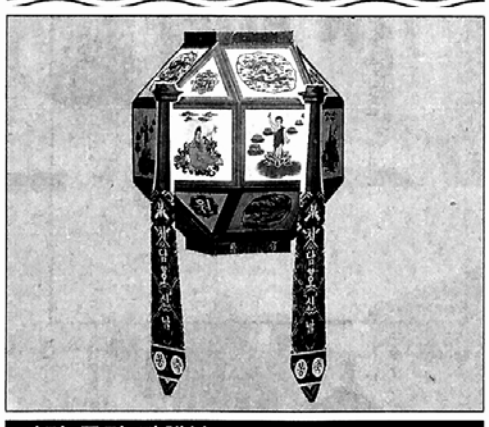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외환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연등초벌용 8Cm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연등완성품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함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결합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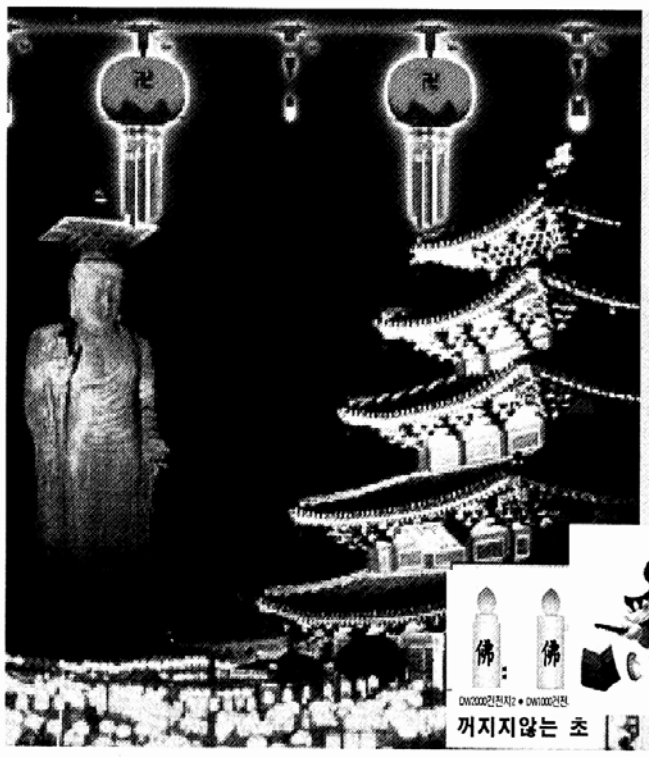
현우기획

전화:(02)467-1513 핸드폰:(016)552-9360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5cm,30cm,50cm, 1M,2M,3M,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순정품)
▶ 종류 : 3W, 5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인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꺼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582-6235~6 무료전화 (080)5826-236 평생전화 (0502)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583-4023 FAX (032)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 (031)986-0277~8



◇봄나들이 나선 병아리처럼 노란 빛깔이 고운 생강나무꽃. 진달래보다도 먼저 피어나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이다. 잎이나 어린 가지를 비비면 청량한 생강냄새가 난다.





◇군락을 이룬 조릿대. 산행 들머리부터 끝날 때까지 만날 수 있어 시원한 눈맛을 만끽할 수 있다.



◇화란봉 쪽에서 본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200여 가구가 산자락 이곳저곳에 기대어 산다. 밭농사가 많아 산마을 치고는 소득이나 살림이 넉넉하다고 한다.

꽃물결 흐드러진 봄산…생명이 넘치네

백두대간 속으로 〈33〉 삼당령→화란봉→닭목재

화란봉 기슭 얼레지 수줍게 눈인사

삼당령~석두봉 푸른 조릿대 숲 장관

하루가 다르게 산색이 변하고 있다. 진달래 꽃불은 다투어 산꼭대기로 번지고 있고, 이에 화답하듯 산벚꽃도 흐드러지기 시작했다. 점점이 노란 꽃망울을 매달고 있는 생강나무는 봄나들이 나온 병아리처럼 고운데, 그 아래로는 껑충한 목에 하얀 꽃을 피워올린 노루귀가 봄볕에 졸고 있다.

이렇듯 봄 산은 저마다 빛나는 생명들로 약동한다. 그런데, 이 활달한 생명의 나래짓과는 반대로 조용히 스러지는 것들이 있다. 이른 바 설해목(雪害木)이다. 그 중에서도 부러진 소나무 가지가 유독 눈에 띈다. 아직 푸르름을 잃지 않은 때문이리라. 눈길을 들어올려, 한때 그 가지를 자신의 일부로 삼았을 나무를 찾아본다. 아름은 족히 되어 보일 정도로 우람하다. 그 순간, 강렬하게 떠오르는 한 생각이 머리를 흔들어 놓는다. 설해목(雪害木)이라니. 안 될 말이다. 결코 눈(雪)은 나무를 해치지 않았고, 나무 또한 눈에 상처 입지 않았다. 그것은, 키를 올리기 위해 저절로 도태되어야 할 가지를 내려놓는 지극히 자연스런 자연의 순환 과정이다. 이를 어찌 '설해(雪害)'라 할 수 있을까. 모질고도 질긴 인간중심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닐 수 없다.

다시 삼당령(670m)이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과 정선군 임계면을 잇는 35번 국도상의 고갯마루다. 이곳에서부터 석두봉과 화란봉을 지나 닭목재에서 끝나게 될 이번 산행은 콧노래를 불러도 좋을 만큼 편안하다. 심하게 휘어들기는 해도 오르내림은 가파르지 않다. 강릉시 왕산면의 살뜰한 관리로 등산로도 선명할 뿐 아니라 연곡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산불 방제를 위해 만들어 놓은 방화선이 대간의 마루를 지나기 때문이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봄 바람에 들썩거리고 있다. 발바닥으로 전해오는 감촉도 푹신하다. 이번 산행은 초입부터 조릿대 숲을 뚫고 나가는데 거의 구간 전체에 걸쳐 군락을 이루고 있다.

삼당령에서 두어 시간 걷으면 들미재 어름이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한다. 우리도 그들처럼 둥지를 틀어야 할 것 같다.

한껏 게으른 아침을 보내고 석두봉(982m)을 향한다. 천천히 걸어도 들미재에서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이름 그대로 석두봉은 머리에 바위를 올려놓고 있다. 이곳에서 한 바퀴 휘 둘러보는 눈맛이 좋아 근사하다.

석두봉에서 내려서면 이내 헬기장이 나타난다. 그곳을 지나 북쪽으로 허리를 트는 봉우리까지는 능선 일대가 구름에 가까운 형국인데 은빛 조릿대 밭이다. 훤칠한 참나무와 우람한 소나무 아래로 펼쳐지는 초록의 물결이 초원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북쪽 기슭이나 산 그림자가 짙은 곳에는 아직도 드문드문 잔설(殘雪)이 눈에 띈다. 그래도 나무 밑둥 가까이만큼은 둥글게 원을 그리듯 맨땅이 드러나 있다. 눈으로 느끼는 생명의 온기다.

석두봉을 지나 큰 봉우리 두 개를 넘은 대간은 완전히 서쪽으로 허리를 튼다. 힘첩히 이어지는 산주름 너머로 화란봉(1069.1m)이 우뚝하다. 난초 꽃처럼 예쁜 봉우리라 하기엔 힘들어도, 기묘한 모양으로 놓인 정상부의 바위는 한참 동안 눈길을 붙들어 둔다.

화란봉을 오르기 전 홀로 꽃을 피워올린 얼레지가 눈인사를 건낸다.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으나 진한 자주색 꽃잎은 하늘로 솟구쳐 있다. 한복 멥시 좋은 여인이 살풋이 들어올린 치맛자락을 하늘거리며 걸어가는 듯한 모습인데, 꽃말이 글쎄, '바람난 여인'이란다. 그럼 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다.

화란봉을 지나 일찍감치 하룻밤 몸을 누일 자리를 찾았다. 어둠보다 먼저 구름이 몰려온다. 보름인데도 푸한 달구경은 커녕 바깥을 어슬렁거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화란봉에서 닭목재로 내려서는 길은 동네 뒷산 분위기다. 발걸음도 덜썩거리듯 가볍다. 이 길이 끝나는 곳에 반가이 맞아줄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강릉에서 대기리로 넘나드는 고갯마루인 닭목재(680m) 직전에는, 그냥 휑하니 지나치기 힘든 멋진 소나무 숲을 만날 수 있다. 아름드리는 아니지만 공들여 가꾼 것이 분명해 보이는 늘씬한 소나무들이 하늘을 들어올리고 있다. 강원도 금강송의 바탕 모습을 볼 수 있는 숲이다.

닭목재에서 배낭을 내려 놓는다. 이보다 더 편안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일상의 근심 걱정도 이렇게 내려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눈이 많이 오는 때에는 강릉에서 겨울을 난다는 대기리 사람들이 모여 길 양켠의 나뭇잎을 치우고 있다. 함부로 버린 담배 꽁초가 산불로 번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들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 못지 않은 씁쓸함이 마음 한 귀퉁이를 어둡게 한다. 왜 우리는 아직도 담배 꽁초 하나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살까.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일부러 좋은 길을 버리고 송천(松川)을 따라흐르며 구절리로 향한다. 거의 오염되지 않은 원시에 가까운 비경이 구비구비 펼쳐진다. 백두대간이 우리에게 덤으로 준 선물이다. 고맙고 고마운 일이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幡의 높낮이 조절 및 설치, 해체가 용이하고 바람에도 지탱되도록 설계"



철여래 번(7번) 치수 36cm × 140cm



아미타 번 52cm × 200cm 인로왕 번 52cm × 200cm



오방 번(5번) 치수 52cm × 200cm



삼신 번(3번) 치수 52cm × 220cm 보고 번 52cm × 220cm



치장 번(3번) 52cm × 220cm



함아 번 52cm × 220cm 원왕생 번 52cm × 220cm

"小錦 禹相洪선생의 친필로 자수"



시왕 번(十王10번 判官6번) 치수 23cm × 125cm

靈山作法 人間文化財 스님들의 考證에 의하여
法會莊嚴을 위하여 다시 태어난 佛國土의 화현!

성보 박물관 및 국공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통幡을 기초로하여 重要無形文化財 원로스님들의 고증과 원로 서예가의 佛力으로 寫經한 佛·菩薩의 명호를 섬세하게 자수실로 수를 놓아 영구히 소장 할 수 있는 성보로 조성하였습니다.

◆李 萬 奉(만봉) 重要無形文化財 第48號 丹靑匠 保有者
◆朴 松 岩(송암) 重要無形文化財 第50號 靈山齋 保有者(故)
◆張 碧 應(벽응) 重要無形文化財 第50號 靈山齋 保有者(故)
◆李 一 鷹(일응) 重要無形文化財 第50號 靈山齋 保有者
◆朴 印 空(인공) 重要無形文化財 第50號 靈山齋保存會 會長
◆金 九 海(구해) 重要無形文化財 第50號 靈山齋 準 保有者
靈山齋保存會 附設 法音大學長

번의 글씨체는 불·보살의 상호와 같으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佛教傳統儀式具

전통번 제작기법 그대로를 재현한 화제작

佛·菩薩의 무량한 공덕을 나타내는 번(幡)과 연(輦)은
우리 불교 문화예술의 꽃이며, 전통적인 불교장엄의식의 한 형태로서
불가의 일상생활에서 법회나 각종 재를 지내고 의식을 거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아주 장엄한 불교문화 유산입니다.

靈山齋保存會에서는 전통의식구 그대로를 재현한 장엄일체를
보급운동하오니 이 기회에 소장하시길 바랍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 산 재 보 존 회 장 朴 印 空 합장



확실히 고증된 작품만이 소장의 가치를 더합니다.
영산재보존회의 작품을 필히 확인하십시오.

·제작보급/영산재보존회 부설 한국불교전통장엄연구소 · 문의전화/(代) 02)396-5070 · 보존회02)392-3007

장엄 의식구 자료가 필요하면 무료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대법회 · 낙성식 · 49재 · 천도재 · 예수재
영산재 · 수륙재 · 각종행사